발 간 등 록 번 호
74-6440000-000371-10



충남 사회조사를 활용한

2020 도민의 삶과 정책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연구 보고서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충청남도

이용자를 위하여

- 본 보고서의 연구주제는 지역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자료에 연구자가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 인용된 충청남도 사회조사 통계표는 연구자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처리 방법상의 차이로 인해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 보고서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권역 구분은 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 서해안권(태안, 보령, 서천), 내륙권(공주, 계룡, 홍성, 예산, 청양), 금강권(금산, 논산, 부여)으로 하였습니다.
- 본 보고서에서 지역특성 구분(도시, 농어촌)은 현장조사원이 조사구별로 분류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서 통계표의 개별 계층별 사례수가 적은 경우는 해석에 유의 바랍니다.
- 본 보고서는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 및 분석」 용역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으며, 본 보고서 내용을 발표 또는 인용할 때는 반드시 「도민의 삶과 정책」 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 본 보고서에 실린 모든 내용은 해당 연구자의 견해이며, 충청남도의 공식 의견은 아닙니다.



CONTENTS

01. 환경

충남 환경 만족도와 사회지표, 대기오염과의 교차·상관성 분석(이상신) 8

02. 안전

충남 사회지표를 활용한 안전 환경 분석 및 정책 방향(박근오) 26

03. 여가·문화

충남의 여가문화생활 행태분석과 정책방향(이인배) 48

04. 사회통합과 공동체

충남 도민의 지역공동체 활동 인식과 정책방향(전지훈) 98

05. 청년/노동

충남 청년층 노동실태와 정책과제(김병준) 118

환경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1. 충남 환경 만족도와 사회지표, 대기오염과의 교차·상관성 분석

요 약

이 상 신
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sinslee@cn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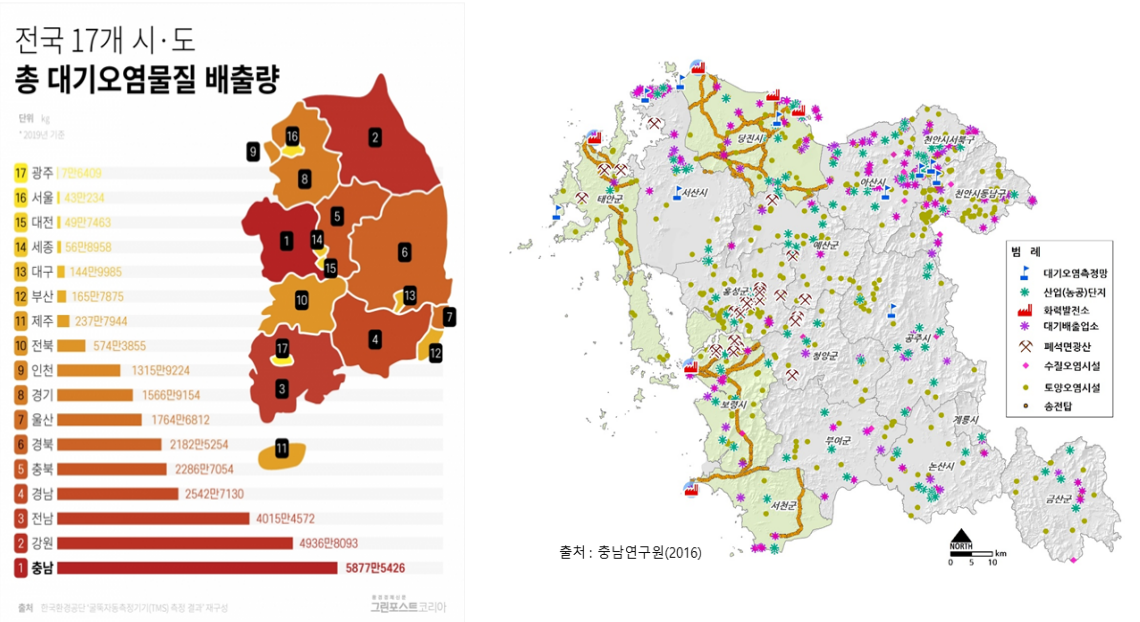
-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1차 에너지 공급량이 1위이며,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전국 60기 중 30기)이 입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국 1위로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가 큼
- 이러한 이유로 2020 충남 사회조사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사회지표와 환경체감도, 미세먼지 관련 지표의 교차분석과 상관성 분석을 통해 충남 사회조사의 의미를 찾고자 함
- 시군별 대기환경 체감도에서는 당진시가 월등히 낮은 체감도를 보이고 있어 당진시는 대기환경 개선에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30대의 대기환경 체감도가 가장 낮아 30대를 중심으로 대기환경 개선 정책 관련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함
- 현재 기초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는 환경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과정 교육으로 확대해야 함
- 충청남도는 대기환경 개선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조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 정책홍보와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함
- 미세먼지 정책 홍보나 교육 등 정보접근성 강화는 충청남도 거주기간 5~10년, 중상위 이상 소득층에 집중해야 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충청남도는 전국 지자체 중 1차 에너지 공급량이 1위(전국 화력발전 설비 용량 35,350.66MW의 51.6%인 18,228.06MW를 담당)이며, 이를 위해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알려진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전국 60기 중 30기)이 위치해 있다.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등 대규모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이 밀집해 있어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총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굴뚝자동측정기(TMS) 부착배출 시설 기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원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한정된 예산과 기간 등으로 과학적 접근과 함께 충남도민의 환경체감도 개선을 고려하여 환경정책을 발굴하거나 적용하기 위한 접근도 필요하다.

<그림 1-1> 전국대기오염물질 배출량(좌), 충청남도 주요 오염배출원(우)



자료: 기후위기보고서 2019, 그린포스트코리아(2020),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 연구, 충남연구원(2016)

이러한 이유로 충청남도 사회조사에서는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주거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조사부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세부 항목을 추가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 분야(미세먼지 중심)의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군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등 일반조사 항목과 교차분석, 상관성 분석을 통해 현재 충청남도와 시·군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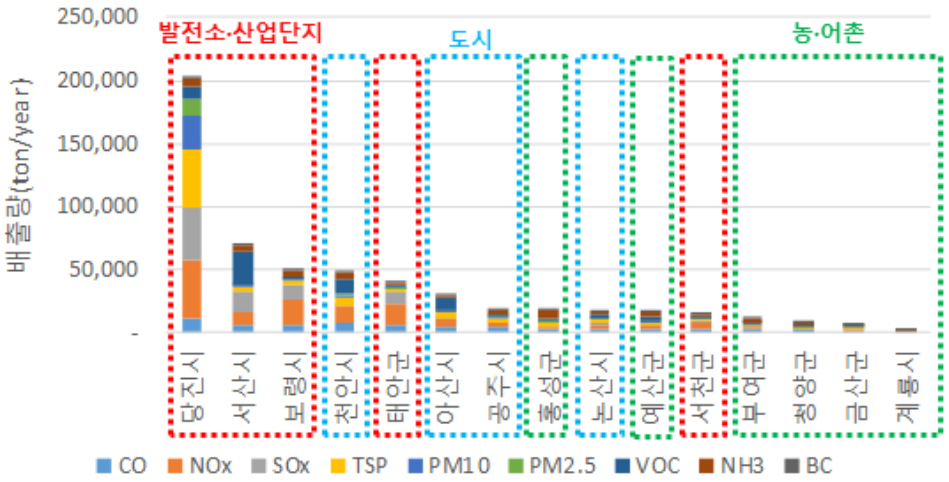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충청남도 환경 분야별 체감도와 시군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등 일반조사 항목과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각 조사항목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또한, 각 항목간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지표와 환경체감도, 미세먼지 관련 항목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특정 환경정책 시행을 준비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할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충남도민의 전반적인 환경체감도 개선을 위해 선택과 집중해야 하는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근거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환경체감도 분야별 현황 분석

충남 사회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항목과 동일하게 지역(동네) 환경에 대해 대기, 수질, 토양, 소음·진동, 녹지환경, 거주지역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 환경에 대한 체감도를 시군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충남 거주기간별, 가구소득별로 분석하여 일반 사회조사 지표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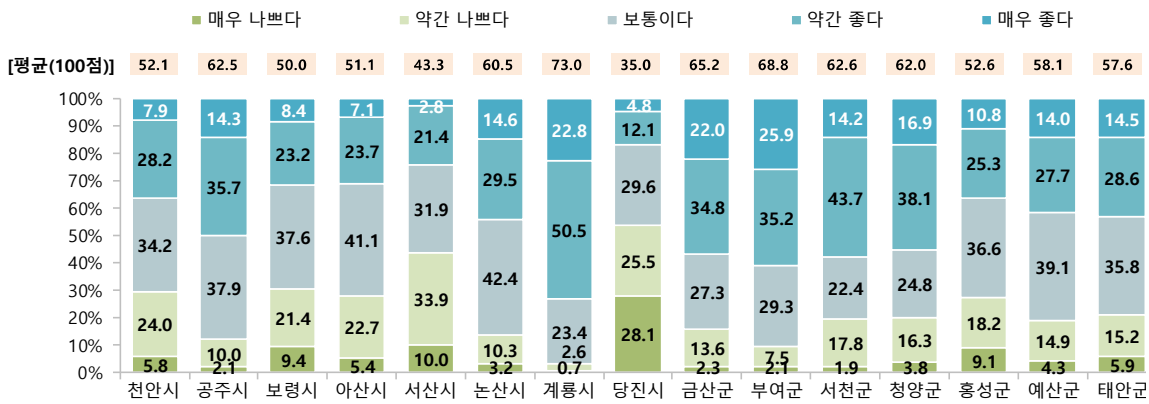
악취, 매연, 오존경보 등이 포함된 대기 분야에서 시군별로 교차분석한 결과 당진시의 대기환경 체감도가 35.0점(100점 환산)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룡시가 7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매우 나쁘다'와 '약간 나쁘다'가 53.6%로 절반 이상이 응답하였다. 이는 충남 도내 시군 중 당진시가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1위를 기록하였고, 충남 도내 도시 대기측정소 중 당진시에 위치한 송산면 측정소의 미세먼지 농도(PM_{10})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2>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CAPPS, 2016 기준)



자료: 충청남도 미세먼지·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수립 중간보고회 자료집,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2020)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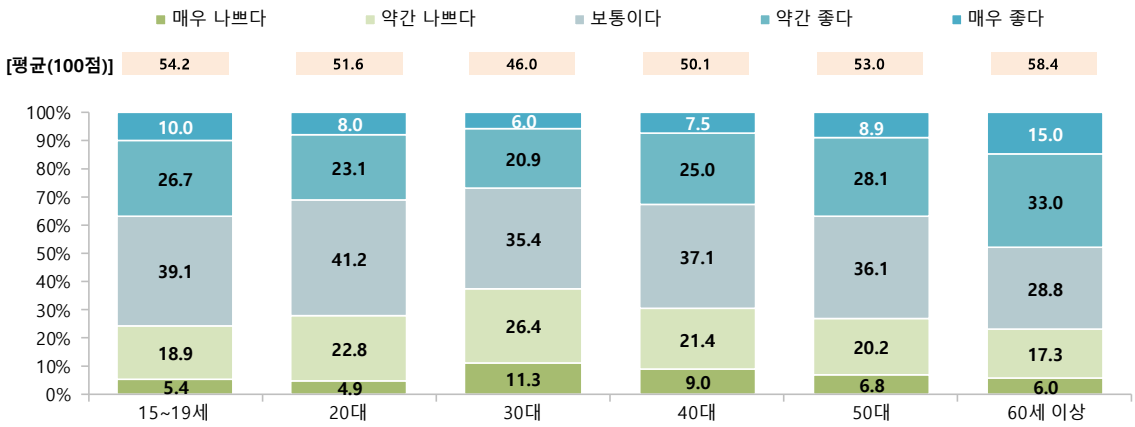
<그림 1-3> 시군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연령별 대기환경 체감도는 30대까지 '나쁘다'(매우 나쁘다+약간 나쁘다)고 판단하는 정도가 높아지다 30대 이후 다시 낮아져 일반적인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고 어린 자녀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타 분야 환경문제보다 대기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위 결과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정책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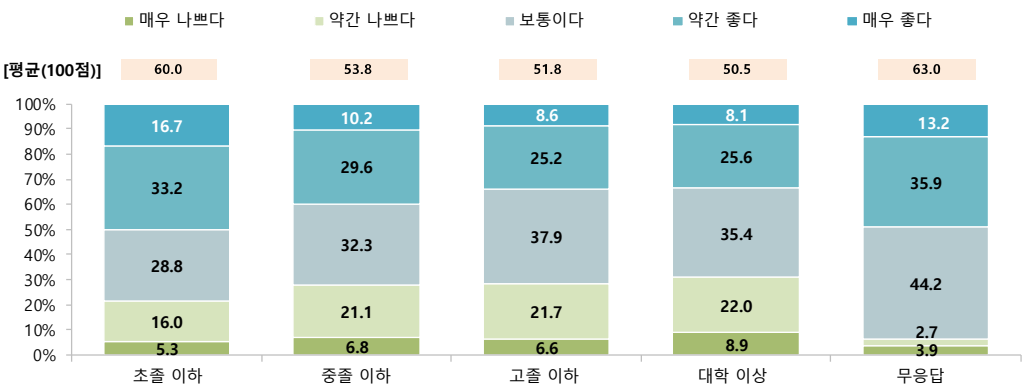
<그림 1-4> 연령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학력별 대기환경 체감도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개선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조사 결과로 전국적인 현상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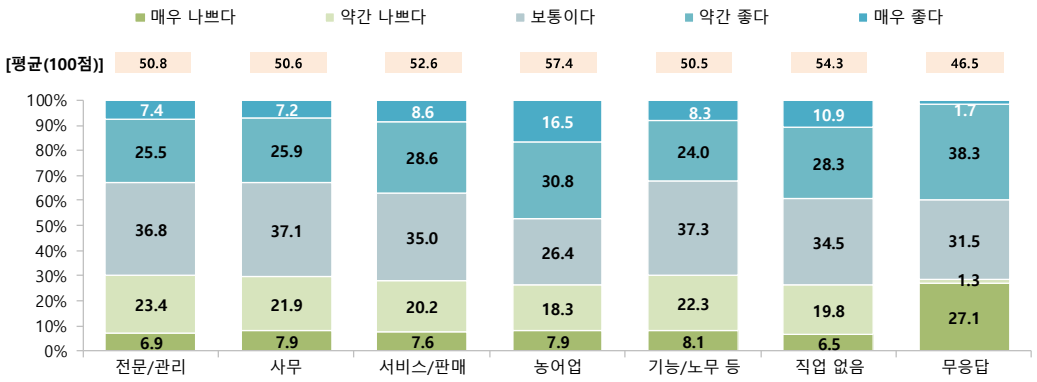
<그림 1-5> 학력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직업별 대기환경 체감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농어업의 경우처럼 실외환경에 밀접한 직업군이 좀 더 부정적인 경향이 크게 나타났으며, 이 또한 국가조사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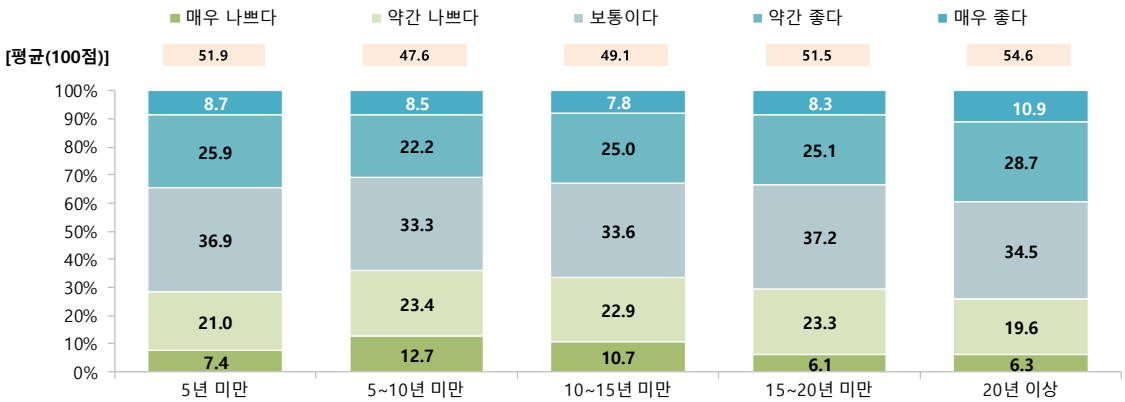
<그림 1-6> 직업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충남 거주기간별 조사 결과는 충청남도의 대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가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나타났다. 이주 초기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나 '5~10년 미만'에서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부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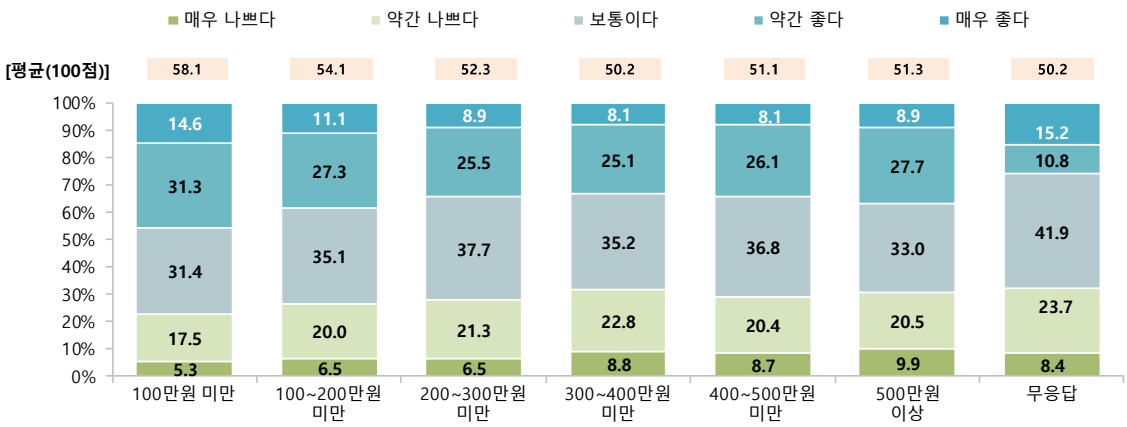
<그림 1-7> 충남 거주기간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가구소득별 대기환경 체감도의 경우 가구소득이 늘어날수록 지속적으로 대기환경 체감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환경 전반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환경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이는 다시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된다.

<그림 1-8> 가구소득별 대기환경 체감도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등이 포함된 수질 분야의 경우 대기 분야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시군별 수질 환경체감도의 경우 대기 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시군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가구소득별 체감도도 전체적으로 대기환경 분야보다 높고 계층간 차이도 줄어들었다. 특히 거주기간별 수질 환경체감도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질관리 정책은 일정부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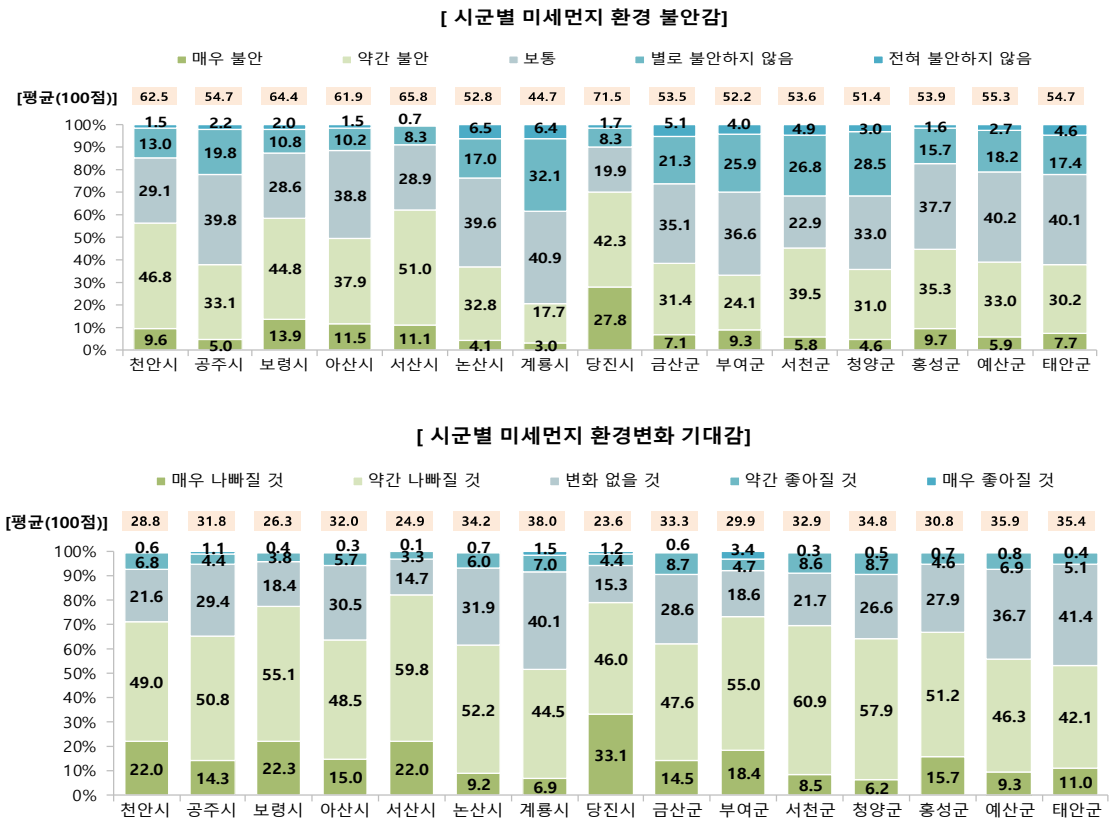
대기, 수질 이외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소음·진동, 녹지환경 등 분야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시군별, 계층별 차이는 대기환경 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환경 분야 체감도 개선을 위해서는 대기환경 분야 정책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환경체감도는 당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계룡시를 제외하면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등 농촌지역의 환경체감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미세먼지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현재 불안감과 개선에 대한 미래 기대감을 일반 사회조사 지표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당진시가 미세먼지에 대한 현재 불안감은 가장 높고(71.5점), 미래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가장 낮게(23.6점) 나타났다. 현재 대기환경 체감도와 동일한 결과로 당진시의 경우 현재 대규모 배출시설 가동과 더불어 미래 산업단지 확대 등 시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보다 미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가 9.0%(미세먼지 현재 '불안' 70.1%, 미세먼지 미래 '나빠질 것' 79.1%)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충청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탈석탄 정책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거나 현재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1-9> 시군별 미세먼지 관련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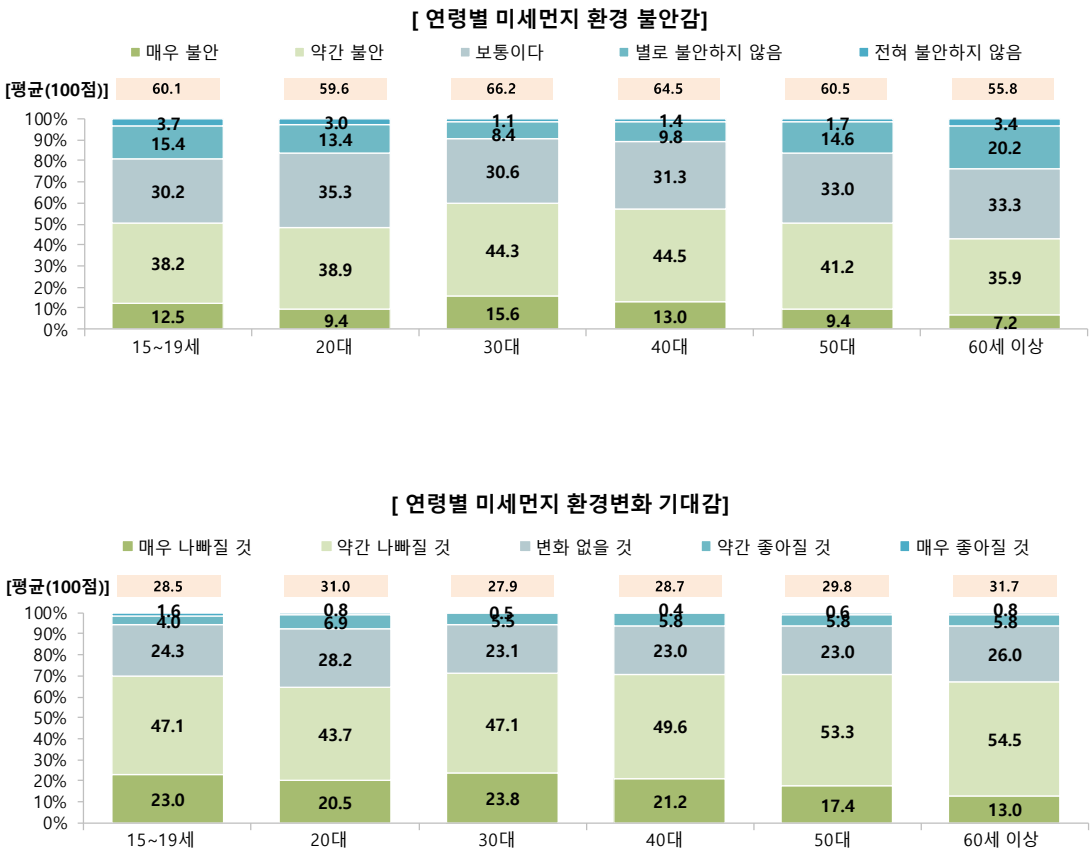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연령별로도 현재보다 미래가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대가 현재 가장 크게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도 고학력일수록 현재 불안감은 높고, 미래 기대감이 낮았으며 직업별, 거주기간별의 현재 불안감과 기대감도 대기환경 체감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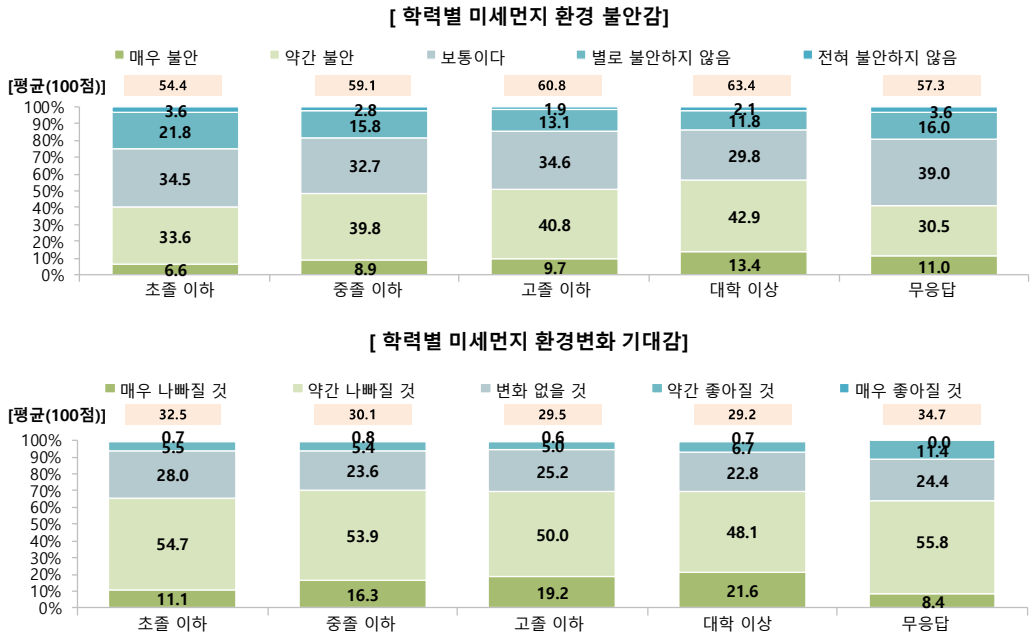
다만,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낮게 나타나고 계층간 차이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충남도민들이 미세먼지 관련 정보 접근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막연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정확한 정보생산 및 신속한 정보전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구축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림 1-10> 연령별 미세먼지 관련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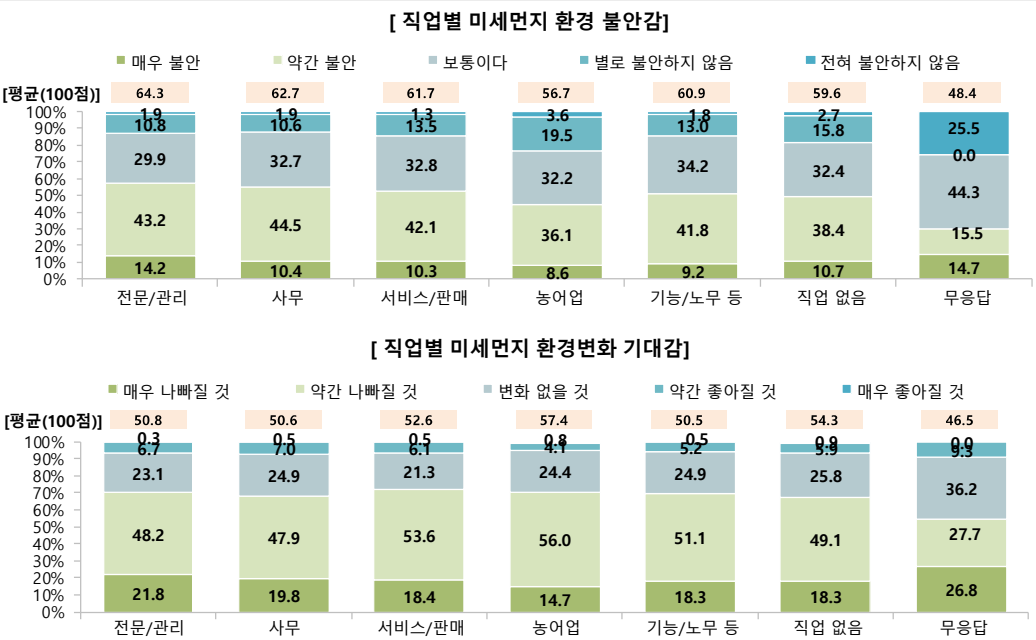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그림 1-11> 학력별 미세먼지 관련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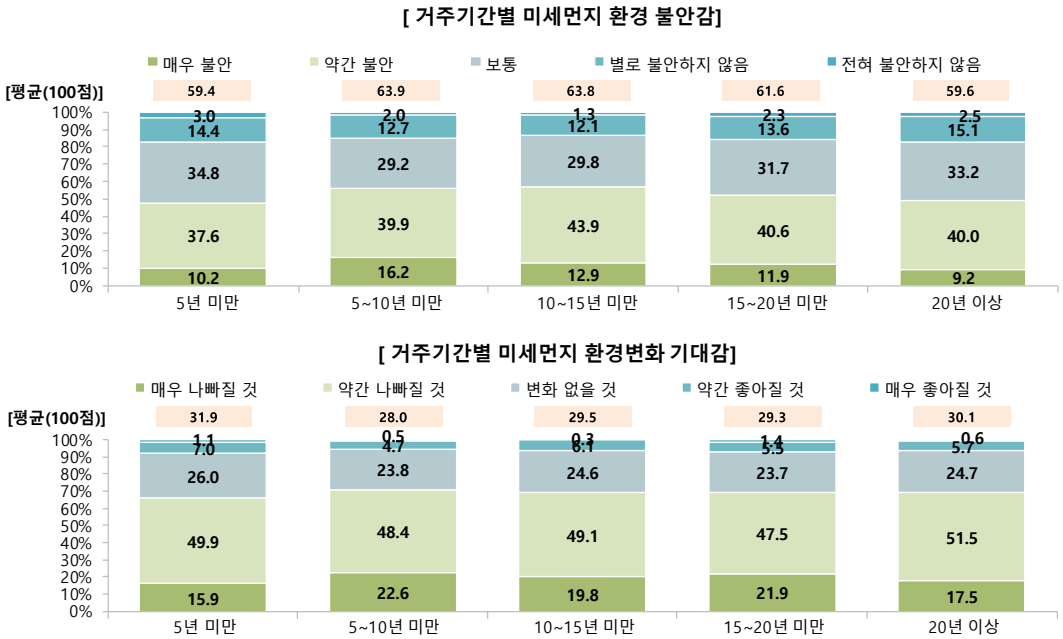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그림 1-12> 직업별 미세먼지 관련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그림 1-13> 충남 거주기간별 미세먼지 관련 현재 불안감과 개선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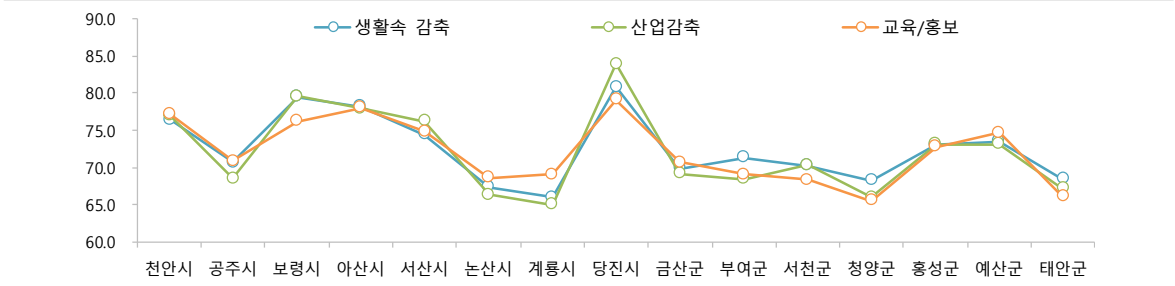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충남 사회조사」, (2020)

4. 미세먼지 대응 정책 필요성

2020 충남 사회조사에 추가로 조사된 미세먼지 대응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도시지역은 산업 분야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이 높게 나타났다. 예산군은 교육·홍보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등은 산업 분야 감축 필요성이, 부여군, 청양군, 태안군 등은 생활 속 감축이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림 1-14> 시군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단위 :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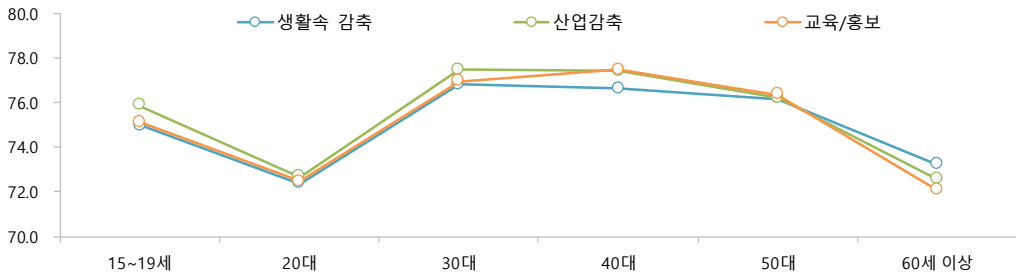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충남 사회조사」, (2020)

연령별로는 20대와 60대가 미세먼지 감축 필요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으며, 사회생활이 활발한 40대 이하에서 산업분야 감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1-15> 연령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단위 :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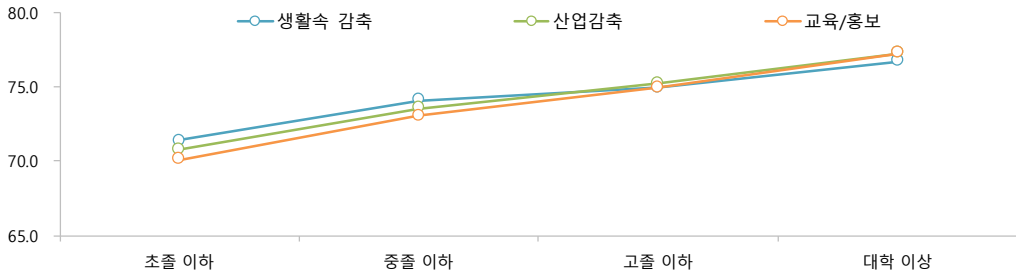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학력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또한 고학력일수록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학력이 낮을수록 생활 속 감축이 중요하며, 고학력일수록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그림 1-16> 학력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단위 : 점(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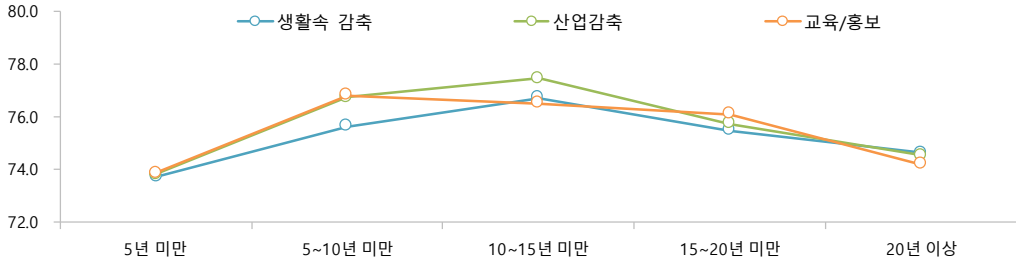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충남 거주기간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에서는 거주기간이 10~15년 미만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있으며, 5~10년 미만에서는 생활 속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이 기간에 집중할 수 있는 정책 대안 개발이 필요하다. 가구소득별 조사에서도 저소득층보다 300만원 이상 계층에서 생활 속 감축 필요성을 낮게 느끼고 있어 맞춤형 정책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17> 충남 거주기간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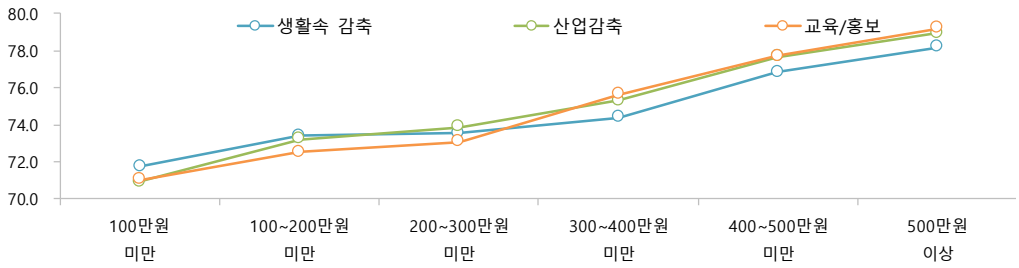
(단위 : 점(100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그림 1-18> 가구소득별 미세먼지 분야별 감축 필요성

(단위 : 점(100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5. 사회지표-환경체감도-미세먼지 지표간 상관분석

2020 충남 사회조사에서 수행한 미세먼지 관련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지표와 환경체감도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을 통해 사회지표가 환경체감도나 미세먼지 지표와 상관성이 확인된다면, 사회지표의 특정 집단을 상대로 관련 정책을 집중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 사회지표인 연령, 삶 만족도, 주당 근로시간, 월평균 소득, 충남 거주기간, 개인 학력이 환경체감도와 미세먼지 관련 불안감과 대응방안 등과 상관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체감도간 유의미한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수질환경 체감도는 대기를 제외한 모든 항목과 뚜렷한 양의 상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세먼지 대응 방안 관련하여 교육은 생활 속 감축이나 산업시설 감축과 강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교육이 미세먼지 감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1> 사회지표와 환경체감도, 미세먼지 관련 지표간 상관성 분석결과

		연령	삶 만족도	근로 시간	평균 소득	거주 기간	개인 학력	환경체감도					불안정도			대응방안		
								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	전반적	현재	5년 후	생활	산업	교육
연령		1																
삶 만족도		-0.071	1															
주당 근로시간		-0.209	-0.008	1														
월평균 소득		-0.233	0.086	0.243	1													
충남 거주기간		0.658	-0.045	-0.146	-0.203	1												
개인 학력		-0.194	0.060	0.075	0.141	-0.195	1											
환경 체감도	대기	0.099	0.070	-0.030	-0.014	0.072	-0.015	1										
	수질	0.082	0.046	-0.040	-0.017	0.061	0.016	0.621	1									
	토양	0.066	0.047	-0.036	-0.011	0.044	0.020	0.462	0.729	1								
	소음	0.067	0.040	-0.039	-0.012	0.032	0.016	0.464	0.652	0.543	1							
	녹지	0.073	0.055	-0.039	-0.018	0.047	0.021	0.570	0.655	0.679	0.512	1						
	전반	0.083	0.063	-0.027	-0.014	0.063	0.023	0.566	0.684	0.635	0.530	0.668	1					
불안 정도	현재	-0.119	-0.019	0.018	0.028	-0.099	0.029	-0.210	-0.095	0.047	-0.082	0.053	-0.113	1				
	5년 후	0.038	0.022	-0.001	-0.011	0.028	-0.009	0.057	0.028	0.025	0.028	0.026	0.032	-0.103	1			
대응 방안	생활	-0.018	0.040	-0.026	0.016	-0.018	0.020	-0.045	0.080	0.112	0.055	0.076	0.037	0.227	0.078	1		
	산업	-0.027	0.041	-0.018	0.021	-0.019	0.040	-0.052	0.071	0.106	0.045	0.067	0.028	0.225	0.073	0.869	1	
	교육	-0.032	0.033	-0.004	0.032	-0.036	0.044	-0.041	0.117	0.186	0.120	0.153	0.081	0.205	0.082	0.842	0.833	1

6. 결론 및 정책 제언

본 연구에서는 2020 충남 사회조사를 바탕으로 환경체감도에 대해 교차분석과 상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기오염배출량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와 환경 변화 기대감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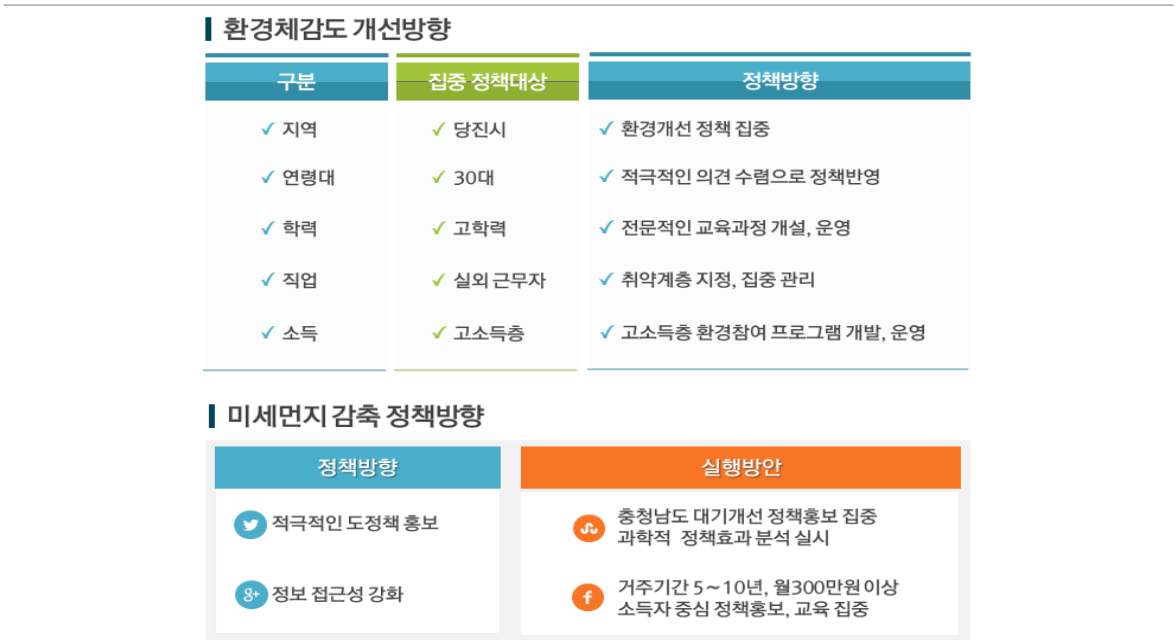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 결과의 의미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당진시는 시군별 대기환경 체감도에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낮은 체감도를 나타내고 있어 (대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 연령별 분석 결과에 의하면 30대에서 대기환경 체감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므로 30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학력별 대기환경 체감도 분석에서는 고학력일수록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충남의

환경교육은 기초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문과정 교육을 추가로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 직업별 환경체감도 분석 결과에서는 실외환경 근무자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 실외환경에 근무하는 직업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가구소득별 분석 결과 고소득 전문직은 환경 의식 수준이 높고 요구의 정도도 높으므로 환경적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더불어 환경 개선을 위해 기부 등을 유도하여 개선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미세먼지 관련 지표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이고 체계적인 대기 개선 정책을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현재보다 미래로 갈수록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 충청남도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인 충남도민은 생활 속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소득의 경우도 월 300만원 이상인 가구에서 생활 속 감축 필요성을 더 낮게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구간에 집중하여 미세먼지 정책 홍보나 교육 등 정보접근성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림 1-19> 충청남도 환경체감도 개선방향과 미세먼지 정책방향





참고자료

충청남도(2017~2020). 충남 사회조사.

충남연구원(2016). 화력발전소 기후환경 영향에 따른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연구.

전력통계정보시스템(2020). 2020.8.20. 기준, 민간발전사업자 제외.

그린포스트코리아(2020). 기후위기 보고서(2019 지역 및 주요 대기업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2020).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

안전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2. 충남 사회지표를 활용한 안전 환경 분석 및 정책 방향

요 약

박 근 오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keunoh@cni.re.kr

- 본 연구는 도민들의 삶의 질,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설문을 통해 구축된 충남 사회지표 결과물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재난 및 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를 위해 그동안 발생했던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충남의 재난 및 안전 환경을 진단하고, 정성적 결과물인 설문 응답 결과를 활용한 객관적 분석을 위해 통계 및 응용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음
- 분석 결과, 도민들은 전반적으로 불안감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불안감이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대폭 상승하였으며,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 분야의 안전도는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언하였음
- 첫째, 안전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 및 방법을 강구하여 재난 및 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 둘째, 생애주기 학습을 고려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제언하였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재난이라고 하면 관련 법에 의해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속의 세부적인 유형의 재난까지도 규정되어 있듯이 법 제도적으로는 나름의 명확한 구분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의 재난이 단독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보다 두 개 이상의 재난이 동시에 혹은 복합적으로 발생할 때 더욱 피해가 크고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현대 재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사회재난의 구분 없이 혼합되거나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데 있다. 또한 전통적인 재난 유형이 아닌 사회적·경제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면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재난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에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는 만 10개월 이상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아직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도민들의 삶의 질, 교육, 건강, 환경, 안전 등 우리 사회의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충남 사회조사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하여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생각과 불안감, 안심·안전 등을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도민들의 삶의 질, 교육,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설문을 통해 구축된 충남 사회지표 결과물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도민들의 생각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발생했던 재난 및 각종 안전사고를 중심으로 충남의 재난 및 안전 환경을 진단하고 정성적 결과물인 설문 응답 결과를 최대한 정량화하여 객관적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통계분석(빈도, 교차분석) 및 응용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시점은 2020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되, 최근 5년간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일부 활용하여 그 추이를 함께 살펴보았다.

2. 충남의 재난 및 안전 환경

1) 자연재난

우리나라는 매년 각종 태풍과 장마, 국지성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비롯하여 각종 자연재해에 의해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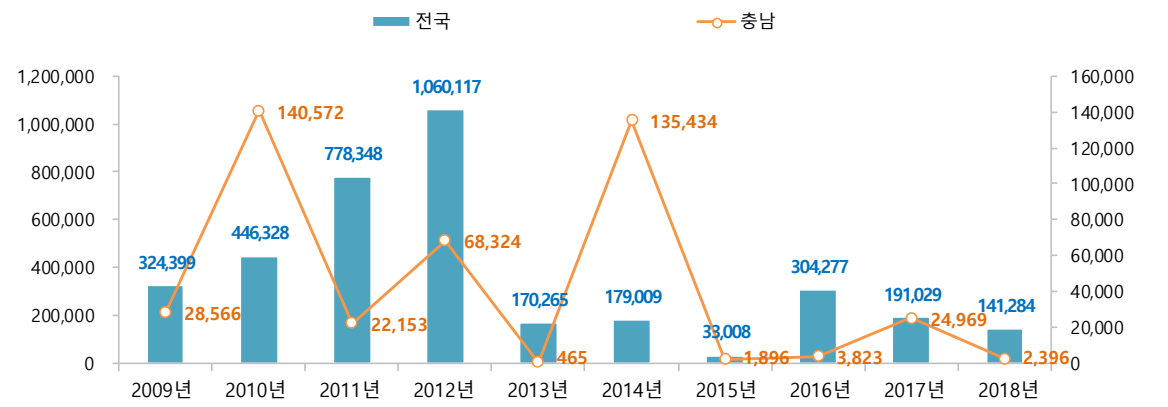
최근 10년간 풍수해, 대설, 한파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약 3조 6천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해 왔으며, 그중 충남에서는 약 3,067억원 가량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 대비 약 8.5%에 해당하는 피해가 지난 10년간 충남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최근 10년간의 피해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해마다 일정하지 않게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2011~2012년에 걸쳐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고, 충남에서는 2010년 및 2014년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그림 2-1 참조).

특히, 2014년은 태풍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대설을 기록했던 해로 비닐하우스 등이 붕괴되면서 각종 작물피해가 컸으며, 도로 마비, 물류 대란 등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피해가 있었다.

<그림 2-1>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현황(2009~2018년)

(단위 : 백만원)



주 : 피해액은 2018년도 환산가격 기준임

자료: 행정안전부,「2018 재해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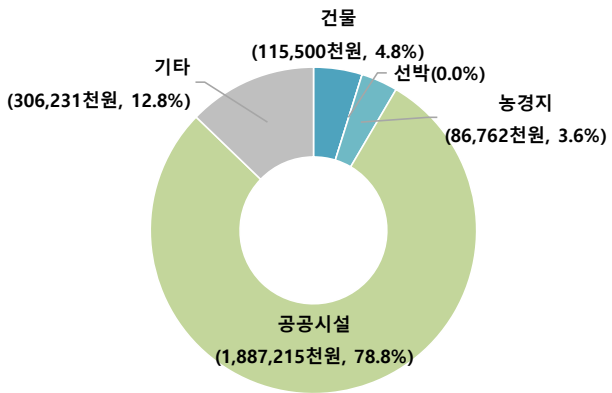
동 기간동안 인명 피해는 9명의 사망 혹은 실종 피해가 있었으며, 3,149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명피해 및 이재민 피해는 2009~2012년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최근 3년(2015~2018년) 동안은 2명의 사망 혹은 실종과 64명의 이재민 피해가 발생하여 이전 대비 많이 감소하였다.

시설별로 살펴보면, 공공시설의 피해가 총 19여억 원으로 전체의 약 78.8%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건물피해(4.8%), 농경지 (3.6%) 등의 순으로 피해가 발생하였다(그림 2-2 참조).

특히 공공시설 피해 및 농경지 피해는 태풍·강풍 및 침수 피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대부분으로, 농업 지역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 여건상 농경지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어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그림 2-2> 2018년 충남 시설별 피해현황(2018년)

(단위 : 천원, %)



자료: 행정안전부,「2018 재해연보」

2) 사회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사회재난은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총 117건이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745명의 사망 포함 2,409명의 인명피해와 약 3조 3,580조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1] 이 기간 동안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12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14년), 세월호 침몰사고('14년), 중동 호흡기 증후군('15년), 제천('17년) 및 밀양('18년) 화재사고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그 유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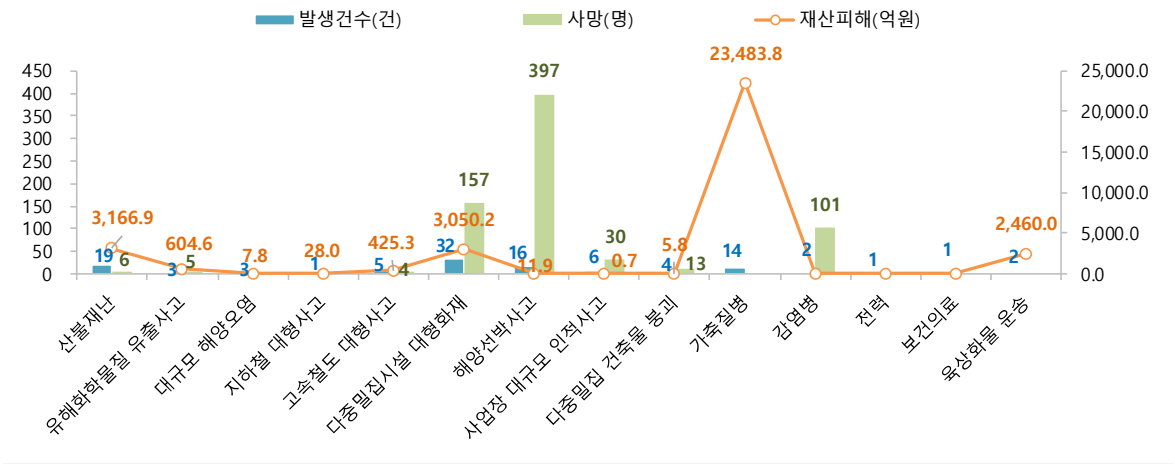
1) 자료: 행정안전부,「2019 재난연감」

다양하게 발생하였다.

발생건수 기준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사회재난은 다중밀집시설에서의 대형화재로 최근 10년간 총 32건이 발생하였으며, 157명의 사망자 포함 총 76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인명피해 기준으로 보면, 해양선박사고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이는 2014년 발생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재산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가축 질병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총 2조 3,48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사회재난 유형 중 발생건수에 비해 경제적 피해를 가장 크게 유발하는 재난유형이라 볼 수 있다(그림 2-3 참조).

<그림 2-3> 최근 10년간 사회재난 발생 현황(2010~2019년)

(단위 : 건, 명, 억원)



자료: 행정안전부,「2019 재난연감」

이에 비해 충남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를 불러일으킬 정도의 대규모 사회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세부 유형별로 볼 때 충남도 결코 안전하지는 못하였다.

특히 산업단지가 집중되어있는 아산, 서산 등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나 가축질병 등의 사고 및 피해가 종종 발생하였으며,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는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인 피해를 안기고 있다.

한편, 각종 사고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교통사고, 화재, 추락, 해양사고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총 298,407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5,325명의 사망과 359,32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그 중, 충남에서는 13,047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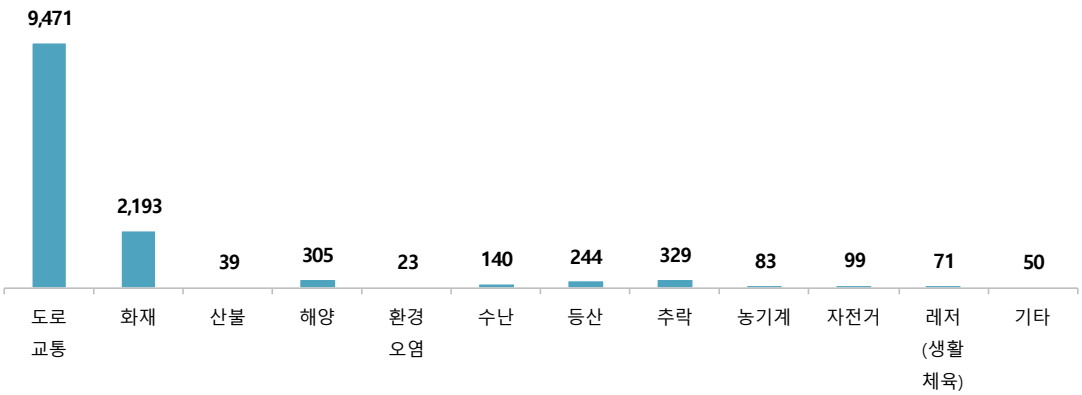
사고가 발생하여 403명의 사망과 14,990명의 부상자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발생기준으로는 경기(23.2%), 서울(16.2%), 경북(6.4%) 등에 이어 8위에 해당하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간 정도의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사망을 중심으로 한 인명피해를 기준으로 보면 경기(23.7%), 경남(9.4%) 경북(9.0%) 및 전남(8.4%)에 이어 전국 5위에 해당하는 등 사망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각종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9년 충남의 각종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과 화재에 의한 사고가 총 11,664건으로 전체의 89.4%에 해당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4 참조). 또한 사망을 기준으로 한 인명피해로는 도로교통에 의한 사망이 309명으로 전체의 76.7%에 해당하며, 화재(33명), 수난(29명), 추락(13명)에 의한 사고가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처럼 충남에서는 도로교통(교통사고)에 의한 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인명피해(사망)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교통사고 등에 대한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림 2-4> 2019년 충남 각종 사고 유형별 발생현황

(단위 : 건)



자료: 행정안전부,「2019 재난연감」

3. 분야별 안전 인식 분석

1) 분석의 틀

충남 사회조사에서는 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도민의 생각을 묻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민들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민들이 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최근 5년간('16~'20년)의 응답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그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분야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결과, 총 8개의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각 분야별로 연도별, 연령별, 성별 등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분야별 안전체감도를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각 분야별 응답 결과를 지수화하여 변화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안전 인식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마지막 부분에 제시하였다.

2) 분야별 안전 환경 분석

먼저 2020년 조사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이 각 분야별 안전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최근 5년간 사회조사의 동일한 문항을 대상으로 추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응답 결과에 대한 연령별, 성별 분석을 통하여 2020년 충남 도민들이 생각하는 안전 환경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올해 충남도민들은 여러 분야 중 신종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먹거리(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5 참조). 이는 올 초부터 전국적인 재난 수준의 위험성과 함께 확진자의 발생 및 급증 등 코로나19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신종 전염병 분야만 안전함보다는 불안감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분야는 모두 불안감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함을 크게 느끼고 있는 분야는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먹거리, 화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종 전염병을 제외하면 범죄에 대한 안전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올해 예년과 달리 긴 장마와 규모가 큰 규모의 태풍이 연이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면서 큰 피해를 유발하였던 것과 달리 실제 도민들은 자연재해에 대해 상당히 안전함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올해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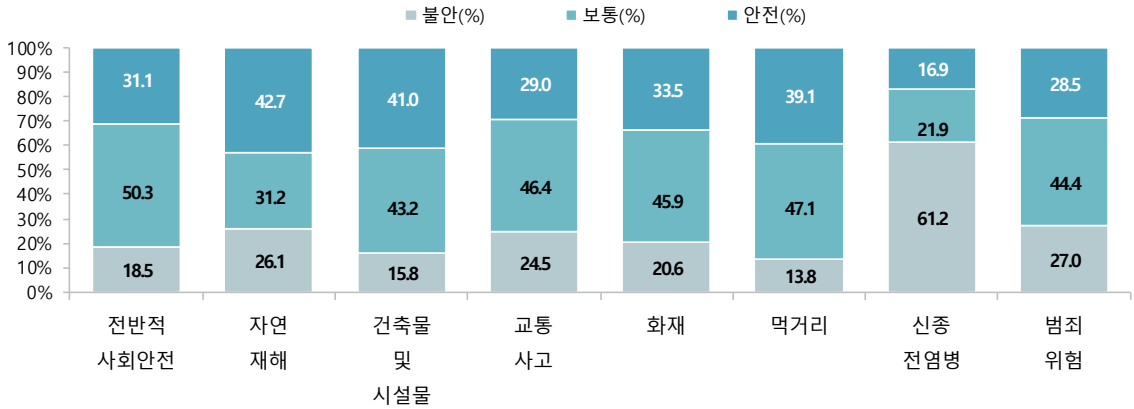
설문이 긴 장마와 태풍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영향이 본 설문 응답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3~4년간 태풍,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큰 피해가 예년에 비해 적었기 때문에 도민들의 인식 속에 크게 불안감으로 작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범죄위험과 교통사고는 안전함과 불안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도민들에게 있어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주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불안감이 높은 분야와 비교적 안전함을 느끼는 분야가 고루 나타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는 불안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분야별 안전 환경 인식 수준 분석결과

(단위 : %)



자료: 충청남도,「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하지만, 최근 5년간의 분야별 안전 환경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불안감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과 같이, 불안감이 증가하면서 안전함이 감소한 분야는 신종 전염병과 범죄위험 분야가 해당되며, 신종 전염병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고, 범죄위험 분야는 안전함을 느끼는 도민들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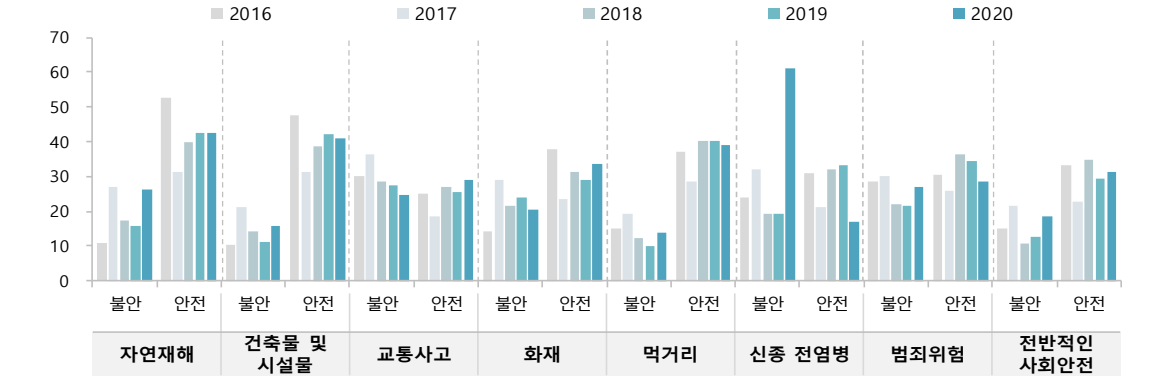
자연재해와 건축물 및 시설물, 먹거리 분야는 안전함을 느끼는 비율은 거의 변함이 없으나 불안감이 다소 증가한 분야이며, 교통사고와 화재 분야는 불안감이 다소 감소 추세이면서 안전함을 느끼는 도민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안전함을 느끼는 도민들은 크게 변함이 없는 반면, 불안함을 느끼는 도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단순히 2020년 코로나19만의 영향이라기

보다는 범죄위험, 먹거리(식품안전) 등 불안감이 점차 증가하는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림 2-6> 최근 5년간(2016~2020) 분야별 안전환경 인식 수준

(단위 : %)



자료: 충청남도,「충청남도 사회조사」, (2016~2020)

한편, 2020 충남 사회조사 설문에 대해 성별 및 연령별로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와 여자 간 응답차는 0.3~1.7%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각 분야별 안전 인식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연령별로도 의미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다만 유형별로 느끼는 불안감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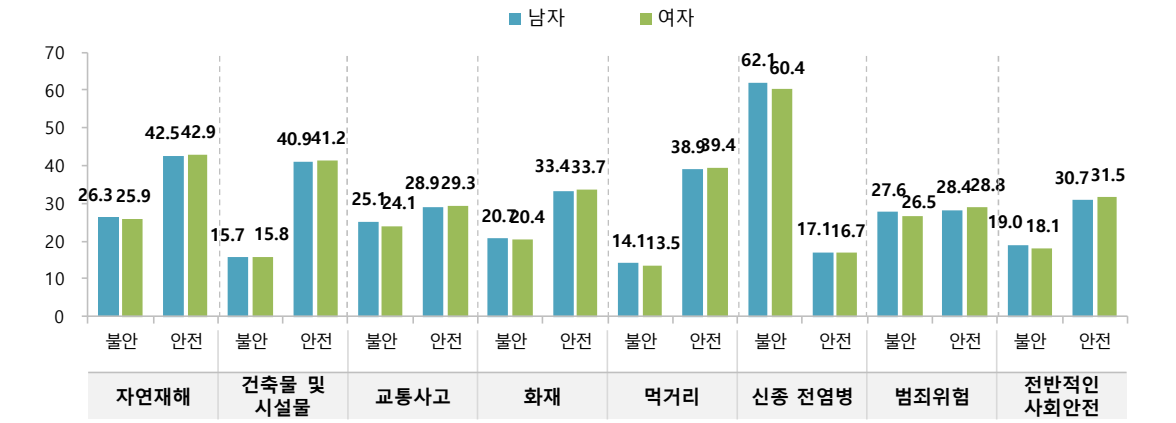
성별로 살펴보면, 신종 전염병 분야에 있어서 남녀간 응답 차이는 1.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그 폭은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되며,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도 다른 분야에 비해 약 1.0% 내외의 응답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성별간 인식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신종 전염병을 가장 불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특히 고령자의 불안감은 타 연령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젊은층 및 중년층(10~50대)은 범죄위험에 대해 매우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20~30대는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충남 도민들은 성별 및 연령층에 따라 불안감을 느끼는 유형에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고령층은 특히 신종 전염병, 청장년층은 범죄 및 교통사고에 상대적으로 불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 성별 안전 환경 인식 수준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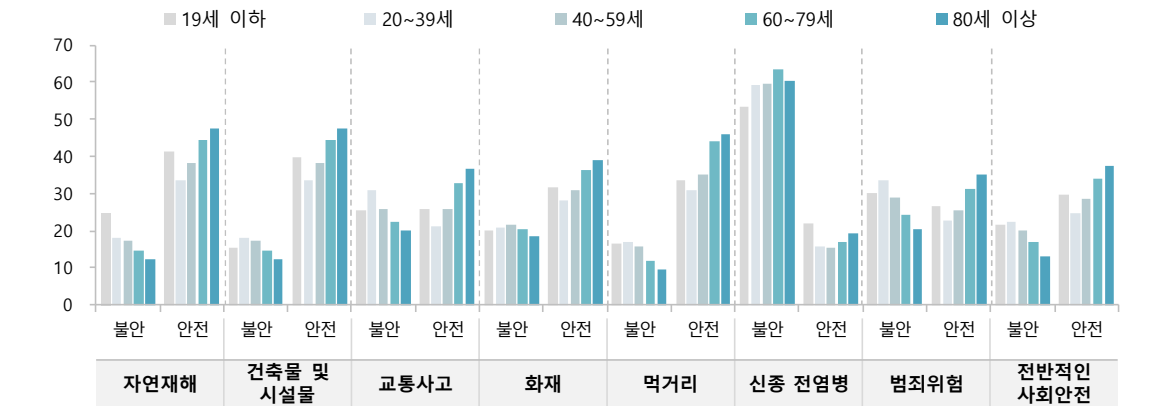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그림 2-8> 연령별 안전 환경 인식 수준 분석 결과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3) 분야별 안전체감도 상세분석

충청남도 사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및 체감도를 보다 상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응용된 IPA 기법을 활용하였다. 원래 IPA 분석은 응답자가 지각하는 특정 요소에 대해 만족도와 중요도를 X-Y좌표에 표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개선 및 대응이 시급한 분야와 불필요하게 과잉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를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분석 방법이며, 보다 효율적인 정책 방향 및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IPA 분석기법을 응용하여 충남 사회조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대입,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전도(만족도)와 중요도를 추정하여 IPA분석에 응용하였다. 중요도 추정에는 각 분야별 안전도와 전반적인 안전도간의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과 2020년의 자료를 활용하여 두 시점간 분야별 중요도 및 안전도(만족도)의 양상을 비교해보기 위해 각각 상관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1, 그림 2-9 참조).

<표 2-1> 분야별 안전인식 수준 중요도 추정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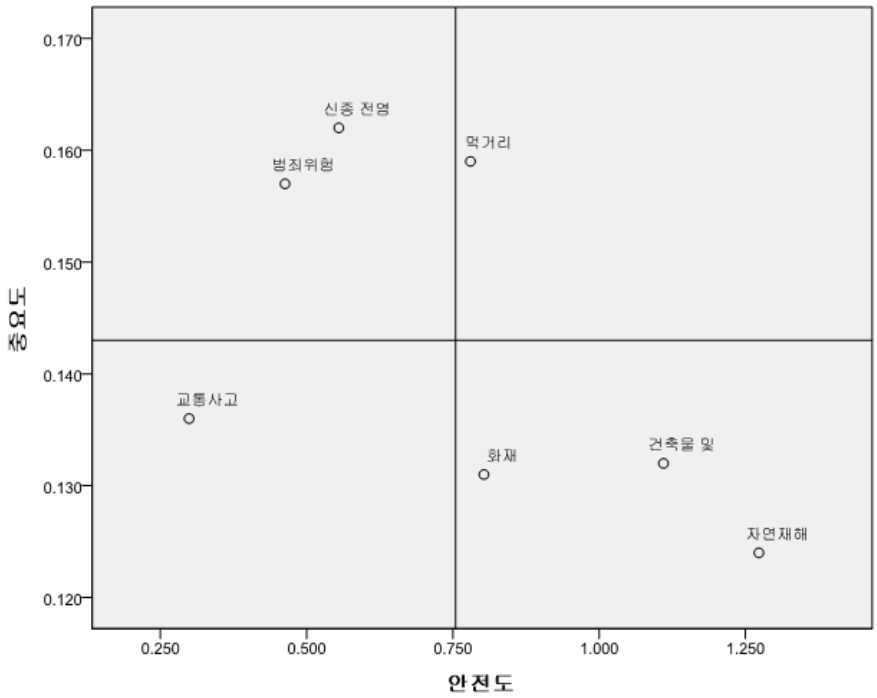
요인		T	Q1	Q2	Q3	Q4	Q5	Q6	Q7
T	상관계수	1							
전반적 사회안전	유의확률								
Q1	상관계수	0.480	1						
자연재해	유의확률	0.000							
Q2	상관계수	0.510	0.727	1					
건축물 및 시설물	유의확률	0.000	0.000						
Q3	상관계수	0.525	0.417	0.454	1				
교통사고	유의확률	0.000	0.000	0.000					
Q4	상관계수	0.505	0.522	0.550	0.537	1			
화재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Q5	상관계수	0.613	0.412	0.463	0.395	0.437	1		
먹거리(식품안전)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Q6	상관계수	0.626	0.384	0.413	0.429	0.408	0.612	1	
신종 전염병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Q7	상관계수	0.606	0.377	0.423	0.545	0.478	0.513	0.509	1
범죄위험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모든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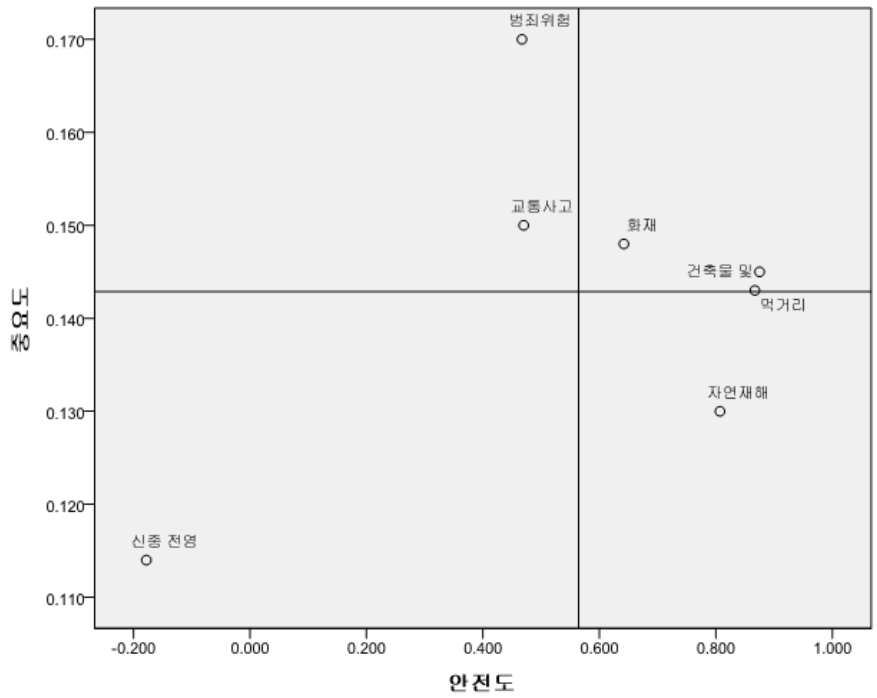
분석 결과, 2016년에는 자연재해, 건축물 및 시설물, 화재, 먹거리 분야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분야 중 신종 전염병 및 범죄위험 분야는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던 반면, 교통사고는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않았던 분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교통사고 분야는 안전도도 상당히 낮으면서 중요시되지 않았던 분야로 주된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9> IPA 분석결과 비교(2016년 및 2020년)

[2016년]



[2020년]



자료: 충청남도,「충청남도 사회조사」, (2016, 2020)

그리고, 범죄위험과 신종 전염병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시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도는 낮기 때문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 및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분석 결과, 안전도가 높은 분야는 2016년과 동일하나 중요시되는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다만,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 분야가 5년 전에 비해 안전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낮게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 전염병의 경우에는 안전도가 대폭 하락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못했던 분야로 나타나 무엇보다 가장 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교통사고와 범죄위험 분야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선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4) 시사점

도민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는 불안감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야별로 볼 때 신종 전염병이나 범죄위험, 교통사고 등은 불안감이 극도로 높게 나타났거나 불안감과 안전함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종 전염병은 코로나19가 올해 초부터 일 년 내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범죄위험 및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도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분야로 남아있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IPA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 분야는 5년 전에 비해 안전도가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도 자체는 낮게 나타났으며, 중요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정책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4. 도민의 일상 속 생활안전 의식 수준

1) 분석의 틀

본 장에서는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 실천 정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평소 안전의식 및 대처 수준과 소화기 사용법 등 생활안전 관련 의식 수준에 대한 분석 결과 등을 다루었다.

먼저 일상생활 속에서의 안전 실천 정도에 대한 분석은 제3장에서도 다루었던 응용된 IPA 분석기법을 활용하였으며, 그 외 생활안전 관련 의식 수준 사항은 빈도분석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특히, 응용된 IPA 분석은 일상생활 속 개별요소와 전반적인 안전의식 수준 요인을 활용하였으며, 중요도 및 실천력을 통한 정책적 주안점 및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2) 도민 안전의식과 실천과의 관계 분석

일반 도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항목은 평소 일상생활 속 실천과 관련된 6개의 개별요소와 전반적 안전의식 수준에 관한 사항이며, 중요도와 실천력으로 구분하여 응용된 IPA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반적 안전의식 수준 항목과 6개의 실천력 관련 개별요소를 활용하여 상관관계를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요도를 추정하였다(표 2-2 참조).

<표 2-2> 안전의식 수준 중요도 추정을 위한 상관관계 분석(2020년)

요인		T	Q1	Q2	Q3	Q4	Q5	Q6
T	상관계수	1						
	유의확률							
Q1	상관계수	0.309	1					
비누로 손씻기	유의확률	0.000						
Q2	상관계수	0.056	0.164	1				
가스중간밸브 잠그기	유의확률	0.000	0.000					
Q3	상관계수	0.182	0.469	0.230	1			
전기플러그 빼기	유의확률	0.000	0.000	0.000				
Q4	상관계수	0.220	0.602	0.196	0.596	1		
안전벨트 착용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Q5	상관계수	0.196	0.493	0.146	0.477	0.562	1	
소화기 위치 파악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Q6	상관계수	0.211	0.489	0.148	0.500	0.556	0.769	1
비상용품 챙기기	유의확률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주) 모든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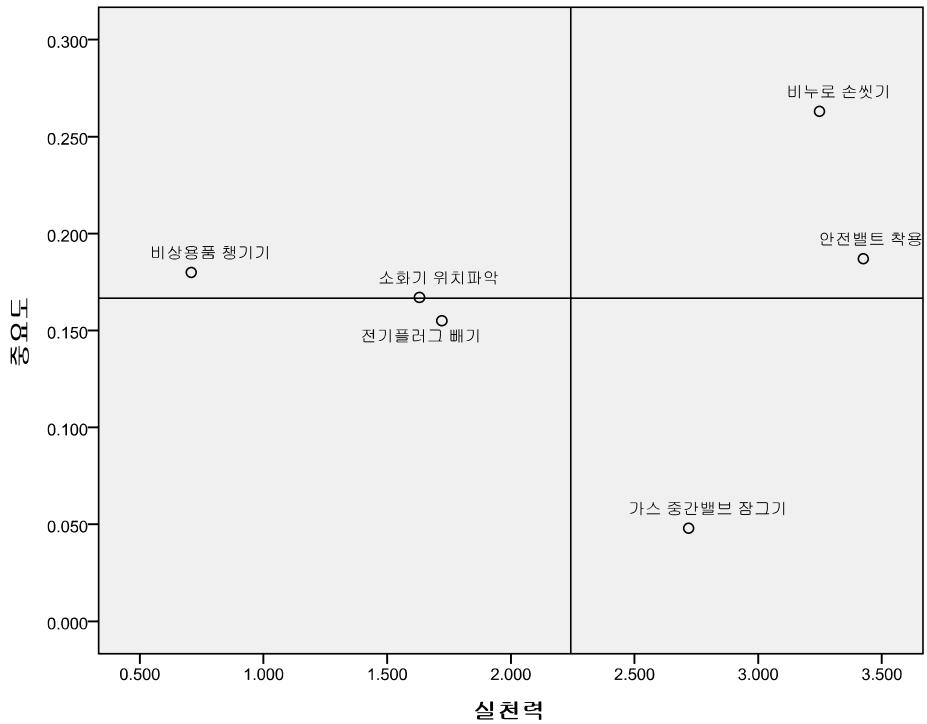
분석 결과, 중요도의 차이는 다소 있으나 비누로 손 씻기, 안전벨트 착용, 가스 중간밸브 잠그기는 충남 도민들이 비교적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나머지 항목들은 비교적 실천이 잘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중에서도 비상용품 챙기기는 비교적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평소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에 대비한 소화기 위치 파악이나 전기플러그 빼기는 중요시하는 정도가 다소 낮으면서 실천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항목으로 나타났다.

즉, 재난에 대비하여 평소 비상용품(비상식량, 전등, 구급상자 등)을 챙겨놓는 것에 대해 중요시하면서도 실제 챙겨둔 사람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으며, 필수품목을 중심으로 비상용품 구비를 위한 교육·홍보가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

또한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소화기 위치 파악해두기와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 빼기도 지속적 홍보 및 캠페인과 함께 어릴 때부터의 조기교육을 통해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0> 일상생활 속 안전의식 수준 IPA 분석결과(2020년)



자료: 충청남도,「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3) 기타 안전의식 수준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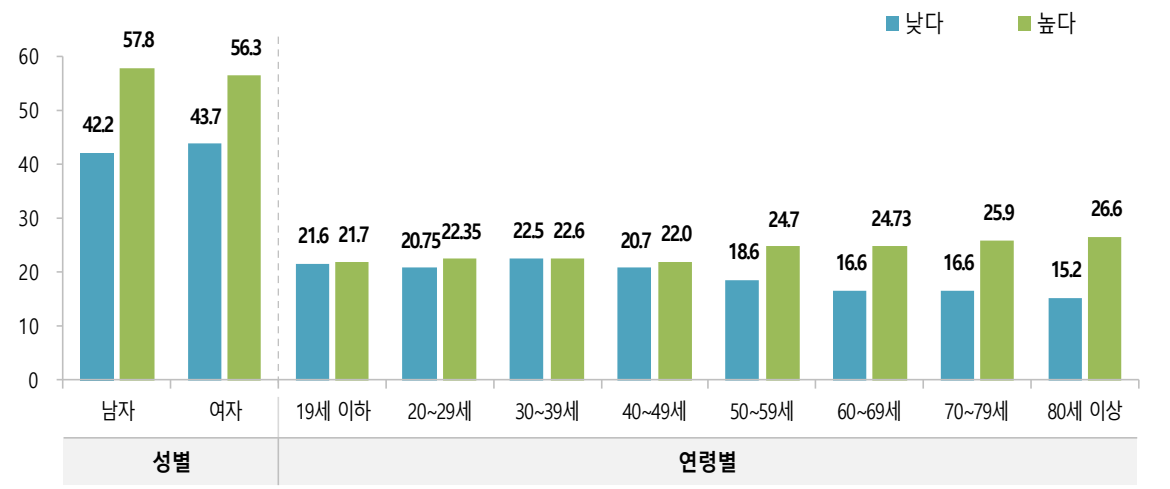
전술에서 평소의 지역 안전의식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개별요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앞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의식 수준은 근소하게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변 사람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사람은 24.1%로 나타나 낮다고 응답한 사람(21.0%)에 비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종 재난이나 사고 등 위험 상황에 대한 충청남도의 대처 능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자와 여자의 성별간에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로는 고령자일수록 대처 능력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젊은 계층일수록 낮다고 응답하여 세대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그림 2-11 참조).

특히 충청남도의 대처 능력에 대하여 천안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의 경우에는 낮다는 응답이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금산군은 그 격차가 10.3%에 이를 정도로 타 지역에 비해 충청남도의 대처 능력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1> 충청남도의 위험(각종 재난, 사고 등) 대처 능력 분석 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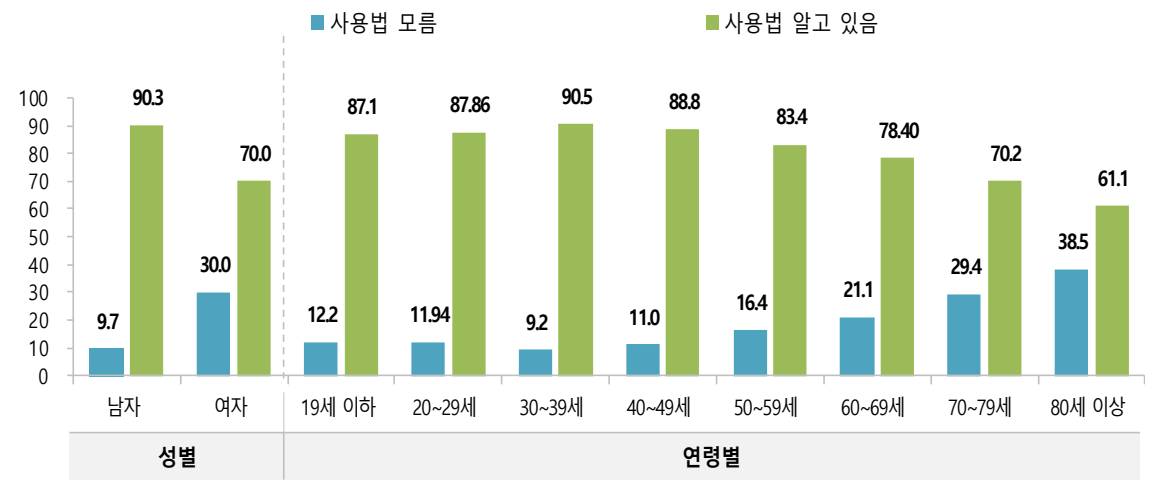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한편, 도민들의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79.3%의 도민들이 사용법을 조금 알고 있거나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도민들이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남자에 비해 여자의 경우 사용법을 모르는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고령자일수록 사용법을 모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대부터 사용법을 모르는 비율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청소년이나 청년 계층 이외에도 중년층 이상의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및 교육·홍보 기회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시군별로 살펴보면, 서산시(88.2%)나 계룡시(87.4%), 보령시(83.7%) 등 다수의 시군에서 사용법에 대한 인지율이 매우 높은 반면, 부여군(67.7%)이나 태안군(68.5%), 서천군(72.5%), 논산시(73.6%) 등과 같이 다소 미진한 지역도 존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군 지역의 인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간 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재 예방 및 소화기 사용법 등 화재 안전과 관련된 교육,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화재 안전 사각지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2-12> 소화기 사용법 인지여부 분석 결과

(단위 : %)



자료: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회조사」, (2020)

4) 시사점

도민들의 평소 일상생활 속 안전 실천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실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가 있는 반면,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평소 재난에 대비한 비상용품 챙겨두기는 그 자체에 대해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음에도 실제 비상용품을 챙겨두는 도민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소 소화기 위치 파악해두기나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 빼기 또한 실천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요소와 같이 평소 그 중요성에 비해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행동들을 찾아내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어릴 때부터의 조기교육을 통해 습관화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 학습을 통한 교육에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대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충남 사회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안전과 관련된 도민들의 응답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속에서 도민들의 안전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충남은 해마다 일정하지는 않지만 태풍, 집중호우, 토사 붕괴 및 대설·한파 등 자연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였고, 대규모의 사회재난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적 특성상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나 가축 질병 등 재난의 위험성은 늘 상존해왔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교통사고, 화재, 추락, 해양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도민을 향한 정책을 다루는 행정 및 정책기관에서 도민의 생각과 동떨어진 정책을 개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한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재난·안전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본 조사·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분야별 안전 인식 수준에 대하여 도민들은 전반적으로

불안감보다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불안감이 점차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IPA 분석을 통해 5년 전과 현재를 살펴본 결과, 교통사고 및 범죄위험 분야의 안전도는 다소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안전도 자체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올해 초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신종 전염병 분야는 상대적으로 중요시되지 못했던 분야이면서 안전도가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생활 속 안전의 실천 정도에 대해서는 IPA 분석을 통해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실천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요인들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들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의식 개선 프로그램 및 교육·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특히 생애주기를 고려한 학습 및 교육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방법을 강구하여 재난 및 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행정이 주체가 되어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사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일반 도민들이 느끼지 못하거나 접하지 못하면 개선의 노력과 의지가 상당히 빛이 바래게 될 것이다. 행정은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남의 일처럼 치부해버리는 오류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위험이나 교통사고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각종 노력에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하거나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애주기 학습을 고려하여 어릴 때부터 안전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가급적 유치원 혹은 초등학생 때부터 안전과 위험을 구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일상화되어야 하며, 특히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안전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매년 실시되는 충남 사회조사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 걸친 설문을 바탕으로 도민들의 생각과 느끼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10여 년 가까운 조사를 통해 쌓인 데이터는 도민들의 현 수준과 상태를 유추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지속적으로 쌓이고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각적 분석이 이루어질 때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남 사회조사가 일관성을 유지한 채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충청남도(2016~2020). 충남 사회조사
행정안전부(2019). 2018 재해연보
행정안전부(2020). 2019 재난연감
충청남도. 2020년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

여가·문화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3. 충남의 여가문화생활 행태분석과 정책방향

요 약

이 인 배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iblee@cni.re.kr

- 행복한 우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문화의 활성화와 정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여가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충남 사회조사의 여가문화에 대한 분석 결과, 여가문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 정책 필요함.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 여가시간의 연령계층별 이용정책과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의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충남도민의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시군간 격차에 대한 해소 방안 마련, 도민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에 대한 내륙권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도민 문화예술 관람/참여의 시군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 도민의 스포츠 관람/참여의 지역별 만족도 제고 정책 마련과 추진, 도민 국내 및 해외 관광/여행활동의 만족도 제고 방안과 활성화 정책 추진, 향후 1년 내 여가문화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연령 및 소득별, 지역별 정책공급 강화, 충남도민들의 권역별 및 시군별 축제참여 경험 확대와 활성화 필요,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불만족 요인에 대한 지역별 개선방안 모색 등을 정책 제언으로 도출함
- 충남 여가문화관광 정책의 추진과제로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충남 여가문화 육성정책 추진,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는 여가문화 지원정책 강화, 충남 지역별 균형 있는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산업 육성, 도민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통합화 및 연계 정책의 추진, 충남 지역축제의 도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등을 제시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감을 높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가문화활동을 통한 행복지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행복과 여가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현대는 경제와 사회적 지표 이외에도 여가문화에 대한 지표를 분석하는 추세이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도 도민들의 여가문화 생활에 대한 향유 수준의 실태분석을 통한 여가문화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정책 과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연구 목적

여가문화 활동은 충남도민들의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 등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과 활동 성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충남도민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여가문화 및 관광활동의 참여여부와 만족도, 지역축제 참여 만족도 등의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여 충남도의 문화와 관광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내용

▶ 여가문화의 특성과 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의 여가문화 활동과 트렌드의 실태와 선진국 및 국내 타 지자체의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

▶ 충남의 여가문화 관광의 행태 및 특성 분석과 시사점

- 충남 도민의 문화예술, 스포츠, 국내외 관광/여행, 취미활동 등 전반적 여가문화 활동과 지역축제 참여 성향과 특성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충남의 여가문화 관광 정책의 과제

- 여가문화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충남의 문화예술, 관광, 지역축제 등 문화관광 정책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안

4) 연구방법

기존의 여가문화 관련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등 지자체의 통계와 실태조사 분석 보고서, 정책보고서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2020 충남 사회조사 조사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과 자문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에 의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여가문화 환경의 동향 분석과 특성

1) 여가문화와 행복한 삶[2)]

▶ 여가문화와 행복으로의 영향

- 개인 행복의 약 50%는 유전에 의해 결정되며, 10%는 환경에 의해, 그리고 40%는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여가 영역은 의식적인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40% 내에 속한다.
- 개인 특성은 부분적으로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과 부합되는 여가 행동을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
- 또한, 개인 특성은 개인의 여가시간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영향을 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개인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결정한다.
- 개인 특성에 유전적인 부분이 미치는 영향이 강할지라도, 개인의 욕구와 부합되는 여가활동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기회는 제공될 수 있다.

▶ 행복에 영향을 주는 여가문화적 요소

- 행복의 구성요소인 즐거움, 만족감, 의미, 균형 개념은 여가의 본질적인 요소인 기쁨, 몰입, 삶의 의미, 일-여가 균형과 연계된다.
- 일상적 여가는 기쁨이나 즐거움(pleasure)과 중요한 관련이 있다. 휴식이나 감각적 자극같은 일상적 여가에서는 감각을 통해 즐거움을 얻고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Tonning, 2009)
- 행복의 요소인 긍정적 감정과 적극적인 참여 활동, 의미의 추구는 여러 가지 여가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다(이영길&전상희, 2006).

2) 윤소영(2019),「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요약 정리

- 여가는 자아의 방향성과 자아 표현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노력과 집중 그리고 꾸준함을 요하는 진지한 여가는 생산성의 질을 성장시킴으로써 개인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통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 그리고, 여가는 공동체를 통해 사회성을 제공하거나 뚜렷한 가치와 신념으로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자아를 발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현대사회에서는 일 외에 여가시간에 대한 중요성과 여가 참여의 순기능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와 여가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한 사회현상으로 해석된다.

▶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근로시간의 단축과 일과 여가의 균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된다. 일 이외의 시간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지속가능한 시간적 여건이 주어지게 된다.
- 여가활동을 통해 얻는 만족은 높은 행복지수로 이어져 건강한 행복사회 구축에 밑거름이 되며, 일과 여가의 조화를 통해 일에서 얻는 효율성, 생산성과 여가를 통해 얻는 충족감과 만족감은 국민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킨다.
- 여가시간을 절대적 여가시간과 상대적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행복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 여가시간이 행복 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 여가시간의 경우 여가 만족도를 매개 할 경우에만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 여가시간은 여가 만족도와 상관없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가 지출과 행복 수준에서 소득수준별 여가시간 및 지출과 행복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여가 지출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은 감소함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소득이 증가할수록 여가 생활 만족도와 삶의 행복감은 증가함을 제시한다. 이들은 여가만족-행복감에 대한 여가시간과 비용 간 조절 효과 검증을 통해서, 여가 자체의 만족감이 삶의 전반적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이지, 여가비용이나 시간이 만족감 자체를 크게 유의미하게 조절하지는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여가문화의 유형과 행복 수준

- 여가활동이 행복도에 미치는 영향을 여가 만족도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참여, 취미, 오락 활동과 같이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를 즐기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여가 만족도와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교 활동, 자원봉사, 친교 모임 등의 사회 및 기타 활동 참여자 집단의 경우 여가 만족도와는 별개로 행복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 유형과 여가 만족도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실외 레크리에이션 여가'(산책, 등산, 여행 등), '문화 여가'(문화·예술 관람, 박물관 및 유적지 방문, 악기 연주·노래 등), '사회적 여가'(종교 및 사회적 모임 참여, 자원봉사 활동 등)가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 여가행복지수 연령별·지역 규모별 지수 비교

- 2018년 기준 한국인의 여가행복지수를 산출한 결과 7점 만점에 4.24점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지역 규모별로 여가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연령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20대로 4.35점으로 나타났으며,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15~19세의 점수가 4.0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표 3-1> 여가행복지수 연령별·지역 규모별 비교

(단위: 점/7점 기준)

구분		개인여건 지수	자원 지수	참여 지수	태도 지수	만족도 지수	여가행복 지수	평균차이 검증	Levene의 등분산 검정 F
15~19세	대도시	3.86	4.45	3.75	5.25	3.77	4.22	0.000**	15840.179
	중소도시	3.65	4.20	3.90	5.21	3.40	4.07		
	읍면지역	3.63	4.50	3.84	5.28	3.59	4.17		
20대	대도시	4.19	4.44	3.73	5.31	4.10	4.35	0.000**	14245.610
	중소도시	4.23	4.24	3.91	5.40	3.91	4.34		
	읍면지역	4.11	4.38	3.84	5.23	3.67	4.25		
30대	대도시	3.93	4.47	3.59	5.30	3.84	4.23	0.000**	8299.140
	중소도시	3.83	4.33	3.76	5.33	3.68	4.18		
	읍면지역	3.89	4.67	3.66	5.24	3.82	4.26		
40대	대도시	4.01	4.55	3.46	5.20	3.95	4.24	0.000**	16765.835
	중소도시	3.84	4.44	3.64	5.26	3.65	4.16		
	읍면지역	3.91	4.53	3.53	5.20	3.77	4.19		
50대	대도시	4.21	4.52	3.34	5.17	3.97	4.24	0.000**	8459.206
	중소도시	4.12	4.37	3.50	5.21	3.79	4.20		
	읍면지역	4.00	4.55	3.53	5.09	3.73	4.18		
60대	대도시	4.54	4.50	3.34	5.09	4.07	4.31	0.000**	15388.059
	중소도시	4.30	4.30	3.44	5.10	3.93	4.21		
	읍면지역	4.38	4.40	3.52	4.97	3.88	4.23		
70대 이상	대도시	4.91	4.43	3.27	4.97	4.10	4.34	0.000**	20028.924
	중소도시	4.75	4.19	3.36	5.08	3.82	4.24		
	읍면지역	4.65	4.19	3.45	4.83	3.93	4.21		

*p<0.05, **p<0.01

자료: 윤소영,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2) 여가문화 환경분석과 정책동향[3)]

▶ 현대사회와 여가문화의 중요성 증가

- 더 나은 삶을 위한 행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기반, 일 중심의 가치관에서 여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치관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경험한 국가에서는 인간 수명의 연장에 의한 40세이후(Third Age)의 형태로 전개와 친환경적 생활 선호, 레저·여행·취미·동호회 등 다양한 형태의 여가활동에 대한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선진국에서는 여가를 통한 취미활동의 전문화로 자아실현의 장 마련, 창의력 발현의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당당한 여가 활동 보장 및 생산적 여가 생활화 정착을 통해 국민의 여가 보유 능력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 정책적으로도 주 5일제 근무 및 수업제의 도입, 고령사회 및 백세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여가 수요의 증가에 대해, 정부 여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이 요구된다.
- 최근 여가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확산되면서 국민 여가생활의 질적 향상과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행정작용과 법·제도의 역할이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 장시간 근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개인 생활 보다는 직장의 일이 우선이라고 여기던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으며,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가치관이 보다 강화되면서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 고령화시대 노년기가 연장되면서 노후의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여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에서 일-삶의 균형(Work and life balance)은 전 생애로 확대되어,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과 삶의 영역이 동등하게 중요시되어야 한다.
- 즉, 연령 차별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야 했다면, 연령 통합적 사회에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의 생활이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시행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가능해야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 요약 정리

▶ 여가문화 정책의 환경

-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여가문화 정책이 필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맞벌이 가구, 1인 가구의 증가로 해당 가구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여가정책과 생활권 여가문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라 3만 불 시대와 저성장 시대의 혼란에 대한 대응과 여가를 통한 내수 중심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노동시간의 유연화와 일자리 나눔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정보화에 따른 여가문화 욕구의 확산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습득 및 여가활동이 증가하고, 여가 양식의 변화를 가져올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수요자 요구에 맞는 여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기후 및 환경 변화에 따라, 친환경 여가에 대한 관심과 환경과 여가의 관련성이 증가하고 있다.

▶ 여가문화 시간과 삶의 변화

-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후 바로 실시한 기존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 자기계발 투자 증가, 가족 간의 대화 기회의 증가, 업무 능률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주 40시간 근무제는 일-가정-여가에 전반적으로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부정적인 변화로는 여가생활이 늘어남에 따른 여가 경비의 증가, 업무량의 증가 등이 나타났다.

<표 3-2>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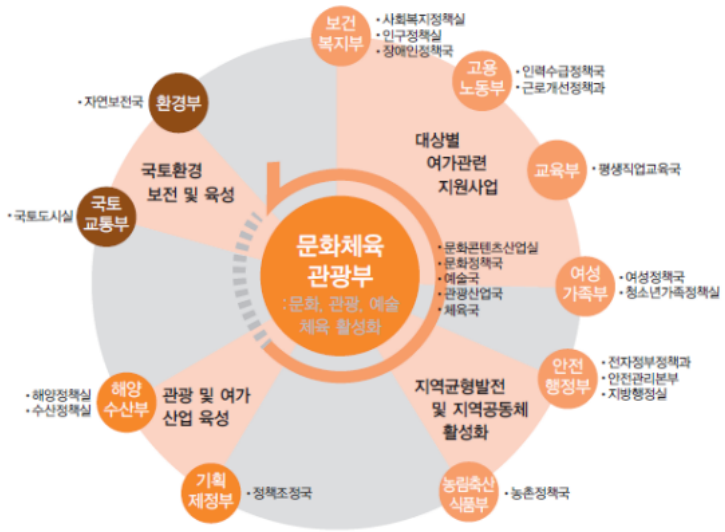
	긍정적 변화	평균	부정적 변화	평균
회사생활	업무능률의 증가	3.67	업무량의 증가	3.39
	월요일의 근무효율성 증가	3.26		
	여가생활만족도의 증가	3.94	한달 평균 여가경비의 증가	3.93
여가생활	희망여가활동참여의 증가	3.38		
	규모있는 여가생활 경향성 증가	3.28		
	자기계발 투자시간의 증가	3.72		
가족생활	대화기회의 증가	3.77	특별한 사항 없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의 증가	3.74		
	부모님에 대한 관심증가	3.67		
	건강관심 정도의 증가	3.60		
	가사참여시간의 증가	3.52		
	가족과의 다툼정도	2.7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6)

▶ 중앙 부처별 여가문화정책 업무

- 여가 관련 업무를 크게 5개의 키워드로 나눠보면 문화·예술·관광·체육 활성화, 관광 및 여가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대상별 여가 관련 지원사업, 국토환경 보전 및 육성이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관광·체육 활성화 업무를 중심으로 각 부처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 중에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IT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중심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며 여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 해양수산부는 관광 및 여가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양관광·레저 활성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및 테마공원 조성 등, 안전행정부는 정보화마을 조성 및 희망마을 만들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축제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여성가족부는 대상별 여가 관련 지원사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여가 관련 활동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가족/아동/청소년/여성/노인 여가 관련 사업은 부처별로 복지, 고용, 교육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환경 보전 및 육성을 중심으로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 조성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3-1> 여가·문화 관련 정부 부처의 업무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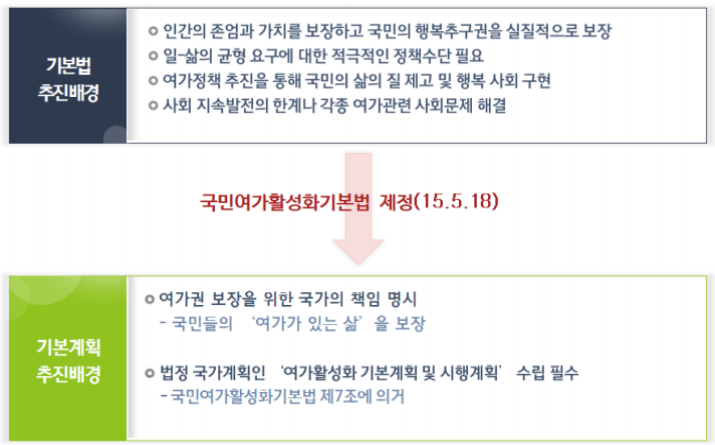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6)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 국민의 삶의 향유에 초점을 맞춘 법률, 제도,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포괄적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문화에 대한 기본적 권리, 여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에 대한 관심 속에서 「문화기본법」과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문화기본법」(2013.12.30. 제정, 2014.3.31. 시행)의 제9조 문화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조항에 '7. 여가문화의 활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제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여가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제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지닌다.
- 새로 제정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지향하는 여가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여가가 있는 삶 보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이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제정 목적의 정책적 구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목표를 분야별로 구체화하면, ① 국민의 여가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② 여가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③ 여가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실현, ④ 여가산업 및 여가전문 인력을 활용한 경제 발전, ⑤ 사회적 약자 지원의 활성화이다.

<그림 3-2>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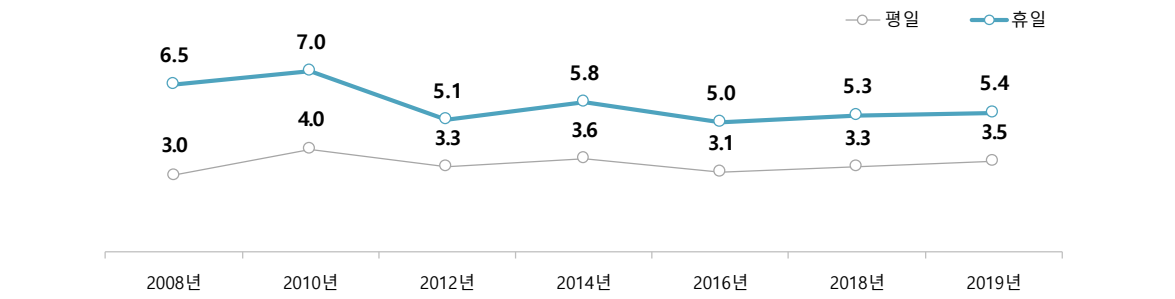
3) 국민여가[4]와 문화향유[5], 여행조사[6] 분석

▶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

- 2019년 만 15세 이상 우리나라 국민들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평일 3.5시간, 휴일 5.4시간으로 2018년 대비 각각 0.2시간, 0.1시간 증가하였다.
- 평일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4.3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 3.5시간 대비 0.8시간 정도 더 활용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휴일 희망하는 여가시간은 평균 6.2시간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는 여가시간 5.4시간보다 0.8시간 정도 더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림 3-3> 국민들의 하루평균 여가시간 비교(2008년~2019년)

(단위: 시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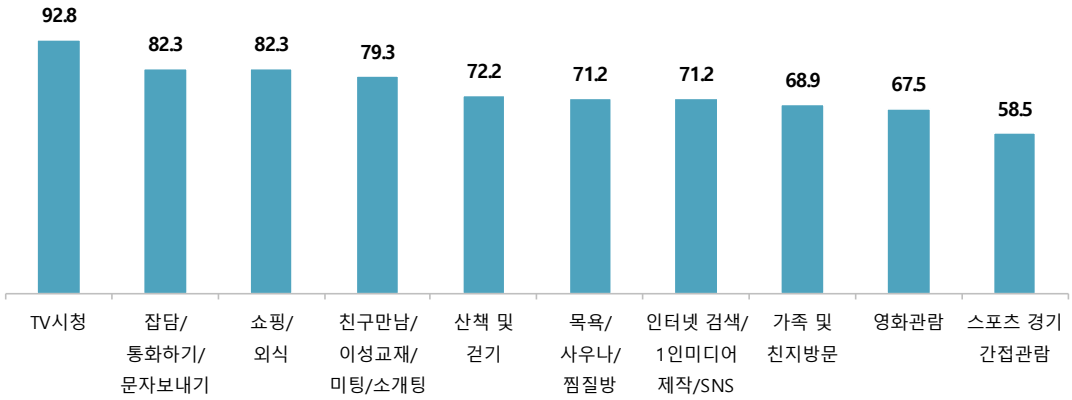
▶ 국민들이 1년간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 2019년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9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잡담/통화하기'(82.3%), '쇼핑/외식'(82.3%),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79.3%)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 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10순위를 살펴보면, 'TV시청', '목욕/사우나/찜질방', '산책 및 걷기' 등과 같은 휴식활동과 '잡담/통화하기/문자보내기', '친구만남/이성교제/미팅/소개팅', '가족 및 친지방문' 등과 같은 사회 및 기타활동, '쇼핑/외식', '인터넷 검색/채팅/1인미디어제작/SNS' 등과 같은 취미 오락 활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에서 요약
5) 문화체육관광부(2018),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에서 요약
6)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행조사」에서 요약

<그림 3-4> 국민들이 2019년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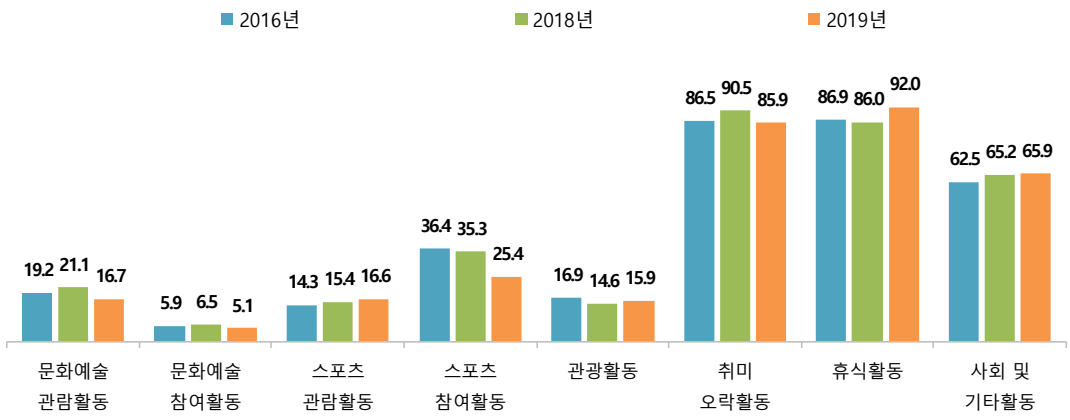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2018)

▶ 국민 여가활동 유형별 참여실태의 변화

- 가장 많이 참여한 여가활동에서의 변화 추이를 봤을 때, 2018년 대비 '문화예술 관람활동'(16.7%), '문화예술 참여활동'(5.1%), '스포츠 참여활동'(25.4%), '취미오락활동'(85.9%)은 감소한 반면, '스포츠 관람활동'(16.6%), '관광활동'(15.9%), '휴식활동'(92.0%), '사회 및 기타활동'(65.9%)이 증가하였다. 특히 휴식활동의 경우, 활동 유형 중 응답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3-5> 국민들이 2019년 1년 동안 한번 이상 참여한 여가활동 비교(2016년, 2018년, 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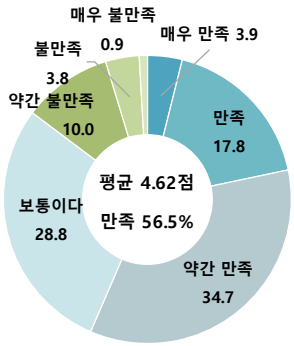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

-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56.5%가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3-6>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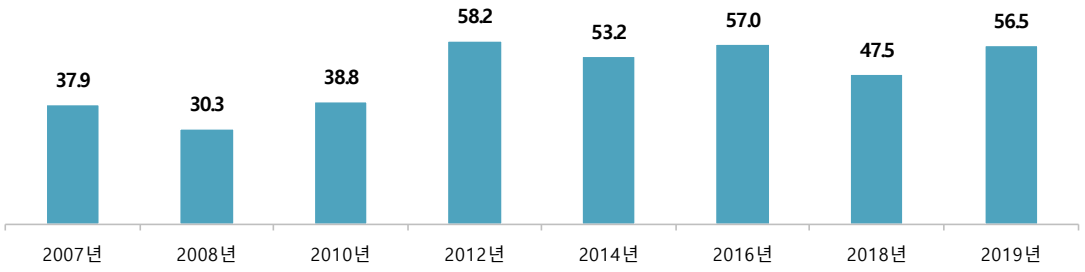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매년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9년 9.0%가 상승하여 전년도의 하락폭을 상당 부분 회복하였다.

<그림 3-7> 국민 여가생활 만족도 추이

(단위: %)



주 : 2007년~2012년까지는 5점 척도의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이며, 2014년~2019년은 7점 척도의 '다소 만족한다+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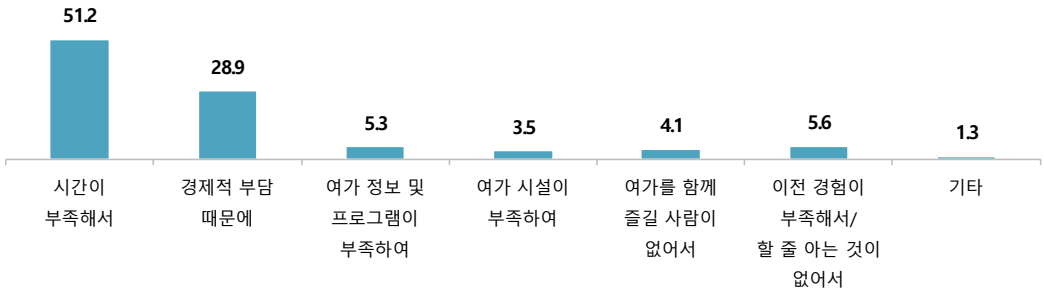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 국민 여가생활 불만족 이유 - 여가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 국민들은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경우, 주로 '시간이 부족하여'(51.2%), '경제적 부담 때문에'(28.9%) 등의 이유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국민이 자신의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2019)

▶ 국민 문화예술행사 참여경험

- 2018년 문화예술행사를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미술전시회'에 참여한 경우가 29.1%로 가장 많았고, '문학행사(25.4%)', '서양음악(13.5%)', '전통예술(12.5%)' 등의 순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국민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

(단위: %)

		참여 안함	참여 함	문화 행사	미술 전시회	서양 음악	전통 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 음악
전체		91.0	9.0	25.4	29.1	13.5	12.5	7.8	5.4	6.2	12.2	11.4
성별	남성	91.8	8.2	25.8	35.6	11.9	9.0	7.4	5.0	2.6	15.4	14.0
	여성	90.3	9.7	25.1	23.6	14.8	15.5	8.2	5.8	9.2	9.6	9.2
연령별	10대	81.9	18.1	49.5	21.1	18.4	0.5	19.0	4.1	1.9	5.6	15.4
	20대	85.9	14.1	9.3	28.9	15.8	2.6	10.0	5.7	5.9	18.1	23.2
	30대	91.4	8.6	18.7	31.6	13.4	4.2	9.4	10.8	0.1	23.5	8.6
	40대	92.3	7.7	29.5	34.8	11.8	13.4	5.4	10.2	2.6	12.4	1.5
	50대	93.4	6.6	34.5	37.2	13.8	17.8	0.7	0.2	5.7	4.9	6.7
	60대	92.5	7.5	26.7	18.7	10.4	33.7	4.0	1.0	24.4	5.6	8.9
	70세 이상	95.0	5.0	23.7	24.5	3.0	47.0	1.3	-	10.3	1.5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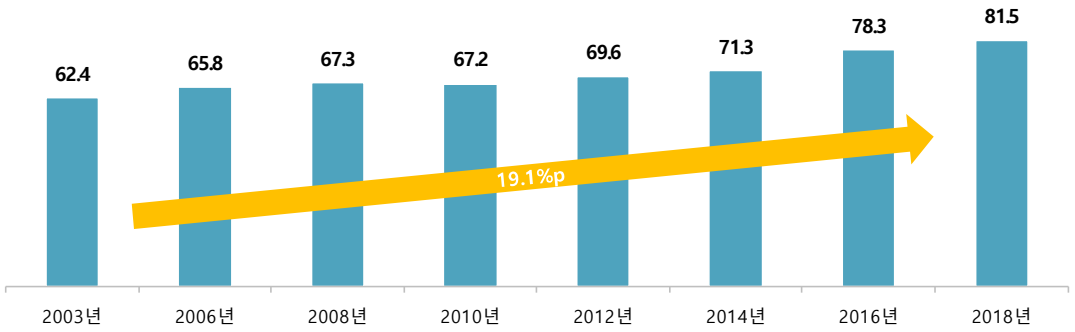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2018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2016년 78.3%보다 3.2%p 증가한 81.5%로 나타났다. 2003년 62.4% 대비 19.1%p 증가하였으며,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그림 3-9>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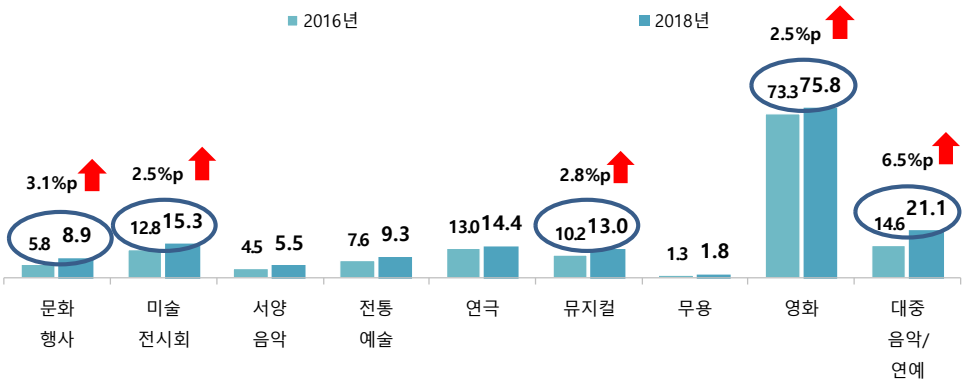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민 문화예술 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

- 2016년 대비 2018년 가장 증가한 분야는 '대중음악/연예'로 6.5%p 상승했으며, '문학행사' 3.1%p, '뮤지컬' 2.8%p, '영화'와 '미술전시회'가 각 2.5%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국민 문화예술행사 행사별 관람률 변화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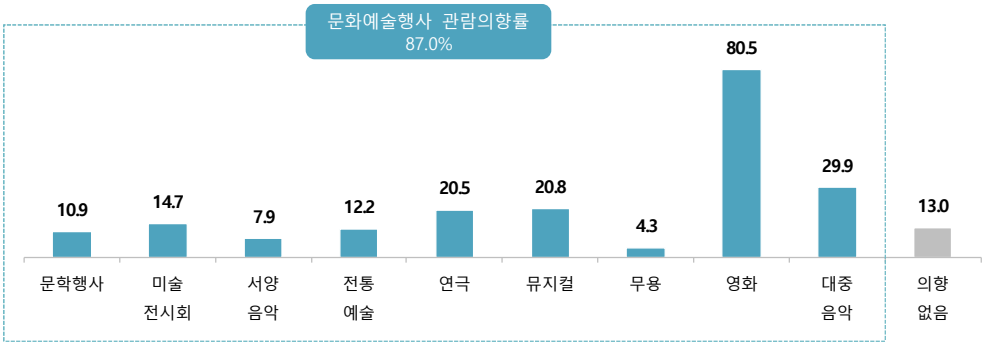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 전체 응답자 중 87.0%가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행사별로는 '영화' 관람 의향률이 80.5%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29.9%)', '뮤지컬(20.8%)', '연극(20.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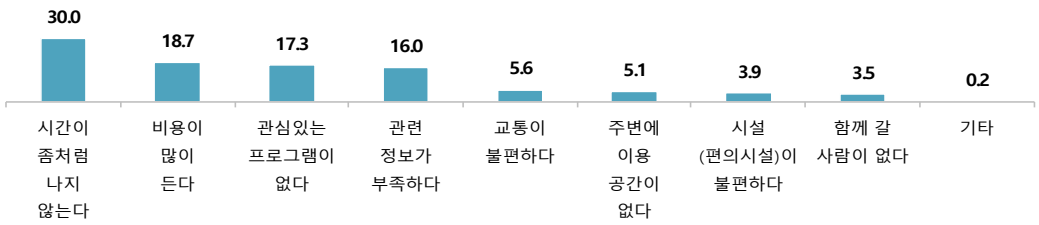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민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어려운 점

- 문화행사 참여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3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비용이 많이 든다(18.7%)',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17.3%)',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1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응답자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림 3-12> 국민 문화예술행사 참여시 어려운 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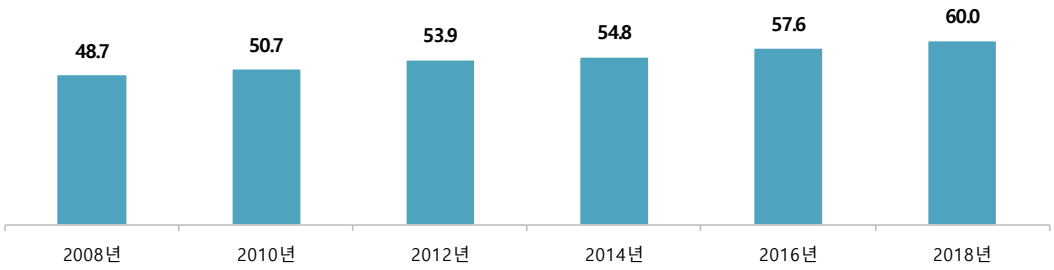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민들의 1년간 축제경험 실태

- 지난 1년간 축제에 참여하거나 경험한 비율은 60.0%로 2016년에 비해 2.4%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경험이 있는 축제의 주제는 '지역의 특산물과 특산품 체험(37.2%)'이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과의 화합, 어울림 체험(2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국민 축제의 경험실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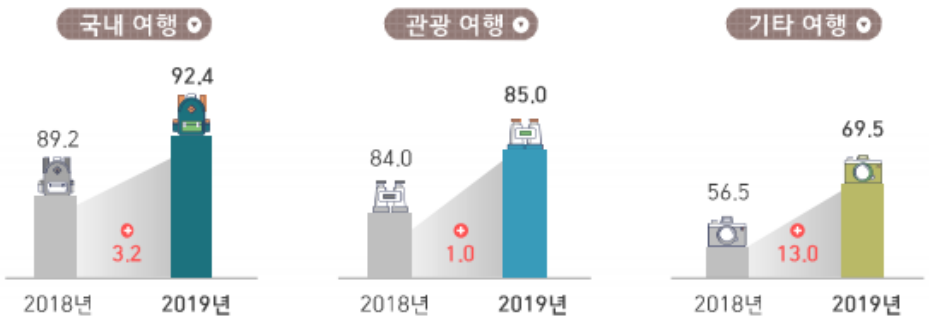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2018)

▶ 국내여행 경험률

- 2019년 국내여행 경험률은 92.4%로 나타났으며, 관광여행은 85.0%, 기타여행은 69.5%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국내여행 경험률은 3.2%p, 관광여행은 1.0%p, 기타여행은 13.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4> 여행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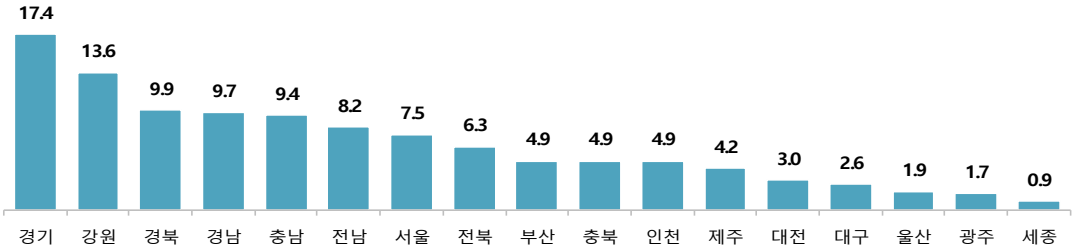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국내여행 방문지

- 2019년 국내여행 방문지는 '경기'(17.4%), '강원'(13.6%), '경북'(9.9%), '경남'(9.7%), '충남'(9.4%), '전남'(9.4%), '서울'(8.2%), '전북'(7.5%), '부산'(6.3%), '충북'(4.9%), '인천'(4.9%), '제주'(4.2%), '대전'(3.0%), '대구'(2.6%), '울산'(1.9%), '광주'(1.7%), '세종'(0.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국내여행 방문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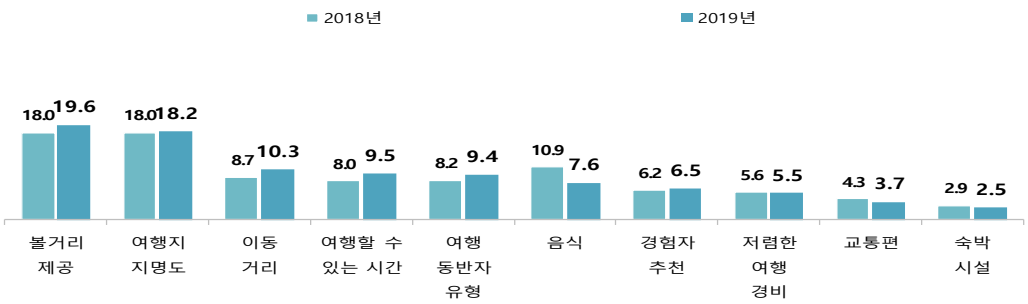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국내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 2019년 관광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는 '볼거리 제공'(19.6%), '여행지 지명도'(18.2%), '이동거리'(10.3%), '여행할 수 있는 시간'(9.5%), '여행 동반자 유형'(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볼거리 제공'과 '이동 거리'의 비율이 각각 1.6%p 증가하였다. 2019년 관광 숙박여행은 '여행지 지명도'(20.4%), 관광 당일여행은 '볼거리 제공'(20.4%)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6> 국내여행 방문지 선택이유(관광 전체)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표 3-4> 국내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단위: %)

구분		볼거리 제공	여행지 지명도	이동 거리	여행할 수 있는 시간	여행 동반자 유형	음식	경험자 추천	저렴한 여행 경비	교통편	숙박 시설
관광 전체	18년	18.0	18.0	8.7	8.0	8.2	10.9	6.2	5.6	4.3	2.9
	19년	19.6	18.2	10.3	9.5	9.4	7.6	6.5	5.5	3.7	2.5
관광 숙박	18년	18.2	20.1	6.8	8.1	8.5	9.7	6.3	4.8	3.7	5.3
	19년	18.9	20.4	8.1	10.2	9.2	6.5	7.1	4.5	2.7	5.0
관광 당일	18년	17.9	15.5	11.0	7.9	7.8	12.4	6.1	6.5	5.0	-
	19년	20.4	15.9	12.5	8.9	9.5	8.7	5.9	6.4	4.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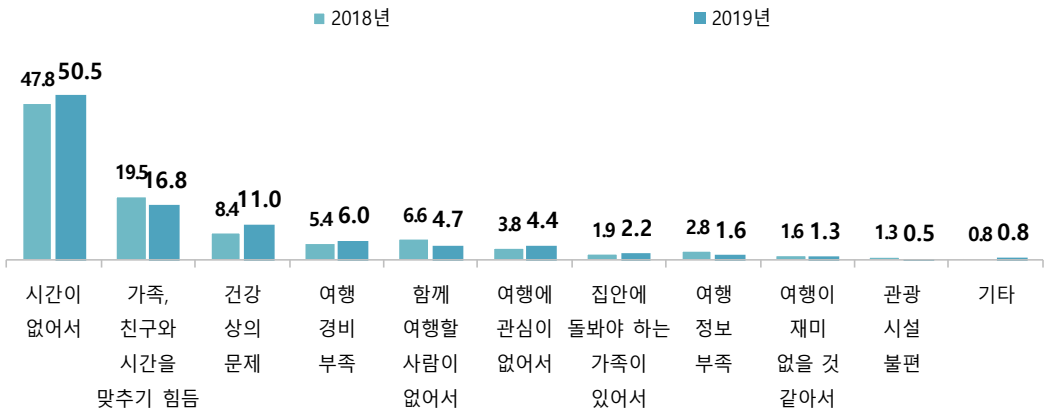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여행을 다녀오지 않는 이유

- 여행 비경험자를 대상으로 2019년에 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시간이 없어서'(50.5%)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16.8%), '건강상의 문제로'(11.0%), '여행 경비가 부족해서'(6.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시간이 없어서'는 2.7%p 증가한 반면,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서'는 2.7% 감소하였다.

<그림 3-17> 여행을 다녀오지 않는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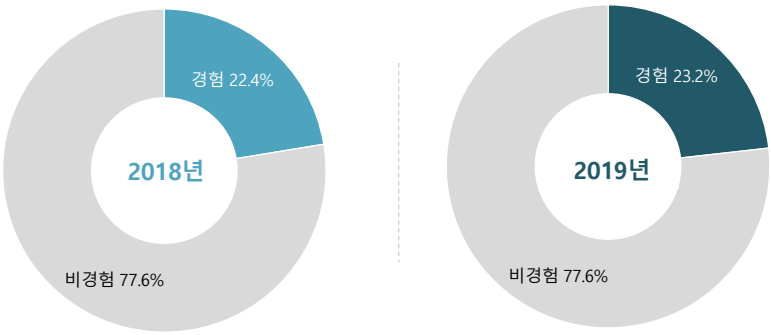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해외여행 경험률

- 2019년 해외여행 경험률은 23.2%로 나타났고, 2018년 대비 해외여행 경험률보다는 0.8%가 증가하였다.

<그림 3-18> 해외여행 경험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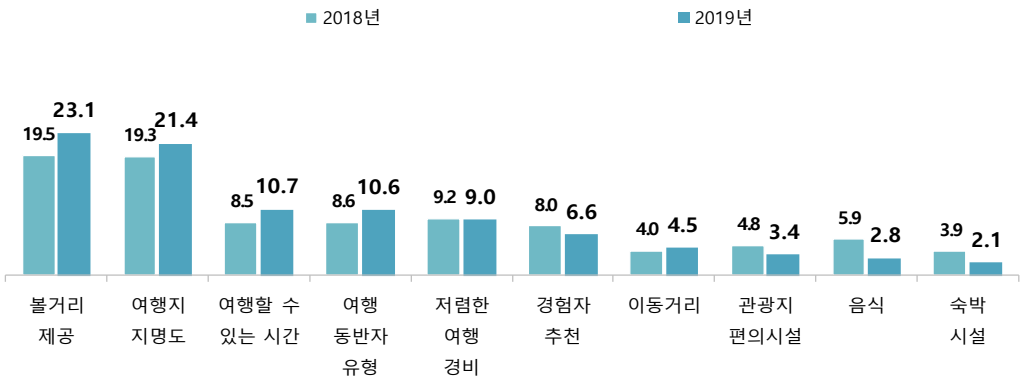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해외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 2019년 해외여행 시 방문지 선택 이유는 '볼거리 제공'(23.1%)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여행지 지명도'(21.4%), '여행할 수 있는 시간'(10.7%), '여행 동반자 유형'(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볼거리 제공'은 3.6%p 증가한 반면, '음식'은 3.1%p 감소하였다.

<그림 3-19> 해외여행 방문지 선택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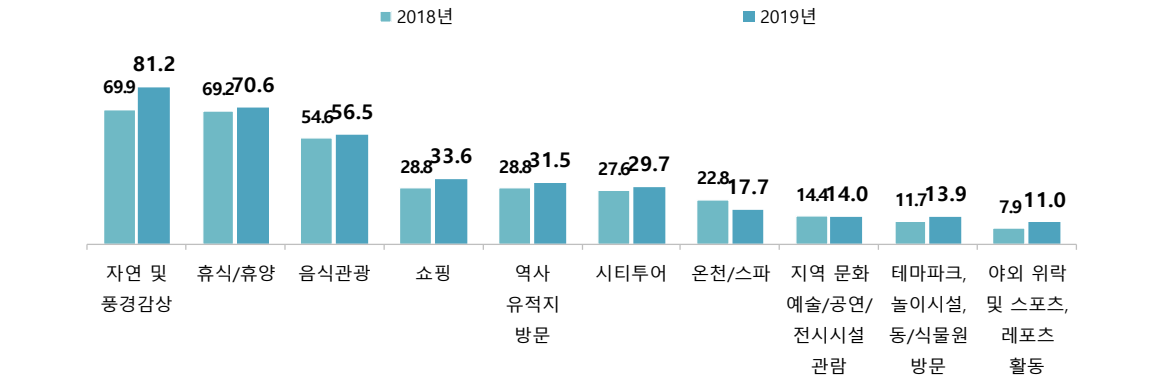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 해외 여행지에서 활동

- 2019년 해외여행 시 여행지에서의 활동은 '자연 및 풍경 감상'(81.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휴식/휴양'(70.6%), '음식관광(지역 맛집 등)'(56.5%), '쇼핑'(33.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자연 및 풍경 감상'은 11.3%p 증가한 반면, '온천/스파'는 5.1%p 감소하였다.

<그림 3-20> 해외여행지에서 활동

(단위: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국민여행조사」, (2019)

3. 충남도민 여가문화관광활동의 성향분석[7]과 시사점

1) 충남도민 여가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 충남도민 평일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 충남도민들의 평일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가 52.9%이며,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56.1%로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근무를 하는 나이층에 속하는 30대는 68.2%, 40대는 60.7%가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생층인 15~19세는 59.6%, 20대는 53.4%가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 반면, 정년을 마치는 시기인 6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78.1%가 여가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7) 충청남도(2020), 2020 충남 사회조사 결과분석임

<표 3-5> 충남도민 평일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전혀 부족하지 않다	② 거의 부족하지 않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음 (①+②)	부족함 (③+④)	계
전체		25,394	18.9	34.0	34.2	12.9	52.9	47.1	100.0
성별	남성	11,900	17.2	32.7	36.2	13.9	49.8	50.2	100.0
	여성	13,494	20.7	35.3	32.1	11.9	56.1	43.9	100.0
연령별	15~19세	846	11.3	29.1	39.4	20.2	40.4	59.6	100.0
	20대	1,499	13.7	33.0	38.5	14.8	46.6	53.4	100.0
	30대	2,128	6.2	25.5	48.1	20.2	31.8	68.2	100.0
	40대	3,819	8.7	30.6	43.3	17.3	39.3	60.7	100.0
	50대	4,511	14.4	35.3	37.5	12.8	49.7	50.3	100.0
	60세 이상	12,591	37.5	40.6	17.1	4.7	78.1	21.9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주말(공휴일 포함)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

- 주말(공휴일) 시간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부족하지 않다'가 61.5%이고,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63.4%로 더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젊은 층인 20대에서 56.4%, 중장년층에 해당하는 50대에서 59.7%, 노령층인 60대에서 81.1%가 여가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3-6> 충남도민 주말(공휴일) 시간사용에 대한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전혀 부족하지 않다	② 거의 부족하지 않다	③ 부족한 편이다	④ 항상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음 (①+②)	부족함 (③+④)	계
전체		25,393	21.2	40.6	27.6	10.7	61.7	38.3	100.0
성별	남성	11,900	19.6	40.5	28.9	11.0	60.0	40.0	100.0
	여성	13,493	22.8	40.6	26.1	10.4	63.4	36.6	100.0
연령별	15~19세	846	15.4	34.4	33.5	16.7	49.8	50.2	100.0
	20대	1,499	17.3	39.0	30.5	13.1	56.4	43.6	100.0
	30대	2,128	8.4	37.9	38.1	15.6	46.4	53.6	100.0
	40대	3,819	10.2	41.0	34.9	13.8	51.3	48.7	100.0
	50대	4,510	16.6	43.2	29.1	11.1	59.7	40.3	100.0
	60세 이상	12,591	39.3	41.7	14.7	4.3	81.1	18.9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2) 충남도민 여가활동 성향과 만족도

▶ 충남 지역(시군)내에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 충남도민의 지역 즉, 시군내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보통이 48.4%로 절반 정도이고, 만족은 29.2%, 불만족은 22.3%로 응답하였다.
- 성별로도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남자가 보통이 48.7%, 만족이 29.7%, 불만족이 21.6%, 여자는 보통이 48.2%, 만족이 28.7%, 불만족이 23.1%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에서 40%대 이상이 보통이며, 만족도가 높은 연령은 20대 32.8%, 15~19세 30.9%, 30대 30.5% 등으로 젊은층에서 비교적 만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3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에서 50% 이상이 보통에 만족을 응답하였고, 100만원 미만은 22.8%의 만족과 500만원 이상은 39.4%의 만족을 나타내어 소득 수준에 따른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충남 성별, 연령별, 가구소득별 지역(시군) 내에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25,360	5.0	17.3	48.4	24.9	4.4	22.3	48.4	29.2	100.0
성별	남성	11,888	4.8	16.8	48.7	25.2	4.6	21.6	48.7	29.7	100.0
	여성	13,472	5.2	17.9	48.2	24.6	4.1	23.1	48.2	28.7	100.0
연령별	15~19세	845	7.5	21.0	40.6	23.6	7.3	28.5	40.6	30.9	100.0
	20대	1,498	5.7	20.3	41.2	28.6	4.2	26.0	41.2	32.8	100.0
	30대	2,127	6.0	19.9	43.6	26.1	4.4	25.9	43.6	30.5	100.0
	40대	3,818	5.3	17.3	48.1	25.8	3.5	22.6	48.1	29.3	100.0
	50대	4,506	4.1	16.6	49.9	24.9	4.5	20.7	49.9	29.4	100.0
	60세 이상	12,566	4.1	14.5	54.7	22.4	4.3	18.7	54.7	26.7	100.0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4,707	6.3	16.5	54.4	18.4	4.4	22.8	54.4	22.8	100.0
	100~200만원 미만	2,990	5.1	17.5	53.6	21.1	2.8	22.6	53.6	23.9	100.0
	200~300만원 미만	2,311	4.0	16.6	50.0	26.0	3.5	20.6	50.0	29.5	100.0
	300~400만원 미만	1,844	3.8	18.4	48.2	26.4	3.2	22.2	48.2	29.6	100.0
	400~500만원 미만	1,227	4.9	17.6	44.9	28.7	3.9	22.5	44.9	32.6	100.0
	500만원 이상	1,872	4.0	14.0	42.6	32.4	7.0	18.0	42.6	39.4	100.0
	무응답	23	13.6	7.2	49.4	20.7	9.2	20.7	49.4	29.9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시군별 여가활동 참여여부

- 충남도민들의 여가활동 참여여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등은 95.6%, 문화예술 관람/참여 44.3%, 스포츠관람/참여 30.9%, 국내관광/여행활동 53.1%, 해외관광/여행활동 13.2% 등의 참여율이 나타났다.
- 시군별 여가활동의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은 15개 시군 중에서 대부분이 95%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으나, 서산시, 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등에서 비교적 낮은 참여율이 나타났다.
- 문화예술 관람/참여로 충남의 전체 참여율인 44.3%보다 낮은 비율은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등 11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 스포츠 관람/참여 활동으로 충남의 전체 참여율인 30.9%보다 높은 비율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6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 국내관광/여행 활동으로 충남의 전체 참여율인 53.1%보다 높은 비율은 천안시,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5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 해외관광/여행 활동으로 충남의 전체 참여율인 13.2%보다 높은 비율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홍성군 5개 시군에서 나타났다.

<표 3-8> 충남 시군별 지역(시군) 내에서 여가활동 참여여부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국내 관광/여행 활동	해외 관광/여행 활동
전체		25,399	95.6	44.3	30.9	53.1	13.2
시군별	천안시	2,670	99.2	53.7	31.9	62.9	15.4
	공주시	1,646	95.1	51.8	43.4	73.6	20.9
	보령시	1,579	97.4	31.2	26.8	44.1	10.4
	아산시	2,611	99.6	50.5	34.6	51.1	15.9
	서산시	1,800	82.7	34.2	15.4	41.0	8.6
	논산시	1,695	99.3	31.4	20.3	44.9	9.5
	계룡시	1,490	70.7	43.2	24.0	56.5	20.9
	당진시	1,653	100.0	36.3	30.2	51.8	12.3
	금산군	1,451	83.2	31.3	17.2	41.3	10.6
	부여군	1,376	98.6	25.8	18.2	34.2	9.6
	서천군	1,511	98.6	44.0	51.4	51.4	4.9
	청양군	1,578	99.5	41.5	30.5	58.5	8.0
	홍성군	1,605	99.5	56.6	56.8	55.8	13.9
	예산군	1,507	99.0	37.7	43.3	43.5	7.7
	태안군	1,227	64.0	22.3	10.2	31.1	9.5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의 권역별 및 시군별 전반적인 여가활동의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보통이 48.4%로 절반을 자치하고, 권역별로는 서해안권 54.3%, 내륙권 51.0%, 금강권 54.8% 등으로 보통에서 50%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 만족도가 전체 만족도 29.2%보다 낮은 지역은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예산군, 태안군 8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표 3-9> 충남 권역 및 시군별 지역(시군)내에서 전반적인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25,360	5.0	17.3	48.4	24.9	4.4	22.3	48.4	29.2	100.0
권역별	북부권	8,734	5.0	17.9	45.5	26.9	4.8	22.9	45.5	31.6	100.0
	서해안권	4,286	4.4	16.9	54.3	21.7	2.7	21.3	54.3	24.5	100.0
	내륙권	7,825	5.4	16.8	51.0	22.8	4.0	22.2	51.0	26.8	100.0
	금강권	4,515	5.1	15.4	54.8	20.5	4.2	20.4	54.8	24.7	100.0
시군별	천안시	2,670	5.4	21.0	37.7	30.4	5.5	26.4	37.7	35.9	100.0
	공주시	1,646	6.8	16.1	50.3	22.6	4.1	22.9	50.3	26.8	100.0
	보령시	1,579	4.2	20.2	52.9	20.1	2.6	24.4	52.9	22.7	100.0
	아산시	2,611	3.3	13.4	52.8	24.7	5.7	16.8	52.8	30.4	100.0
	서산시	1,800	2.7	14.1	56.2	25.2	1.8	16.8	56.2	27.0	100.0
	논산시	1,688	5.0	14.4	59.8	17.5	3.2	19.5	59.8	20.7	100.0
	계룡시	1,489	4.3	16.9	46.9	28.6	3.3	21.2	46.9	31.9	100.0
	당진시	1,653	8.8	18.1	51.1	18.5	3.5	26.9	51.1	22.0	100.0
	금산군	1,451	4.9	20.7	52.1	18.7	3.6	25.6	52.1	22.3	100.0
	부여군	1,376	5.3	12.9	48.4	27.3	6.2	18.2	48.4	33.5	100.0
	서천군	1,511	3.2	13.5	46.6	32.6	4.1	16.8	46.6	36.6	100.0
	청양군	1,578	4.0	18.7	40.1	32.8	4.5	22.6	40.1	37.3	100.0
	홍성군	1,605	5.4	14.2	52.2	23.0	5.2	19.6	52.2	28.1	100.0
	예산군	1,507	4.7	20.2	56.6	16.1	2.4	24.8	56.6	18.5	100.0
	태안군	1,196	5.7	14.4	63.2	15.0	1.8	20.0	63.2	16.8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3) 충남도민 여가문화 활동별 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 여가활동(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 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의 여가활동으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만족은 59.2%이고, 보통은 36.3%, 불만족 4.5%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는 전체 59.2%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 62.8%이며, 내륙권은 49.9%로

4개 권역중 가장 낮은 만족도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59.2%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부여군, 서천군 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표 3-10>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활동(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23,562	1.1	3.4	36.3	43.7	15.5	4.5	36.3	59.2	100.0
권역별	북부권	8,338	1.3	3.3	32.6	46.5	16.4	4.6	32.6	62.8	100.0
	서해안권	3,757	0.5	2.9	39.9	42.5	14.1	3.4	39.9	56.6	100.0
	내륙권	7,241	0.7	4.0	45.5	38.2	11.7	4.6	45.5	49.9	100.0
	금강권	4,226	1.5	3.2	39.2	38.3	17.9	4.7	39.2	56.2	100.0
시군별	천안시	2,646	1.9	3.9	29.7	49.7	14.7	5.8	29.7	64.5	100.0
	공주시	1,559	0.5	2.6	40.7	45.4	10.7	3.1	40.7	56.1	100.0
	보령시	1,537	0.6	3.4	42.4	41.1	12.5	4.0	42.4	53.6	100.0
	아산시	2,601	0.4	1.6	31.3	43.3	23.4	2.0	31.3	66.7	100.0
	서산시	1,439	0.6	2.2	35.7	48.4	13.1	2.8	35.7	61.5	100.0
	논산시	1,683	2.2	3.7	40.7	38.0	15.5	5.8	40.7	53.4	100.0
	계룡시	1,023	0.9	3.1	36.9	43.2	15.8	4.0	36.9	59.1	100.0
	당진시	1,652	1.4	4.8	43.2	37.8	12.7	6.2	43.2	50.6	100.0
	금산군	1,187	1.2	4.4	39.7	40.3	14.5	5.6	39.7	54.8	100.0
	부여군	1,356	0.4	1.6	36.1	37.5	24.3	2.0	36.1	61.8	100.0
	서천군	1,491	0.3	2.7	28.6	50.4	18.1	3.0	28.6	68.4	100.0
	청양군	1,569	1.7	9.4	38.1	39.8	11.0	11.1	38.1	50.8	100.0
	홍성군	1,598	0.6	3.6	47.3	34.8	13.7	4.2	47.3	48.5	100.0
	예산군	1,492	0.4	4.3	55.3	30.7	9.4	4.7	55.3	40.1	100.0
	태안군	729	0.7	1.9	49.1	35.5	12.8	2.6	49.1	48.3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여가활동(문화예술 관람/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의 여가활동 중 문화예술 관람/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만족은 63.2%이고, 보통은 32.5%, 불만족 4.3%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는 전체 63.2%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 67.7%이며, 내륙권은 51.1%로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 시군별로는 전체 59.2%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3개 시군으로 12개 시군이 전체 만족도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3-11>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활동(문화예술 관람/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9,140	0.8	3.5	32.5	45.8	17.5	4.3	32.5	63.2	100.0
권역별	북부권	3,580	0.7	3.3	28.3	48.6	19.0	4.0	28.3	67.7	100.0
	서해안권	1,150	0.6	5.0	37.9	40.3	16.2	5.6	37.9	56.5	100.0
	내륙권	3,283	0.9	4.1	43.9	37.6	13.5	4.9	43.9	51.1	100.0
	금강권	1,127	1.2	2.7	34.5	46.6	15.0	3.9	34.5	61.6	100.0
시군별	천안시	1,314	0.8	3.4	25.5	52.1	18.3	4.2	25.5	70.3	100.0
	공주시	758	1.1	3.1	43.8	42.2	9.9	4.1	43.8	52.1	100.0
	보령시	398	0.5	8.2	43.1	35.7	12.5	8.7	43.1	48.2	100.0
	아산시	1,236	0.2	2.8	29.9	42.3	24.8	3.0	29.9	67.1	100.0
	서산시	511	0.6	1.9	35.7	50.1	11.6	2.5	35.7	61.7	100.0
	논산시	463	1.3	2.0	31.3	49.7	15.7	3.3	31.3	65.4	100.0
	계룡시	623	1.1	3.9	33.9	41.5	19.6	5.0	33.9	61.1	100.0
	당진시	519	1.9	5.2	33.7	43.0	16.2	7.0	33.7	59.3	100.0
	금산군	380	1.2	4.8	40.3	37.8	15.8	6.1	40.3	53.6	100.0
	부여군	284	0.9	2.2	35.9	48.2	12.7	3.1	35.9	61.0	100.0
	서천군	565	0.6	2.1	35.8	41.0	20.5	2.7	35.8	61.5	100.0
	청양군	577	0.6	8.9	37.8	38.4	14.4	9.5	37.8	52.7	100.0
	홍성군	844	0.7	3.6	46.0	33.7	16.0	4.3	46.0	49.7	100.0
	예산군	481	0.9	4.6	48.7	34.0	11.8	5.5	48.7	45.7	100.0
	태안군	187	0.7	2.7	29.4	49.8	17.4	3.5	29.4	67.2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여가활동(스포츠 관람/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의 여가활동 중 스포츠 관람/참여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만족은 58.9%이고, 보통은 36.6%, 불만족 4.5%로 응답하였다.
- 권역별로는 전체 58.9%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 65.6%과 금강권 61.0%이며, 내륙권은 43.9%로 4개 권역중 가장 낮은 만족도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59.2%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3개 시군으로 12개 시군이 전체 만족도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3-12>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활동(스포츠 관람/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7,236	0.8	3.8	36.6	41.3	17.6	4.5	36.6	58.9	100.0
권역별	북부권	2,369	0.5	3.7	30.2	45.2	20.4	4.2	30.2	65.6	100.0
	서해안권	1,202	1.4	1.9	42.7	39.0	15.0	3.3	42.7	54.0	100.0
	내륙권	2,942	0.9	4.9	50.3	31.8	12.1	5.8	50.3	43.9	100.0
	금강권	723	1.4	3.5	34.2	43.9	17.0	4.9	34.2	61.0	100.0
시군별	천안시	809	0.6	3.5	24.0	50.0	22.0	4.0	24.0	72.0	100.0
	공주시	643	1.2	5.0	46.3	38.8	8.7	6.2	46.3	47.5	100.0
	보령시	388	1.5	1.9	41.1	42.5	13.0	3.4	41.1	55.5	100.0
	아산시	856	0.0	3.9	33.9	39.7	22.4	3.9	33.9	62.1	100.0
	서산시	234	0.2	2.7	39.8	42.5	14.8	3.0	39.8	57.3	100.0
	논산시	295	1.8	2.5	35.0	40.4	20.2	4.4	35.0	60.7	100.0
	계룡시	333	0.5	3.0	37.2	42.8	16.5	3.5	37.2	59.3	100.0
	당진시	470	1.8	4.3	42.9	38.4	12.5	6.2	42.9	50.9	100.0
	금산군	211	1.4	6.5	35.8	41.3	15.0	7.9	35.8	56.3	100.0
	부여군	217	0.4	3.2	31.4	52.7	12.3	3.6	31.4	65.0	100.0
	서천군	726	1.2	1.8	43.3	36.7	17.0	3.0	43.3	53.7	100.0
	청양군	442	1.8	5.6	39.6	35.1	17.9	7.3	39.6	53.1	100.0
	홍성군	909	0.7	5.7	50.3	29.5	13.8	6.3	50.3	43.3	100.0
	예산군	615	0.8	3.7	62.2	22.2	11.1	4.5	62.2	33.3	100.0
	태안군	88	1.7	2.8	47.2	33.7	14.7	4.4	47.2	48.3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여가활동(국내 관광/여행 활동) 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의 여가활동으로 국내관광/여행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66.9%이고, 보통은 28.7%, 불만족 4.4%로 응답하였다.
- 권역별로는 전체 66.9%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 69.7%, 금강권 69.2%이며, 내륙권은 58.2%로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66.9%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천군 등 6개 시군이 전체 만족도 비율보다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다.

<표 3-13>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활동(국내 관광/여행활동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12,005	1.2	3.2	28.7	46.3	20.6	4.4	28.7	66.9	100.0
권역별	북부권	4,343	1.3	3.0	25.9	48.2	21.5	4.4	25.9	69.7	100.0
	서해안권	1,636	0.9	2.5	34.0	45.6	17.1	3.3	34.0	62.7	100.0
	내륙권	4,344	0.7	4.2	36.8	40.2	18.1	5.0	36.8	58.2	100.0
	금강권	682	1.6	2.8	26.4	46.6	22.6	4.4	26.4	69.2	100.0
시군별	천안시	1,607	1.3	2.5	24.5	51.0	20.8	3.8	24.5	71.7	100.0
	공주시	1,173	0.9	3.2	37.8	45.6	12.5	4.2	37.8	58.1	100.0
	보령시	640	1.0	2.4	38.4	43.7	14.5	3.4	38.4	58.2	100.0
	아산시	1,245	1.6	3.7	26.4	41.7	26.6	5.4	26.4	68.2	100.0
	서산시	693	0.8	3.5	30.1	51.1	14.4	4.3	30.1	65.6	100.0
	논산시	718	2.4	2.4	24.1	48.7	22.5	4.7	24.1	71.2	100.0
	계룡시	830	0.9	2.4	28.2	47.0	21.4	3.3	28.2	68.4	100.0
	당진시	798	1.3	4.0	28.4	44.7	21.7	5.3	28.4	66.3	100.0
	금산군	552	0.6	4.6	32.9	42.8	19.1	5.2	32.9	61.9	100.0
	부여군	412	0.9	2.1	25.6	45.2	26.2	3.0	25.6	71.4	100.0
	서천군	721	0.5	3.0	25.5	51.5	19.5	3.5	25.5	71.0	100.0
	청양군	909	0.6	6.3	36.5	37.7	18.8	7.0	36.5	56.5	100.0
	홍성군	849	0.5	6.4	38.2	34.5	20.4	6.9	38.2	54.9	100.0
	예산군	583	0.5	3.2	38.1	33.8	24.4	3.7	38.1	58.2	100.0
	태안군	275	1.3	1.6	36.1	41.0	20.0	2.9	36.1	61.0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여가활동(해외관광/여행 활동) 참여 만족도

- 충남도민의 여가활동으로 해외관광/여행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 만족은 63.1%이고, 보통은 29.5%, 불만족 7.3%로 응답하였다.
- 권역별로는 전체 63.1%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 64.0%, 서해안권 64.9%, 금강권 64.9%이며, 내륙권은 58.9%로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만족도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63.1%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서천군, 청양군 6개 시군이 높은 만족도로 응답하였다.

<표 3-14>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활동(해외 관광/여행활동 참여)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2,821	2.4	4.9	29.5	35.6	27.6	7.3	29.5	63.1	100.0
권역별	북부권	1,100	3.0	5.3	27.8	35.2	28.8	8.3	27.8	64.0	100.0
	서해안권	292	1.7	3.2	30.1	38.2	26.7	5.0	30.1	64.9	100.0
	내륙권	1,035	1.2	4.8	35.1	36.8	22.0	6.0	35.1	58.9	100.0
	금강권	394	1.7	3.7	29.8	33.5	31.4	5.3	29.8	64.9	100.0
시군별	천안시	381	1.1	4.5	21.2	40.9	32.3	5.6	21.2	73.2	100.0
	공주시	313	0.6	3.9	37.0	39.1	19.4	4.5	37.0	58.5	100.0
	보령시	144	1.8	1.3	30.2	37.0	29.6	3.2	30.2	66.6	100.0
	아산시	398	8.1	6.3	37.2	23.8	24.7	14.3	37.2	48.5	100.0
	서산시	146	1.1	4.5	34.1	40.0	20.4	5.5	34.1	60.3	100.0
	논산시	147	2.6	1.2	24.8	39.5	31.9	3.8	24.8	71.4	100.0
	계룡시	313	0.7	2.4	28.3	40.0	28.6	3.1	28.3	68.6	100.0
	당진시	175	1.8	7.3	33.0	30.4	27.6	9.0	33.0	58.0	100.0
	금산군	140	1.8	2.7	35.8	26.7	33.0	4.4	35.8	59.7	100.0
	부여군	107	0.0	8.7	33.1	29.2	29.1	8.7	33.1	58.2	100.0
	서천군	65	0.0	7.1	21.1	48.4	23.3	7.1	21.1	71.8	100.0
	청양군	121	1.0	4.9	28.6	38.4	27.1	5.9	28.6	65.5	100.0
	홍성군	195	3.1	6.4	34.2	32.8	23.5	9.6	34.2	56.3	100.0
	예산군	93	0.0	7.4	42.5	32.6	17.5	7.4	42.5	50.1	100.0
	태안군	83	2.3	5.0	34.1	35.7	22.9	7.3	34.1	58.6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4) 충남도민 여가문화활동 참여 불만족 이유

▶ 도민 여가문화활동 성별 및 연령별 불만족 이유(1순위)

- 도민의 여가문화활동의 불만족 이유 1순위는 전체적으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26.2%, '시설이 부족하여' 23.3%, '시간이 부족하여' 21.0%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 남자는 '경제적 부담' 25.9%와 '시간 부족' 23.9%, '시설 부족' 23.4% 등의 순이며, 여자는 '경제적 부담' 26.5%와 '시설 부족' 23.1%, '시간 부족' 18.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부담' 응답률이 점점 높아졌으며, 젊은층은 '시설이 부족하여'가 높고, 20대보다 학생층과 30대~50대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3-15> 충남도민 성별 및 연령별 여가문화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시간이 부족하여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응답	기타	계
전체		5,149	26.2	23.3	21.0	9.2	8.5	5.1	3.7	1.2	0.2	1.7	100.0
성별	남	2,368	25.9	23.4	23.9	7.4	7.7	4.4	4.1	1.2	0.3	1.7	100.0
	여	2,781	26.5	23.1	18.2	11.0	9.2	5.8	3.2	1.3	0.1	1.6	100.0
연령별	15~19세	226	15.1	37.7	24.3	0.0	6.1	9.5	4.6	0.7	0.0	2.1	100.0
	20대	416	18.5	45.7	12.9	0.3	10.1	5.9	2.4	0.7	0.8	2.7	100.0
	30대	592	19.9	33.2	24.0	1.2	10.0	4.8	2.0	2.0	0.2	2.8	100.0
	40대	851	26.4	24.4	26.7	2.2	11.8	4.5	2.4	0.5	0.1	1.1	100.0
	50대	858	35.6	13.4	28.6	5.0	7.2	4.5	3.5	1.0	0.1	1.1	100.0
	60세 이상	2,206	31.7	4.7	13.7	30.5	5.7	4.5	6.3	1.9	0.1	1.0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권역별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 북부권 27.8%와 금강권 25.4%, 내륙권 23.8% 등은 '경제적 부담'이며, 서해안권 29.7%, 금강권 24.2% 등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권역별로 시설 부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시군별로는 '경제적 부담'이 전체 26.2%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등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족이 전체 23.3%보다 높은 시군은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등이다. 시간 부족이 전체 21.0%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금산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으로 나타났다.
- 특히,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의 전체 9.2%보다 높은 시군은 공주시, 서산시,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등으로 나타났다.

<표 3-16> 충남도민 성별 및 연령별 여가문화활동 불만족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설이 부족하여	시간이 부족하여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무응답	기타	계
전체		5,149	26.2	23.3	21.0	9.2	8.5	5.1	3.7	1.2	0.2	1.7	100.0
권역별	북부권	1,836	27.8	22.2	22.4	8.0	7.5	5.2	3.8	1.0	0.0	2.0	100.0
	서해안권	777	20.8	29.7	17.5	9.6	8.1	5.1	5.0	1.3	1.6	1.2	100.0
	내륙권	1,648	23.8	22.6	20.0	11.3	10.9	5.9	2.6	1.6	0.0	1.4	100.0
	금강권	888	25.4	24.2	17.3	12.4	11.0	3.2	3.6	1.8	0.5	0.6	100.0
시군별	천안시	712	30.5	18.8	25.8	7.7	7.0	4.7	3.4	1.0	0.0	1.2	100.0
	공주시	353	26.9	19.7	16.2	10.4	12.1	10.1	3.1	0.5	0.0	1.0	100.0
	보령시	359	23.0	29.9	18.4	8.7	7.6	5.1	4.4	1.3	0.0	1.7	100.0
	아산시	421	29.8	22.2	19.7	5.6	5.5	6.8	4.3	1.4	0.0	4.6	100.0
	서산시	295	23.1	25.1	14.7	15.3	8.9	3.6	6.5	2.1	0.0	0.7	100.0
	논산시	307	25.9	27.7	14.1	10.0	11.5	2.4	5.8	1.6	1.0	0.0	100.0
	계룡시	293	15.6	44.2	15.3	1.0	13.6	5.1	3.8	0.2	0.0	1.3	100.0
	당진시	408	18.3	33.6	17.6	7.1	10.8	6.7	2.8	0.0	0.0	3.0	100.0
	금산군	(372)	27.6	18.4	23.0	15.4	7.2	4.1	2.0	1.6	0.0	0.6	100.0
	부여군	(209)	22.2	24.2	17.0	13.7	14.1	3.6	1.0	2.3	0.0	1.9	100.0
	서천군	(214)	16.3	38.2	13.0	11.7	4.9	4.6	9.1	1.8	0.0	0.3	100.0
	청양군	(359)	33.0	11.8	27.1	14.8	4.7	5.1	1.9	1.3	0.0	0.2	100.0
	홍성군	(284)	20.6	26.4	21.5	8.7	11.4	3.7	2.3	2.2	0.0	3.3	100.0
	예산군	(359)	23.1	17.2	22.7	17.9	9.9	3.3	2.2	3.2	0.0	0.6	100.0
	태안군	(204)	19.9	23.0	19.2	9.8	11.4	5.4	3.4	1.0	6.0	1.0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도민 여가문화활동 성별 및 연령별 불만족 이유(1+2순위, 복수응답)

- 도민의 여가문화활동의 불만족 이유로 복수응답(1+2순위)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시설 부족 36.5%, 경제적 부담 35.5%, 시간이 부족하여 32.2%,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24.7% 등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하였다.
- 성별로도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로 남자는 시간 부족 37.7%, 시설 부족 36.9%, 경제적 부담 36.1%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23.1% 등의 순이며, 여자는 시설 부족 36.0%와 경제적 부담 34.9%, 시간 부족 28.8%,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26.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의 젊은층인 20대에서 시설부족 64.0%, 15세~19세 56.8%, 30대 49.0%, 60세 이상은 10.0%로 응답하였다. 경제적 부담은 5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령층, 시간 부족은 30대~50대 연령층에서 40%대의 응답률이 나타났다.

<표 3-17> 충남도민 성별 및 연령별 여가문화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시설이 부족 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부족 하여	정보 및 프로 그램이 부족 하여	체력 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 수단이 불편 하여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5,149	36.5	35.5	33.2	24.7	15.0	12.8	11.1	6.0	2.5	0.2
성별	남	2,368	36.9	36.1	37.7	23.1	11.9	13.5	9.9	6.5	2.3	0.3
	여	2,781	36.0	34.9	28.8	26.2	17.9	12.1	12.3	5.5	2.7	0.1
연령별	15~19세	226	56.8	27.7	33.7	24.6	0.0	14.7	17.9	3.2	2.6	0.0
	20대	416	64.0	26.5	19.8	35.7	1.3	9.8	15.4	4.0	3.6	0.8
	30대	592	49.0	32.2	41.7	31.8	1.5	8.8	9.8	4.6	3.4	0.2
	40대	851	41.2	33.5	41.9	31.9	5.1	10.9	9.0	4.9	1.6	0.1
	50대	858	25.0	44.9	42.4	18.3	10.7	16.1	10.4	6.0	2.2	0.1
	60세 이상	2,206	10.0	40.5	22.8	12.2	46.5	15.8	9.4	9.5	2.0	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도민 여가문화활동 권역별 및 시군별 불만족 이유(1+2순위, 복수응답)

- 권역별로 살펴본 결과, 여가활동의 불만족 이유 중 시설 부족은 서해안권 42.4%와 내륙권 34.8%, 금강권 37.2%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부권은 경제적 부담이 38.5%로 다른 3개의 권역과 다르게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북부권은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시설 부족 35.9%와 시간 부족 35.4%로 높게 나타났다.
- 시군별로는 충남 전체 시설 부족 36.5%보다 높은 시군은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등 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충남 전체 비율인 경제적 부담의 35.5%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청양군 등 3개 시군과 시간 부족의 33.2%보다 높은 시군은 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등 4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 정보 및 프로그램의 충남 전체 응답 24.7%보다 높은 시군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 9개 시군에서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표 3-18>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여가문화활동 불만족 이유(1+2순위, 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시설이 부족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여	정보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교통 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기타	무응답
전체		5,149	36.5	35.5	33.2	24.7	15.0	12.8	11.1	6.0	2.5	0.2
권역별	북부권	1,836	35.9	38.5	35.4	22.4	13.2	12.6	11.8	5.8	2.8	0.0
	서해안권	777	42.4	28.4	27.4	28.1	14.5	14.9	9.4	4.4	1.7	1.6
	내륙권	1,648	34.8	31.1	31.3	28.4	17.7	12.1	11.2	7.5	2.8	0.0
	금강권	888	37.2	31.9	28.6	28.7	21.4	12.5	8.8	5.9	1.1	0.5
시군별	천안시	712	32.1	42.6	37.5	19.8	13.1	12.8	10.5	5.7	1.7	0.0
	공주시	353	32.6	34.8	32.4	25.1	18.8	14.7	13.7	9.0	2.2	0.0
	보령시	359	43.2	29.8	30.1	27.2	13.5	13.6	10.6	4.1	2.6	0.0
	아산시	421	31.2	38.6	34.6	18.3	9.4	11.8	16.4	3.9	5.5	0.0
	서산시	295	33.3	32.0	28.7	24.7	22.1	16.7	9.8	12.2	1.5	0.0
	논산시	307	40.8	30.5	24.7	30.0	18.8	12.4	8.8	5.1	0.2	1.0
	계룡시	293	63.2	20.2	25.5	44.3	5.1	10.2	11.0	3.1	2.7	0.0
	당진시	408	57.6	26.6	32.4	35.3	11.9	10.5	12.5	4.3	4.6	0.0
	금산군	372	33.6	35.1	36.1	24.3	25.1	16.1	7.3	6.5	1.7	0.0
	부여군	209	34.5	31.0	27.5	31.0	22.0	8.8	10.6	6.7	2.2	0.0
	서천군	214	46.5	22.3	23.1	24.1	17.8	22.8	8.6	7.5	0.3	0.0
	청양군	359	19.2	43.7	40.0	20.7	25.5	23.0	10.1	17.6	0.2	0.0
	홍성군	284	37.9	27.0	29.4	32.1	13.8	7.7	11.3	6.5	5.4	0.0
	예산군	359	28.2	30.6	31.2	25.1	22.4	10.0	8.4	4.8	2.0	0.0
	태안군	204	38.0	29.9	25.2	32.8	14.0	11.5	7.7	2.7	1.0	6.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5) 충남도민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의향

▶ 충남도민 인구 특성별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의 참여의향

- 도민들의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의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은 94.6%, 문화예술 관람/참여 57.2%, 스포츠 관람/참여 46.1%, 국내 관광/여행활동 63.2%, 해외 관광/여행활동 31.2% 등의 의향이 나타났다.
- 성별로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의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은 남자 95.3%와 여자 94.5%이다. 특히, 문화예술 관람/참여, 국내관광/여행활동,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은 남자와 여자의 응답률이 비슷한데, 스포츠 관람/참여는 남자 54.5%와 여자 37.4%로 남자가 17.1%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연령별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90% 이상으로 30대가 97.1%로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관람/참여와 스포츠 관람/참여는 젊은층이, 국내관광/여행 활동은 20대~40대, 해외관광/여행 활동은 젊은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소득수준별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은 소득에 관계없이 90% 이상으로 400~5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가 97.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람/참여와 스포츠 관람/참여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여행 활동 및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3-19> 충남도민 성별, 연령, 가구소득별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국내 관광/여행 활동	해외 관광/여행 활동
전체		25,399	94.9	57.2	46.1	63.2	31.2
성별	남	11,903	95.3	57.8	54.5	63.8	32.4
	여	13,496	94.5	56.5	37.4	62.5	29.9
연령별	15~19세	846	95.9	76.0	56.5	69.5	40.6
	20대	1,499	95.7	75.2	56.9	73.0	44.0
	30대	2,128	97.1	72.0	55.6	77.0	39.3
	40대	3,820	96.6	69.5	53.9	72.9	36.8
	50대	4,511	95.7	56.2	45.8	64.4	31.3
	60세 이상	12,595	91.8	31.9	30.4	44.5	16.6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4,723	90.3	29.7	28.6	36.6	15.1
	100~200만원 미만	2,995	93.7	41.8	35.9	53.1	21.2
	200~300만원 미만	2,314	94.9	56.5	49.3	64.8	29.5
	300~400만원 미만	1,844	96.9	65.8	57.4	70.6	36.3
	400~500만원 미만	1,228	97.7	68.6	60.0	77.3	40.1
	500만원 이상	1,872	97.0	72.4	65.5	79.0	46.6
	무응답	24	72.1	54.1	40.7	52.5	16.3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의 참여의향

- 권역별로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의 참여의향을 살펴보면,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은 서해안권 84.5%보다 높은 94% 이상의 응답률이 북부권 96.9%, 금강권 94.8%, 내륙권 94.1%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예술 관람/참여, 국내관광/여행 활동,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에 있어서도 3개의 다른 권역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북부권에서는 문화예술 관람/참여 62.4%와 국내관광/여행 활동

66.6%가 높고, 내륙권에서는 스포츠 관람/참여 54.1%와 해외관광/여행 활동 33.8%가 다른 권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 시군별로는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충남 전체 94.9%보다 높은 참여의향 비율이 나타난 시군은 당진시와 홍성군이 각각 99.3%, 청양군 99.0%, 논산시 98.8%, 부여군 98.6%, 천안시 98.3%, 예산군 98.0%, 서천군 97.6% 등 8개 시군에서 높은 참여의향이 나타났다.
- 문화예술 관람/참여 충남 전체 57.2%보다 참여의향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 67.7%, 서천군 65.9%, 홍성군 64.9%, 아산시 64.2%, 공주시 60.9%, 계룡시 57.5% 등 6개 시군이다.
- 스포츠 관람/참여로 충남 전체 46.1%보다 참여의향이 높은 시군이 홍성군 64.3%, 서천군 62.5%, 공주시 53.6%, 예산군 51.6%, 천안시 50.6%, 당진시 50.1%, 아산시 49.2%, 계룡시 46.7% 등 8개 시군이다.
- 국내관광/여행 활동에 전체 63.2%보다 참여의향이 높은 시군은 공주시 75.7%, 천안시 73.7%, 청양군 69.5%, 홍성군 64.7%, 계룡시 64.2% 등 5개 시군이며, 해외관광/여행 활동이 충남 전체 31.2%보다 높은 시군은 공주시 44.1%, 계룡시 40.9%, 천안시 34.7%, 아산시 32.4%, 당진시 32.0%, 홍성군 31.6% 등 6개 시군이다.

<표 3-20>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의향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국내 관광/여행 활동	해외 관광/여행 활동
전체		25,399	94.9	57.2	46.1	63.2	31.2
권역별	북부권	8,734	96.9	62.4	48.0	66.6	32.9
	서해안권	4,317	84.7	42.9	37.6	48.7	21.9
	내륙권	7,826	94.1	58.4	54.1	66.4	33.8
	금강권	4,522	94.8	41.0	31.7	53.6	27.2
시군별	천안시	2,670	98.3	67.7	50.6	73.7	34.7
	공주시	1,646	93.2	60.9	53.6	75.7	44.1
	보령시	1,579	94.2	39.4	35.0	50.4	23.5
	아산시	2,611	99.2	64.2	49.2	62.4	32.4
	서산시	1,800	85.4	48.8	34.5	52.7	27.5
	논산시	1,695	98.8	44.5	35.0	57.2	26.6
	계룡시	1,490	71.6	57.5	46.7	64.2	40.9
	당진시	1,653	99.3	53.0	50.1	61.2	32.0
	금산군	1,451	81.0	39.8	28.0	53.3	27.0
	부여군	1,376	98.6	35.8	28.8	47.7	28.4
	서천군	1,511	97.6	65.9	62.5	61.7	23.5
	청양군	1,578	99.0	51.0	40.3	69.5	18.8
	홍성군	1,605	99.3	64.9	64.3	64.7	31.6
	예산군	1,507	98.0	50.4	51.6	56.0	25.2
	태안군	1,227	58.7	28.8	20.5	35.0	17.9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5) 지역축제 참여 현황과 만족도

▶ 충남도민 인구특성별 지역축제 참여 경험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 참여 경험은 충남 전체는 없다가 75.7%이며, 있다가 24.3%를 차지하여 비교적 축제에 참여한 도민의 응답률이 작게 나타났다.
- 성별로는 지역축제 방문 경험이 남자는 없다 76.6%, 있다 23.3%이고, 여자는 없다 74.7%, 있다가 25.3%를 차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충남 전체 응답보다 참여 경험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 지역축제 방문 경험이 있다가 30대~60세 이상까지 모두 충남 전체 24.3% 이상의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15~19세 84.0%, 20대 82.8%로 충남 전체 75.7%보다 높게 나타나 학생과 젊은층에서 축제 방문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 소득수준별로는 지역축제 방문 경험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고, 300~400만 원 미만 24.6%부터 충남 전체 24.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200~300만 원 미만 75.8%부터 충남 전체 75.7%보다 높게 나타나 소득이 낮은 수준에서 축제 방문 경험의 비율이 낮았다.

<표 3-21> 충남도민 성별 및 연령, 가구소득별 지역축제 방문 경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399	24.3	75.7	0.1	100.0
성별	남성	11,903	23.3	76.6	0.1	100.0
	여성	13,496	25.3	74.7	0.0	100.0
연령별	15~19세	846	15.9	84.0	0.1	100.0
	20대	1,499	17.2	82.8	0.0	100.0
	30대	2,128	24.6	75.2	0.2	100.0
	40대	3,820	26.3	73.6	0.1	100.0
	50대	4,511	28.7	71.3	0.0	100.0
	60세 이상	12,595	24.7	75.2	0.1	100.0
가구소득별	100만원 미만	4,723	17.0	82.8	0.2	100.0
	100~200만원 미만	2,995	24.2	75.7	0.1	100.0
	200~300만원 미만	2,314	24.2	75.8	0.0	100.0
	300~400만원 미만	1,844	24.6	75.4	0.0	100.0
	400~500만원 미만	1,228	29.7	70.3	0.0	100.0
	500만원 이상	1,872	30.7	69.2	0.1	100.0
	무응답	24	43.3	56.7	0.0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 참여 경험

- 권역별로 지역축제 참여 경험이 있다가 충남 전체 24.3%보다 높은 지역은 내륙권 43.5%와 금강권 24.5%이며, 없다가 충남 전체 75.7%보다 높은 지역은 북부권 80.5%와 서해안권 79.6%로 나타났다.
- 시군별로 지역축제 참여 경험이 있다가 충남 전체 24.3%보다 높은 시군은 청양군 63.3%, 공주시 62.1%, 부여군 38.3%, 금산군 36.3%, 서천군 34.8%, 홍성군 33.5%, 예산군 32.2%, 계룡시 25.3%, 천안시 24.6% 등의 순으로 9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 지역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는 충남 전체 75.7%보다 높은 시군으로 아산시 91.9%, 논산시 88.7%, 태안군 86.6%, 당진시 85.0%, 보령시 82.7%, 서산시 76.1% 등의 순으로 6개 시군이 응답하였다.

<표 3-22>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 방문 경험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있다	없다	무응답	계
전체		25,399	24.3	75.7	0.1	100.0
권역별	북부권	8,734	19.4	80.5	0.0	100.0
	서해안권	4,317	20.1	79.6	0.3	100.0
	내륙권	7,826	43.5	56.5	0.0	100.0
	금강권	4,522	24.5	75.5	0.0	100.0
시군별	천안시	2,670	24.6	75.3	0.1	100.0
	공주시	1,646	62.1	37.8	0.2	100.0
	보령시	1,579	17.3	82.7	0.0	100.0
	아산시	2,611	8.1	91.9	0.0	100.0
	서산시	1,800	23.9	76.1	0.0	100.0
	논산시	1,695	11.3	88.7	0.0	100.0
	계룡시	1,490	25.3	74.7	0.0	100.0
	당진시	1,653	15.0	85.0	0.0	100.0
	금산군	1,451	36.3	63.7	0.0	100.0
	부여군	1,376	38.3	61.7	0.0	100.0
	서천군	1,511	34.8	65.2	0.0	100.0
	청양군	1,578	63.3	36.7	0.0	100.0
	홍성군	1,605	33.5	66.5	0.0	100.0
	예산군	1,507	32.2	67.8	0.0	100.0
	태안군	1,227	12.3	86.6	1.1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 방문 횟수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 참여 횟수는 1회 68.8%, 2회 21.9%, 3회 6.3%, 4회 이상 3.0% 등의 순이며, 평균 지역축제 참여 횟수는 1.5회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지역축제 평균 참여 횟수는 서해안권 1.6회, 내륙권과 금강권 1.5회, 북부권 1.4회로 충남 전체 평균 1.5회보다 북부권에서 낮은 참여 횟수로 나타났다. 권

역별 참여 횟수별 응답은 1회 참여 경험이 전체 68.8%인데 북부권만이 1회 72.4%이고, 2회 참여 경험이 전체 21.9%인데 금강권 25.2%와 서해안권 24.3%로 참여 횟수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 시군별 참여 횟수가 전체 평균 1.5회보다 높은 시군은 부여군 1.8회, 논산시·계룡시·서천군·홍성군·태안군 1.6회로 5개 시군이고, 낮은 시군은 금산군 1.2회, 천안시·청양군 1.3회, 아산시·예산군 1.4회로 나타났다.
- 참여 횟수별로는 1회가 전체 68.8%인데 이보다 높은 시군은 금산군 86.3%, 천안시 75.7%, 청양군 74.9%, 아산시 73.9%, 예산군 71.6% 등 5개 시군이고, 2회는 전체 21.9%로서 이보다 높은 시군은 부여군 39.4%, 서천군 30.0%, 서산시 28.6%, 홍성군 26.3%, 태안군 23.6%, 공주시 22.9% 등 6개 시군이다.
- 그리고, 3회 이상은 전체 6.3%보다 높은 시군은 태안군 10.7%, 부여군 9.1%, 서천군 8.6%, 서산시 8.5%, 보령시 8.4%, 공주시와 홍성군 7.9%, 계룡시 7.1%, 당진시 6.9%, 예산군 6.6% 등 10개 시군이다. 4회 이상은 전체 3.0%인데 이보다 높은 시군은 논산시 7.8%, 계룡시 6.9%, 부여군과 홍성군 5.1%, 당진시 4.9%, 공주시 4.5%, 보령시 4.3%, 아산시 4.2%, 예산군 4.1%, 서천군 3.4% 등 10개 시군이다.
- 충남도민은 지역축제에 3회 및 4회 이상 참여 경험이 전체 응답 비율은 낮지만 각각이 10개 시군에서 응답하여 일부 도민들은 지역내 축제를 다수 방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23>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 방문 횟수

(단위: 명, %, 회)

구분		응답자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계	▶평균◀
전체		7,156	68.8	21.9	6.3	3.0	100.0	1.5
권역별	북부권	1,590	72.4	20.8	5.0	1.8	100.0	1.4
	서해안권	953	63.4	24.3	8.9	3.4	100.0	1.6
	내륙권	3,367	66.6	21.8	7.3	4.3	100.0	1.5
	금강권	1,246	63.9	25.2	6.5	4.4	100.0	1.5
시군별	천안시	698	75.7	19.7	3.7	0.9	100.0	1.3
	공주시	1,013	64.7	22.9	7.9	4.5	100.0	1.5
	보령시	262	68.8	18.5	8.4	4.3	100.0	1.5
	아산시	209	73.9	16.2	5.8	4.2	100.0	1.4
	서산시	438	61.0	28.6	8.5	2.0	100.0	1.5
	논산시	196	66.1	20.4	5.7	7.8	100.0	1.6
	계룡시	385	68.1	17.9	7.1	6.9	100.0	1.6
	당진시	245	68.9	19.3	6.9	4.9	100.0	1.5
	금산군	527	86.3	9.2	3.6	1.0	100.0	1.2
	부여군	523	46.4	39.4	9.1	5.1	100.0	1.8
	서천군	529	58.0	30.0	8.6	3.4	100.0	1.6
	청양군	975	74.9	18.0	5.5	1.6	100.0	1.3
	홍성군	511	60.7	26.3	7.9	5.1	100.0	1.6
	예산군	483	71.6	17.7	6.6	4.1	100.0	1.4
	태안군	162	64.2	23.6	10.7	1.5	100.0	1.6

Base: 지역축제 방문 경험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의 전국 시도 지역축제 방문지

- 지역축제 방문 경험자의 지역축제 방문지는 충남지역내가 94.3%이었고, 충남외 시도 지역축제가 13.5%였다.
- 권역별로는 충남도내 축제방문 경험이 전체 94.3%보다 높은 지역은 내륙권 95.9%와 금강권 95.0%이다. 충남외 방문지 경험이 전체 13.5%보다 높은 지역은 서해안권 19.2%와 북부권 14.7%였다.
- 시군별로 충남도내 축제방문 경험이 전체 94.3%보다 높은 시군은 청양군 99.0%, 예산군 97.7%, 부여군 97.5%, 공주시 95.8%, 천안시 95.7%, 금산군과 서천군 94.6%로 7개 시군이다.
- 그리고, 충남 외 축제 방문 경험은 전체 13.5%보다 높은 시군은 아산시 26.4%, 서천군 23.1%, 당진시와 태안군 18.3%, 논산시 17.0%, 서산시 15.5%, 보령시 15.3%, 홍성군 14.8%로 8개 시군이다.

<표 3-24>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전국 시도 지역축제 방문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충남	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	대전/세종/충북	광주/전북/전남	대구/경북/경남	강원/제주	충남 (①) 방문 경험 있음	충남 외 (②~⑦) 방문 경험 있음	무응답
전체		7,156	127.5	4.3	1.4	3.5	3.6	1.2	3.3	94.3	13.5	0.2
권역별	북부권	1,590	119.3	4.8	1.6	2.8	3.5	1.3	3.8	93.5	14.7	0.0
	서해안권	953	128.0	7.3	1.8	4.3	7.5	0.5	3.2	92.9	19.2	2.1
	내륙권	3,367	136.3	3.3	1.2	3.7	2.0	1.0	3.4	95.9	10.6	0.0
	금강권	1,246	137.5	2.4	0.7	5.3	5.3	2.2	0.9	95.0	11.5	0.0
시군별	천안시	698	116.9	4.1	0.9	2.4	2.2	0.6	3.1	95.7	12.1	0.0
	공주시	1,013	138.6	3.6	1.0	4.6	1.7	0.8	3.3	95.8	11.4	0.0
	보령시	262	130.5	6.0	0.8	5.8	7.0	0.0	1.0	92.5	15.3	0.0
	아산시	209	111.0	7.0	3.5	4.3	7.1	0.5	9.1	83.0	26.4	0.0
	서산시	438	133.6	5.3	0.9	2.8	3.5	2.9	3.5	93.4	15.5	0.0
	논산시	196	135.6	1.0	0.0	2.1	15.8	6.1	2.1	90.6	17.0	0.0
	계룡시	385	138.0	3.0	1.4	5.5	1.8	1.6	4.6	91.5	13.6	0.0
	당진시	245	119.5	6.6	4.6	3.9	8.3	4.0	3.4	89.9	18.3	0.0
	금산군	527	105.8	1.1	0.5	6.9	2.9	2.3	0.1	94.6	10.8	0.0
	부여군	523	161.8	4.0	1.1	5.7	1.6	0.2	0.9	97.5	9.2	0.0
	서천군	529	129.9	7.3	2.0	3.4	8.4	0.7	6.6	94.6	23.1	1.2
	청양군	975	126.0	2.7	0.6	2.6	0.8	0.2	1.6	99.0	6.7	0.0
	홍성군	511	136.9	3.5	2.8	3.6	4.0	2.5	6.6	94.1	14.8	0.0
	예산군	483	136.8	3.1	0.3	1.7	1.5	0.0	0.5	97.7	5.4	0.0
	태안군	162	117.8	10.2	3.7	2.9	6.2	1.1	0.0	89.9	18.3	8.7

Base: 지역축제 방문 경험자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성별 및 연령별 시군 지역축제 방문지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 방문지는 전체적으로 천안시 31.1%, 공주시 20.8%, 부여군 13.6%, 서산시 10.4%, 홍성군 8.2%, 예산군 7.9%, 보령시 6.1%, 태안군 5.7%, 금산군 5.4%, 서천군 5.2%, 당진시 4.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성별로는 남자는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등 11개 시군이 전체 응답률보다 높았고, 여자는 천안시, 홍성군, 예산군 등 3개 시군의 응답률이 높았다.
- 연령별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은 방문지는 15~19세는 보령시 8.6%, 서산시 14.0%, 계룡시 5.2%, 서천군 6.8%, 청양군 8.5%, 홍성군 17.0% 6개 시군이다. 20대는 공주시 24.7%, 보령시 10.1%, 서천군 6.0%, 청양군 8.8%, 홍성군 8.3% 5개 시군이며, 30대는 천안시 38.9%, 아산시 5.1%, 서산시 13.1%, 당진시 5.0%, 태안군 6.4% 등 5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 40대는 천안시 35.6%, 아산시 4.5%, 서산시 12.8%, 계룡시 3.9%, 태안군 6.9% 5개 시군이며, 50대는 천안시 33.9%, 보령시 6.3%, 아산시 3.6%, 논산시 4.6%, 계룡시 2.5%, 당진시 5.0%, 금산군 7.1%, 부여군 15.7%, 홍성군 9.9%, 예산군 8.5% 등 10개 시군이다. 60세 이상은 공주시 21.4%, 논산시 4.4%, 금산군 6.9%, 부여군 15.1%, 서천군 7.1%, 청양군 7.6%, 예산군 9.8% 7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표 3-25> 충남도민의 성별 및 연령별 시군 지역축제 방문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체		6,804	31.1	20.8	6.1	3.5	10.4	3.9	2.4	4.3	5.4	13.6	5.2	6.6	8.2	7.9	5.7
성별	남성	3,195	30.6	21.3	6.9	3.8	10.6	4.0	2.4	4.5	5.6	14.0	5.4	7.3	8.0	7.8	5.9
	여성	3,609	31.7	20.3	5.4	3.1	10.2	3.7	2.3	4.1	5.3	13.2	5.0	6.0	8.4	8.0	5.5
연령별	15~19세	168	16.4	18.5	8.6	2.2	14.0	0.7	5.2	2.6	3.7	8.6	6.8	8.5	17.0	6.2	3.6
	20대	308	30.4	24.7	10.1	1.1	5.7	2.6	0.9	2.4	3.1	12.3	6.0	8.8	8.3	5.3	4.4
	30대	537	38.9	19.9	5.5	5.1	13.1	3.0	2.3	5.0	3.1	11.4	3.6	5.1	8.0	6.0	6.4
	40대	1,034	35.6	19.0	5.9	4.5	12.8	3.8	3.9	4.0	4.3	11.8	3.5	5.1	8.1	6.9	6.9
	50대	1,406	33.9	20.8	6.3	3.6	9.2	4.6	2.5	5.5	7.1	15.7	4.3	6.3	9.9	8.5	6.2
	60세 이상	3,351	24.8	21.4	5.0	2.9	9.6	4.4	1.5	4.1	6.9	15.1	7.1	7.6	6.2	9.8	4.8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 권역 및 시군별 시군 지역축제 방문지

- 권역별로는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은 권역은 북부권의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등이고, 서해안권은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등이다. 내륙권은 공주시, 계룡시,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등이며, 금강권은 논산시, 금산군, 부여군 등으로 나타났다.
- 시군별로는 15개 시군에서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축제장을 가장 많이 방문하였으나 이 중 타 시군에 비하여 응답률이 낮은 시군은 아산시 37.0%인데 아산시는 천안시 26.2%와 공주시 20.3%로의 축제장 방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6> 충남도민의 권역 및 시군별 시군 지역축제 방문지(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응답자수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무응답
전체		6,804	31.1	20.8	6.1	3.5	10.4	3.9	2.4	4.3	5.4	13.6	5.2	6.6	8.2	7.9	5.7	0.0
권역별	북부권	478	62.2	7.0	2.9	6.3	19.6	1.1	0.6	8.4	2.1	3.9	0.6	2.4	2.3	2.5	5.6	0.0
	서해안권	885	3.3	6.4	35.3	0.2	1.8	1.0	0.0	0.7	1.6	8.1	52.6	3.6	2.1	0.7	20.2	0.1
	내륙권	3,247	2.7	50.6	4.2	1.1	2.3	2.9	5.9	0.5	1.7	8.4	0.6	15.1	21.6	20.9	3.4	0.0
	금강권	1,194	1.1	7.3	3.0	0.5	1.0	19.8	1.8	0.5	31.8	71.2	1.2	3.4	0.7	0.3	1.3	0.0
시군별	천안시	671	89.4	7.5	2.6	4.2	0.4	0.8	0.8	0.6	2.5	3.9	0.6	2.2	2.3	1.6	2.6	0.0
	공주시	975	4.5	109.7	5.1	1.2	0.2	3.7	1.3	0.4	2.4	9.8	0.5	2.3	0.1	1.1	2.3	0.0
	보령시	239	5.4	10.7	84.8	0.0	3.3	0.7	0.0	1.0	1.9	16.1	1.6	5.9	5.3	0.8	3.6	0.0
	아산시	176	26.2	20.3	7.3	37.0	4.5	4.1	0.0	5.4	2.2	7.6	0.5	3.3	3.9	5.1	6.4	0.0
	서산시	407	4.2	0.9	1.8	0.4	106.6	1.0	0.0	1.6	0.0	3.7	0.3	3.3	1.5	3.6	14.2	0.0
	논산시	179	2.0	10.4	3.3	0.9	1.3	81.2	5.3	0.0	5.9	28.2	2.3	5.0	1.8	0.0	2.0	0.0
	계룡시	351	4.1	15.6	5.9	0.7	1.5	17.1	81.4	0.0	3.9	12.5	2.0	1.3	2.2	0.2	2.2	0.0
	당진시	224	9.1	2.4	3.1	3.2	13.1	0.5	0.9	77.4	2.9	1.2	1.4	1.3	2.1	3.7	10.7	0.0
	금산군	500	0.9	5.3	2.3	0.7	1.3	1.8	1.1	0.2	93.0	3.2	0.0	0.9	0.2	0.2	0.8	0.0
	부여군	515	0.8	7.2	3.4	0.2	0.6	3.3	0.7	0.8	0.6	140.0	1.5	4.5	0.5	0.5	1.2	0.0
	서천군	500	2.1	2.3	4.1	0.2	0.2	1.2	0.0	0.2	1.7	3.4	119.7	0.4	0.0	0.6	1.2	0.0
	청양군	966	1.1	10.0	3.4	0.2	0.3	0.7	0.2	0.3	1.0	10.5	0.3	93.9	1.8	2.0	1.5	0.0
	홍성군	483	0.0	5.0	4.8	0.4	5.2	0.0	1.1	0.2	1.4	7.6	0.9	4.4	94.4	13.6	6.5	0.0
	예산군	472	2.2	2.9	1.2	2.5	6.0	0.9	0.6	1.5	0.5	2.7	0.0	2.7	9.9	102.2	4.3	0.0
	태안군	146	1.7	6.9	0.9	0.4	2.2	1.2	0.0	1.2	1.0	1.9	0.4	6.6	0.0	0.5	105.5	0.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전체적으로는 만족 49.1%로 절반 정도이고, 보통은 40.2%, 불만족은 10.6%로 응답하였다.
- 권역별로 전체 만족 49.1%보다 높은 지역은 북부권 50.2%, 서해안권 49.9%, 금강권 49.8% 등으로 응답하여 내륙권을 제외하고는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불만족은 전체 10.6%보다 높은 권역으로 북부권 11.2%, 금강권 10.9%로 응답하였다.
- 시군별로는 전체 만족 49.1%보다 높은 시군은 예산군 60.2%, 서천군 59.1%, 부여군 58.6%, 아산시 55.1%, 천안시 51.2%, 청양군 49.2% 등이었고, 반면, 전체 불만족 10.6%보다 높은 시군은 당진시 16.4%, 금산군 16.1%, 청양군 13.2%, 공주시 12.7%, 아산시 12.4%, 천안시 11.9% 등으로 분석되었다.

<표 3-27> 충남도민의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명, %)

구분		응답 자수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불만족 (①+②)	보통 (③)	만족 (④+⑤)	계
전체		10,429	1.7	8.9	40.2	36.3	12.9	10.6	40.2	49.1	100.0
권역별	북부권	2,236	2.2	9.0	38.6	38.8	11.4	11.2	38.6	50.2	100.0
	서해안권	1,403	1.0	7.0	42.1	37.0	12.9	8.0	42.1	49.9	100.0
	내륙권	4,970	1.2	9.3	42.3	32.3	14.9	10.5	42.3	47.2	100.0
	금강권	1,820	1.8	9.1	39.3	36.9	12.9	10.9	39.3	49.8	100.0
시군별	천안시	908	2.5	9.4	37.0	39.8	11.4	11.9	37.0	51.2	100.0
	공주시	1,558	0.7	12.0	43.5	32.0	11.8	12.7	43.5	43.8	100.0
	보령시	391	1.5	7.0	48.6	32.4	10.4	8.6	48.6	42.9	100.0
	아산시	297	3.2	9.2	32.5	38.7	16.3	12.4	32.5	55.1	100.0
	서산시	671	0.3	4.9	46.5	40.5	7.8	5.2	46.5	48.3	100.0
	논산시	315	2.6	9.9	42.0	28.8	16.7	12.5	42.0	45.5	100.0
	계룡시	618	2.1	10.5	49.5	31.1	6.7	12.7	49.5	37.8	100.0
	당진시	360	3.0	13.5	40.2	30.1	13.3	16.4	40.2	43.4	100.0
	금산군	627	2.8	13.3	47.8	26.6	9.5	16.1	47.8	36.1	100.0
	부여군	878	0.9	6.7	33.8	45.8	12.8	7.6	33.8	58.6	100.0
	서천군	792	0.3	7.6	33.0	45.9	13.2	7.9	33.0	59.1	100.0
	청양군	1,305	1.4	11.7	37.6	35.0	14.2	13.2	37.6	49.2	100.0
	홍성군	812	1.3	6.7	45.6	30.9	15.5	8.0	45.6	46.4	100.0
	예산군	677	2.0	3.0	34.8	33.6	26.7	4.9	34.8	60.2	100.0
	태안군	220	1.4	5.6	50.9	24.5	17.5	7.0	50.9	42.1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전체적으로 행사내용 부실 31.8%, 주차장 부족 27.0%,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 12.9%, 행사운영 미숙 11.7%, 대중교통 불편 6.7%, 편의시설 부족 6.4%, 기타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권역별로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은 지역은 북부권은 행사내용 부실 32.1%,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 13.4%, 행사 운영 미숙 12.1% 등이다. 서해안권은 대중교통 불편 10.5%이고, 내륙권은 행사내용 부실 31.9%, 주차장 부족 28.0%,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 13.0%, 행사 운영 미숙 12.5%, 편의시설 부족 7.4%이며, 금강권은 주차장 부족 27.2%, 대중교통 불편 8.1%, 편의시설 부족 9.8% 등이다.
- 시군별로는 전체 응답 비율보다 높은 시군은 행사내용 부실은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등이었고, 주차장 부족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부여군, 청양군 등이 높았다.
-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은 천안시, 서산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등이며, 행사 운영 미숙은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당진시, 예산군, 태안군 등이 높았다.
- 대중교통 불편은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등이고, 편의시설 부족은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등이 높았다.

<표 3-28> 충남도민의 권역 및 시군별 지역축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단위: 명, %)

구분		응답자 수	행사내용 부실	주차장 부족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	행사 운영 미숙	대중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기타	무응답	계
전체		1,057	31.8	27.0	12.9	11.7	6.7	6.4	3.2	0.4	100.0
권역별	북부권	238	32.1	26.3	13.4	12.1	6.2	5.1	4.8	0.0	100.0
	서해안권	113	31.6	26.7	11.4	10.1	10.5	4.7	4.4	0.6	100.0
	내륙권	511	31.9	28.0	13.0	12.5	5.9	7.4	1.2	0.1	100.0
	금강권	195	30.3	27.2	11.9	9.0	8.1	9.8	1.4	2.3	100.0
시군별	천안시	109	29.8	30.8	13.7	10.1	8.3	5.2	2.2	0.0	100.0
	공주시	184	26.1	31.8	10.3	14.8	7.5	8.1	1.3	0.0	100.0
	보령시	32	22.7	45.5	4.0	10.4	9.3	3.6	4.4	0.0	100.0
	아산시	39	51.3	9.2	4.5	17.7	2.5	9.2	5.7	0.0	100.0
	서산시	36	26.6	13.4	33.3	10.4	0.0	0.0	16.3	0.0	100.0
	논산시	40	14.8	44.2	7.9	11.0	6.2	7.6	0.0	8.3	100.0
	계룡시	79	44.0	12.7	12.1	12.7	8.1	3.5	5.7	1.2	100.0
	당진시	54	30.5	27.2	7.8	17.0	4.0	4.9	8.5	0.0	100.0
	금산군	97	44.2	10.1	12.3	10.9	15.2	5.4	2.0	0.0	100.0
	부여군	58	27.8	32.1	14.6	5.4	2.0	16.1	2.0	0.0	100.0
	서천군	64	46.2	17.5	11.2	3.9	13.8	7.4	0.0	0.0	100.0
	청양군	158	34.7	38.8	9.7	7.6	5.5	3.1	0.4	0.0	100.0
	홍성군	61	43.8	19.4	18.7	6.9	0.0	11.2	0.0	0.0	100.0
	예산군	29	26.8	16.4	25.9	18.1	6.2	6.6	0.0	0.0	100.0
	태안군	17	13.9	0.0	33.2	27.3	4.2	0.0	17.1	4.2	100.0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6) 분석의 시사점

▶ 여가문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 정책이 필요

- 도민 여가문화 시간과 삶의 변화로 일과 여가의 균형, 고령화와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의 증가 등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여가 형태에 따라 수요자 욕구에 맞는 여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제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국민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책무를 지니고 있으므로 충청남도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행해야 한다.

▶ 여가시간의 연령계층별 이용정책과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의 만족도 제고방안 모색

- 충남도민들의 여가시간 만족도에서 젊은 학생층과 30대 및 40대에서 여가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이들 계층에 대한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 여가활동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저소득층에서 보통과 불만족도가 높아 이들을 위한 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충남도민의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시군간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 도민들의 여가활동별 참여 여부는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국내관광/여행 활동,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이 시군별로 격차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 도민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에 대한 내륙권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활동에 대한 참여 만족도가 4개 권역 중 내륙권이 가장 낮았고, 시군에서도 3개 시군이 40%대로 낮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어 이에 대한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도민 문화예술 관람/참여의 시군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

- 도민들의 문화예술 관람/참여는 서해안권과 내륙권의 만족도가 낮으며, 시군별로도

전체 만족 63.2% 응답 비율보다 낮은 40%대의 시군에 대하여 관람/참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 도민의 스포츠 관람/참여의 지역별 만족도 제고 정책 마련과 추진

- 도민들의 스포츠 관람/참여도에서 권역별로는 내륙권이, 시군별로는 4개 시군이 전체 만족 응답 비율보다 낮게 나타나 직접 스포츠를 관람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추진이 요구된다.

▶ 도민 국내 및 해외 관광/여행활동의 만족도 제고 방안과 활성화 정책 추진

- 국내관광/여행 활동의 만족도가 4개 권역 중 내륙권이 가장 낮고, 15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관광 여행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 해외관광/여행 활동의 만족도도 4개 권역중 내륙권이 가장 낮고, 15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낮은 응답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중에는 도시지역에서 40%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해외여행의 경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만족도가 낮은 시군에 대한 대응 방안과 정책이 요구된다.

▶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연령 및 소득별, 지역별 정책공급 강화

- 도민 연령계층별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에 있어서는 30대, 문화예술 관람/참여과 스포츠 관람/참여는 젊은층, 국내관광/여행 활동은 20대~40대, 해외관광/여행 활동은 젊은층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소득수준별로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은 고소득층, 문화예술 관람/참여와 스포츠 관람/참여뿐만 아니라 국내관광/여행 활동 및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서 연령 및 소득별, 권역 및 시군별로 여가문화 정책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

▶ 충남도민들의 권역별 및 시군별 축제참여 경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의 참여 경험은 '없다' 응답이 75.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연령별로는 학생과 젊은층, 소득 수준에서는 저소득층에서 축제 방문 경험의 비율이 낮았으므로 축제 참여 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불만족 요인에 대한 지역별 개선방안 모색

-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전체적으로 행사내용 부실, 주차장 부족, 행사시설이나 준비 부족, 행사 운영 미숙, 대중교통 불편, 편의시설 부족 등이었으며, 권역 및 시군별로 축제의 불만족 요인이 각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4. 충남 여가문화관광정책의 추진과제

1)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충남 여가문화 육성정책 추진

▶ 충남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생활을 위한 도정 방향의 선정

- 여가시간 및 소득의 증가로 일과 여가에 대한 균형과 여가문화의 중요성이 날로 확대되고 있으며,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충남의 여가문화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충청남도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사회를 준비하면서 국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하여 정부의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제정)에 따라 5년마다 충남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가문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는 여가문화 지원정책 강화

▶ 저출산, 고령화 등 도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지원정책을 집중 추진

- 여가시간의 연령계층별 및 여가활동 만족도의 소득계층별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젊은층과 학생층, 노년층 등에서 시간 부족과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이들 취약계층을 위한 여가문화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3) 충남 지역별 균형있는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산업 육성

▶ 여가문화활동의 지역간 양극화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

- 여가문화활동의 참여에서도 충남의 4대 권역별 및 시군별로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여가문화활동의 유형에 따라서 시설공간과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4) 도민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통합화 및 연계 정책의 추진

▶ 여가문화활동 유형에 따라 통합형 여가활성화와 연계 정책 추진

- 도민들의 여가활동은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 문화예술 관람/참여, 스포츠 관람/참여, 국내관광/여행 활동, 해외관광/여행 활동 등인데, 이들 업무는 각각의 유형에 따라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시군에서 각각 다른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충남 사회조사에서는 통합적으로 매년 조사하여 분석, 연구하고, 충남도의 관련 실국과 시군에서는 연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도민의 향후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의향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 강화

- 도민들의 여가활동은 유형별로 연령 및 소득, 권역 및 시군별로 각각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들 수요를 고려한 여가문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5) 충남 지역축제의 도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도민들의 지역축제 참여 경험과 주민주도형 축제 주도의 인적역량을 제고

- 도민의 지역축제 참여 경험이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 학생과 젊은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축제 경험 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또한, 행사내용과 행사시설이나 행사운영 등의 운영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주도형 축제 준비와 행사 운영에 대한 참여의식과 인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5. 결론 및 정책 제언

▶ 행복한 우리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가문화의 활성화와 정책의 중요성 증대

- 행복과 여가문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도민들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현황 조사와 실태분석을 통한 여가문화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정책과제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 중앙정부에서도 국민여가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정책을 추진

- 정책적으로도 주 5일제 근무 및 수업제의 도입, 고령사회 및 백세시대의 도래 등에 따른 여가 수요의 증가에 대해, 정부 여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되고 있다.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2015.5.18. 제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일환으로 여가권을 폭넓게 보장하려 시도하고 있다.

▶ 충남 여가문화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여가문화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충청남도의 대응 정책이 필요,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정에 따른 충청남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 등이 필요하다.
- 여가시간의 연령계층별 이용정책과 소득계층별 여가활동의 만족도 제고방안 모색, 충남도민의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시군간 격차에 대한 해소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도민의 외식/취미오락/휴식/사회 활동에 대한 내륙권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도민 문화예술 관람/참여의 시군별 만족도 차이에 대한 지원방안 추진, 도민의 스포츠 관람/참여의 지역별 만족도 제고 정책 마련과 추진 등이 필요하다.
- 도민 국내 및 해외관광/여행 활동의 만족도 제고 방안과 활성화 정책 추진, 향후 1년내 여가문화활동 참여 의향에 대한 연령 및 소득별, 지역별 정책공급 강화 등이 필요하다.
- 충남도민들의 권역별 및 시군별 축제 참여 경험 확대와 활성화가 필요하며 충남도민의 지역축제에 불만족 요인에 대한 지역별 개선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 충남 여가문화관광 정책의 추진과제 제시

- 더 행복한 도민을 위한 충남 여가문화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충남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행복한 생활을 위한 도정 방향의 선정과 충청남도 여가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실행사업을 추진한다.

-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에 대응하는 여가문화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저출산, 고령화 등의 도민 수요자 특성에 맞는 여가활동 지원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 충남 지역별 균형있는 여가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여가문화활동의 지역간 양극화의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한다.
- 도민 여가문화활동 유형별 통합화 및 연계 정책의 추진을 위해 여가문화활동 유형에 따라 통합형 여가활성화와 연계 정책 추진과 도민의 향후 1년간 여가문화활동 참여 의향의 수요에 적합한 정책을 강화한다.
- 충남 지역축제의 도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도민들의 지역축제 참여 경험과 주민주도형 축제 주도의 인적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참고자료

충청남도(2020). 충남 사회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관광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향유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9). 국민여행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2016).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운소영(2019). 여가행복지수 적용 및 활용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회통합과 공동체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4. 충남 도민의 지역공동체 활동 인식과 정책방향

요 약

전 지 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basillica@cni.re.kr

-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지역공동체의 정책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공동체 인식이나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가 미흡하다는 배경에서 출발함

- 충청남도 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 계층 등 도민 특성별 공동체 인식과 수요와 실태를 제시하고자 하였음

- 분석 결과 취약계층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나 공동체 활동의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무엇보다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수요 충족을 위해 관련된 지역공동체 활동의 정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북부 도시지역은 주민간 친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지원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지역공동체와는 다른 공동체 활동 수요 발굴이 필요함

- 그리고 공동체 활동 유무에 따라 지역의 삶의 만족도 차이가 유의미한데, 공동체 활동 수행에 따라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거주하는 지역 생활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음. 따라서 도민의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는 지역에서 행복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 추진 필요성이 제기됨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역공동체 활동은 주민들에 의한 가장 직접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주민의 행복과 같은 정책의 효능감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급속한 경제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삶은 윤택해지고 소득 수준은 높아졌으나 소득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병리 현상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증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과 한계들에 직면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에서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공동체성과 사회적 가치를 상실하고 사회적 양극화, 자살 등의 부작용이 만연하게 된 점에 대해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는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거론하면서 최근에는 시민사회와 공동체와 같은 제3섹터의 역할이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주민들의 참여 활동과 이러한 활동들의 조직적 형태인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정책적 관심이 집중되게 하였는데 이는 정부 정책활동의 대안적 형태로 지역공동체가 지역사회의 수요 충족에 효과적인 주체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참여정부 이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과 이들을 활용한 지역 문화 해결의 정책활동 형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다.

이후 충남에서도 지역공동체 발굴 육성을 위해 15개 이상의 다양한 부서에서 정책사업을 진행해왔다. 지역공동체 활동은 경제, 문화, 농촌, 도시 등 모든 영역에서 주민들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충청남도내 공동체지원국이 개설되면서 공동체 관련된 컨트롤타워가 생겼고, 공동체의 정책 수립과 함께 사회적경제 등의 관련 조직들의 정책지원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충청남도의 지역공동체 정책지원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이나 실제 공동체 정책활동에 대한 필요성의 면밀한 조사분석 수요 파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충남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사회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보다 세밀한 기준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충남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현재 충청남도에서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조사연구 및 현황 파악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족하다. 2018년 충남연구원에서 충남의 공동체 정책의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충청남도 공동체 정책사업의 현황과 지원방향의 연구'에서 충남의 공동체 정책과 함께 관련 조직현황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이나 이후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필요성 및 인식에 관한 충남 차원의 연구 활동은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배경에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 공동체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위해 보다 면밀한 지역공동체 활동의 도민 인식과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충남 도민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요와 인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 계층, 소득 등 다양한 도민들의 영역별 특성을 구분하여 현황과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나아가 실제 이러한 공동체 활동에 따른 실제 주관적인 행복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공동체에 대한 도민의 활동 현황과 인식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공동체 지원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현황

1)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구성요소

지역공동체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며 다원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편적이고 명확한 개념 정립은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에 대한 개념은 공동체라는 특성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요인들에 의해 구체화 되는 경향성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Hillery(1955)는 지역공동체에 대해 지리적 영역, 구성원간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이라는 3가지 특징적인 요인들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보았으며 현재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역성의 요인이 점차 감소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상호작용의 속도도 매우 빨라지고 있다(강대기, 2004). 이러한

배경에 따라 최근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호작용의 정도와 빈도로 인한 공동의 유대감 및 소속감, 공통적인 의식 등의 공동체성의 정서적 부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Brint, 2001). 특히 현대사회 공동체는 개인적 친밀감, 사회적 응집력, 정신적 관여, 연속성과 동감과 같은 감정적 깊이 등 요인들을 비중 있게 다루어 왔다(신예철, 2012). 이에 따른 20세기 이후 공동체에 대한 구성요인의 변화는 다음 표와 같다.

<표 4-1> 공동체 구성요인의 변화

구성 요인	전통적 성향	현대적 성향
지리적 공간	폐쇄된 물리적 시공간 요인	교통.통신기술발달과 사이버공간 등장으로 개방성 확대
상호작용	공동선에 근거한 대면적 관계	자율성 기반한 개방적.수평적 교류
유대감	관습과 도덕의 규범체계	상호호혜성 강화 및 다양성 존중

자료: 강대기(2003: 30) 인용

그리고 이와 함께 지역공동체 활동이 공공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수요 충족 및 문제 해결의 주체로 활동하게 되면서 단순히 소수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지역 구성원 및 다수의 공공성을 위한 활동 특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동의 목적이 주민들로 구성된 공동체 편익을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사업의 이윤에 대해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공익성의 요인이 공동체 활동의 의의로서 강조된다. 따라서 공동체 활동은 주민 자체의 복리 증진이나 지역적 차원의 삶의 질 강조가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공익성은 지역공동체의 특성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하현상, 2017; 전지훈, 2018).

2) 공동체와 지원정책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지역공동체의 정책적 관심과 주목은 1970년대까지 복지국가의 실패와 20세기까지 이어진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시장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제3섹터가 부상하게 된 배경에서 출발한다. 결국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역할이 사회 문제 해결에서 중요하게 부상하였으며 이는 과거 행정과 정책서비스 자체가 지나치게 효율성과 효과성에 치중하면서 인간과 사회의 활동에 대한 가치의 상실에 대한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행정 분야에서 지역공동체(커뮤니티)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구심점이 될 수단이자 통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마을 및 지역공동체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증가하는 관심과 정책활동은 이를 증명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박정윤 외, 2013). 결국 현대사회의 다양한 한계와 병리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공동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에서도 핵심 주체로 부상하였고 이에 대한 정책적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서재호, 2012).

결국 정부에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소,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신뢰 및 관계를 통한 진정한 주민 행복과 삶의 질 구현과 같은 사회적 측면의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시도이며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정책활동 수행의 수단적 측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지역공동체의 지원정책은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며 공동체의 활성화는 지역의 자생적인 발전 전략을 토대로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통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의 동원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한상일, 2010; 최인수, 2014).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충남 도민들이 사회의 구성원 및 마을(동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참여에 대한 욕구와 같은 공동체 지향성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의 기본적인 역량이 필수적이다. 지역공동체 조직은 자발적이고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성에 기반한 네트워크에 의해 형성되고 활동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에 대한 의식, 지역에서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지향성,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신뢰의 구축과 같은 요인들은 충남에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고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3.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인식

1) 지역공동체의 필요성

충남 도민들의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에 충남도민들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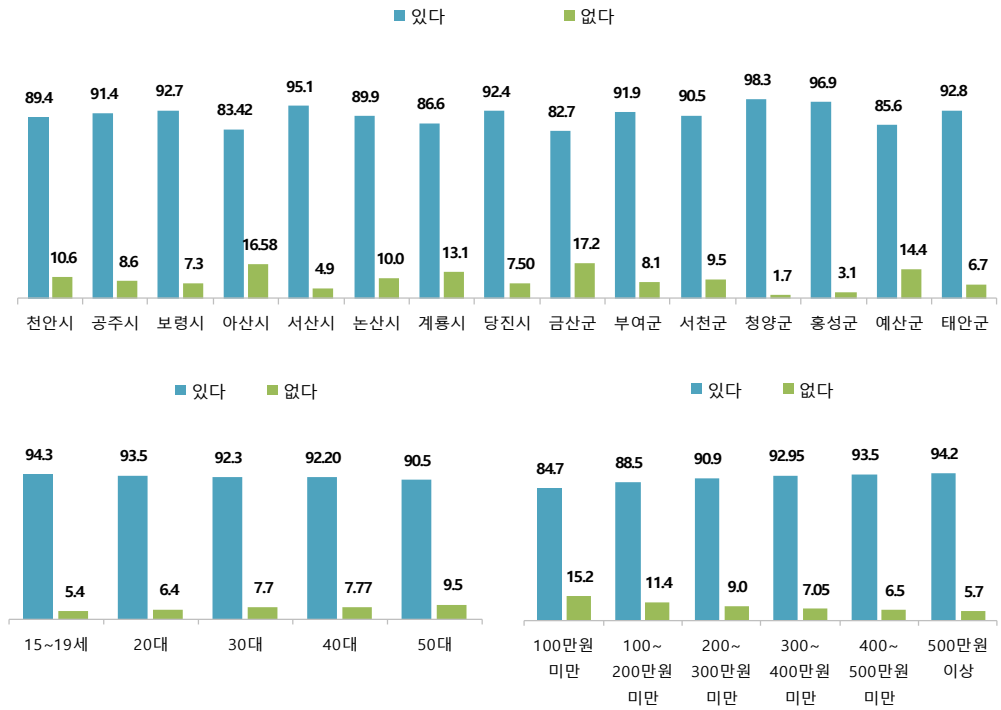
우선 전체적으로 충남도민은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인식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는 90%의 도민이 있다고 대답하여 대부분 사회적 관계에 의한 안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산군, 아산시, 예산군 순으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비중이 다른 시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청양군, 홍성군, 서산시는 도움 받을 사람이 있다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사회의 안전망 인식이 높고 고령일수록 안전망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령화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충남에서 고령자들을 위한 공동체적 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리고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비중이 높지만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울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비중이 낮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소득이 낮고 고령의 취약계층일수록 사회적 관계에 의한 안전망도 취약하다는 인식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공공차원의 정책적 접근 방향이 필요하다.

<그림 4-1>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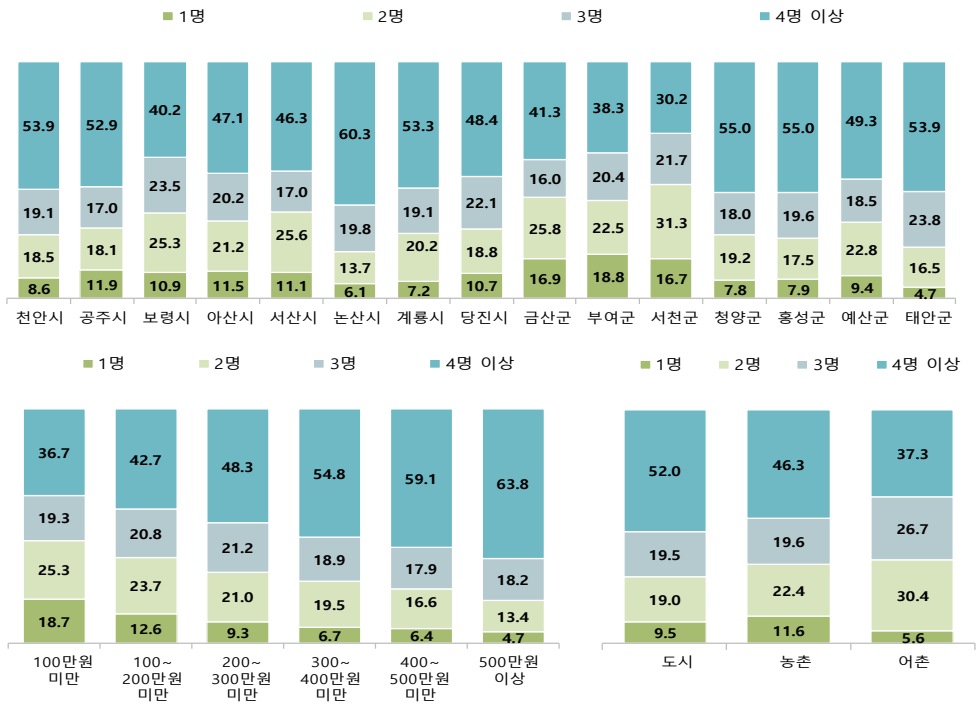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다음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규모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관계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을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는 평균 4.76명으로 4명 이상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48.7%로 나타났으나 1명이라는 응답도 10.6%로 나타났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4명 이상이라는 응답은 논산시, 홍성군, 청양군, 태안군, 천안시 순으로 높은 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라는 응답은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순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소득 수준으로 살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은 응답자일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응답하였고 100만원의 미만의 저소득층일수록 1명의 비율이 크고 4명 이상의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일수록 관계적 안전망의 인식도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공공정책의 방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특성을 보면 농어촌보다 도시지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촌에서는 4명 이상의 응답도 가장 낮지만 1명이라는 응답도 가장 낮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2> 어려울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 규모

(단위: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2) 지역공동체 활동의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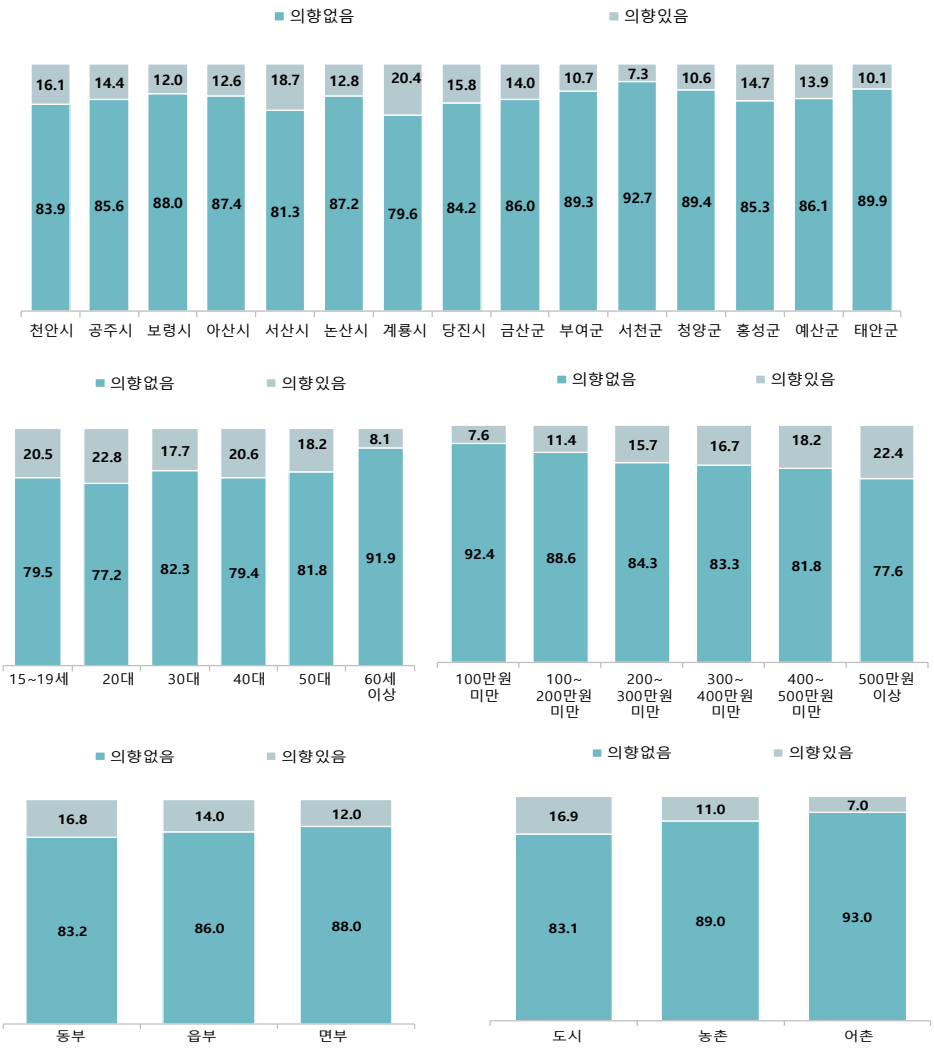
충남 도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관심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활동 수요를 조사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충남도민은 공동체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할 의향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의향 없음'이 86.0%, '의향 있음'이 14.0%로 나타났다. 아직 생활 속에서 공동체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은 이에 대한 효과 및 장점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여 이에 따른 정책적 인식 제고와 홍보의 측면이 요구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본 응답은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응답률이 높은 한계는 있지만 새롭게 공동체 활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도민들의 수요 파악에 의의가 있다.

시군의 차원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계룡시, 서산시, 천안시, 당진시와 같은 도시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의 수요가 다소 높음을 알 수 있고 서천군, 태안군, 청양군 순으로 필요성이 높지 않다. 연령의 기준으로 보면 10대의 젊은 연령일수록 공동체 활동의 의향이 높으나 60세 이상의 고령화 될수록 공동체 활동의 의향이 없다는 특징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소득적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일수록 공동체 활동의 의향이 없고 월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일수록 공동체 활동의 의향이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생계 활동 및 경제활동 중심으로 생활의 패턴이 이루어져 있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으며 공공에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위한 소득에 따른 공동체 활동의 정책적 접근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충남의 도시 및 농어촌의 복합적인 광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응답을 살펴보았다. 우선 도시지역의 동부와 농어촌의 읍 및 면부 간에 다소간 응답의 차이가 있다. 동부의 경우 공동체 활동 의향이 다소 높게 나온 반면 비도시지역이라 할 수 있는 면부는 공동체 활동의 의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비교해 본 결과 도시의 공동체 활동 의향이 가장 높고 상대적으로 농어촌은 낮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익명성이 높은 도시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의 욕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며 농어촌은 기존의 공동체 활동이 존재함과 앞서 살펴본 고령화될수록 공동체 욕구가 낮아지는 결과와 상통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3> 도민들의 지역공동체 활동 의향

(단위: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3) 지역공동체 활동의 현황

충남 도민들이 현재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충남 도민들은 전체적으로 공동체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응답이 44.9%이며 가입된 공동체조직이 없다는 응답은 55.1%를 보이고 있어서 절반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청양군,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순으로 공동체 활동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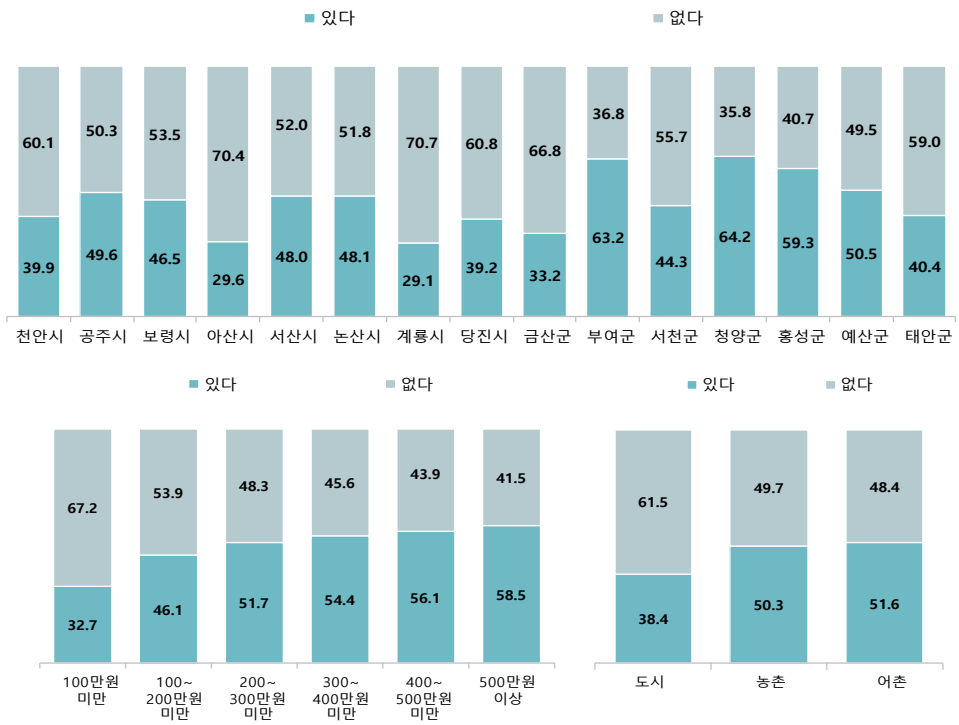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 계룡시, 아산시, 금산군, 당진시, 천안시 순으로 가입된 공동체가 없다는 응답이 높아 공동체 활동에 대한 실제 활동 현황은 도시지역보다는 농어촌 지역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전통적인 마을공동체 조직의 활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지역적 특성을 보았을 때 도시에 거주하는 도민들은 61.5%가 활동 중인 공동체조직이 없다고 응답한 반면 농어촌은 대략 49.7% 정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의 응답을 살펴보면 100만원 미만의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공동체 활동이 없다는 대답이 67.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은 58.5%가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충남에서 공동체 활동에 접근성이 취약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계층은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 도민들이 활동하는 공동체 유무

(단위: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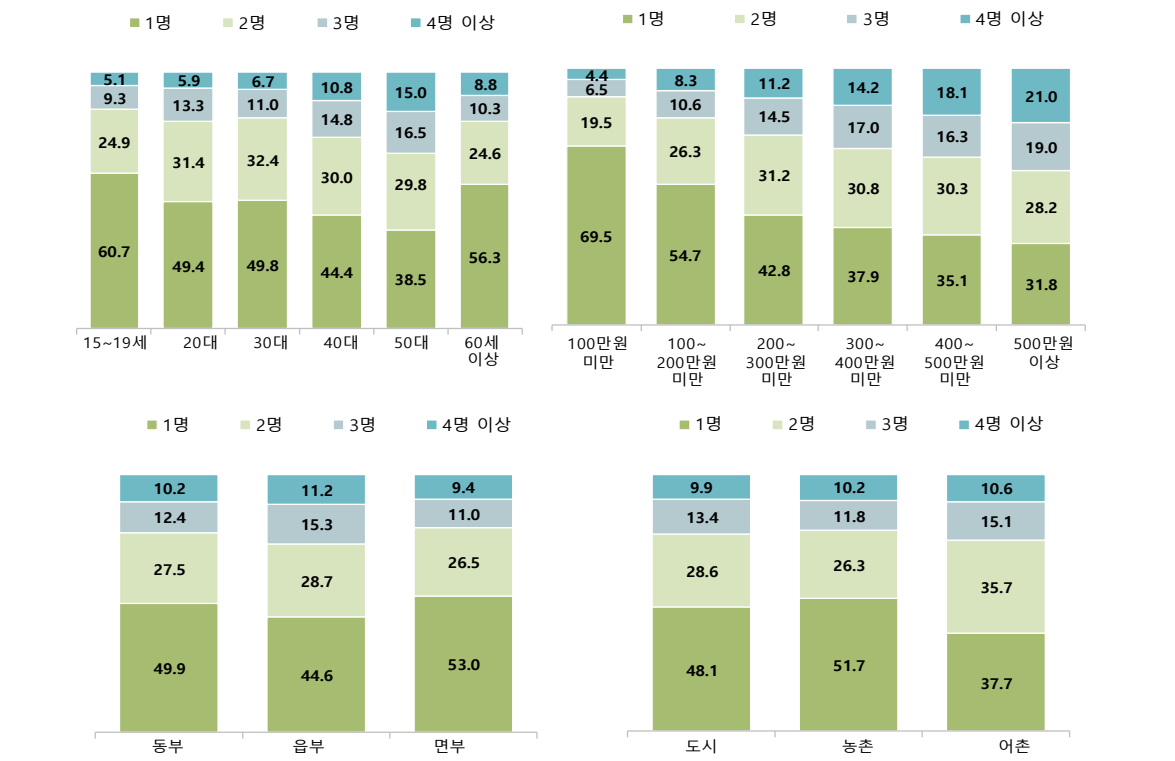
이와 함께 공동체 활동을 수행한다고 응답한 도민 중에서 얼마나 많은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였다. 우선 충남 전체적으로 대부분 1개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50.0%로 절반을 차지하지만 4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도 10.1% 정도 분포하고 있다.

다음으로 충남 도민들을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복수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활발한 계층은 40~50대임을 알 수 있으며 가장 취약한 계층은 10대와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공동체적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소득별로 살펴보면 공동체 활동을 하는 도민 중에서도 낮은 소득 계층일수록 참여의 범위가 협소하고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 일수록 다수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공동체의 복수참여 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군지역의 읍부임을 알 수 있고 도시나 농촌보다는 어촌마을에서 복수의 공동체 활동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5> 도민들의 복수 공동체 참여활동 여부 응답

(단위: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4. 지역공동체와 신뢰에 대한 인식

1) 지역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 충남 도민들이 본인이 소속된 지역사회 공동체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의 인식적 차원에 대한 설문 응답은 다음 표와 같다.

우선 충남도민 전체적으로는 마을(동네) 구성원간 '서로 잘 알고 지낸다'는 응답이 평균적으로 5.87점으로 가장 높고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는 응답이 4.89점으로 가장 낮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가 5.43점으로 인식뿐만 아니라 실천적 행위도 평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지역공동체에 관심이 많고 활동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으며 지역별로는 대체적으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 남서부의 군지역에서 지역의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의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는 모두 평균 3~4점대를 보이고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다소 낮은 인식을 보여주는데 도시지역의 지역공동체 의식이나 참여인식이 비도시지역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에서 개인적으로 알고지내는 차원의 인식보다도 지역 공동체에서 행사나 모임 참여, 동네에 대한 대화나 관심도 같은 항목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마을의 개인적 친분은 있으나 공동체 차원의 조직화된 행위의 참여비율이 더욱 낮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응답자들이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에 대해 관심과 참여가 높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10대와 20대의 젊은 계층일수록 지역사회, 동네,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소득차원에서 보면 낮은 소득일수록 거주하는 마을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인식이 높고 고소득자일수록 관심도가 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충남에서는 마을공동체와 사람들에 대한 관계형성과 참여가 소득 및 연령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적 특성을 보면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 공동체와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는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주민들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의 응답은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가 심하며 어촌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동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고 농촌공동체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인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 거주하는 지역 공동체와 구성원에 대한 인식

(단위 : 점(10점 기준))

구분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동네의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다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한다
전체		5.87	5.32	5.43	4.89
성별	남성	5.70	5.15	5.30	4.83
	여성	6.02	5.48	5.54	4.94
시군별	천안시	4.31	3.75	3.75	3.14
	공주시	5.81	5.34	5.45	5.02
	보령시	6.20	5.70	5.79	5.14
	아산시	4.77	4.33	4.42	3.98
	서산시	5.69	5.05	5.14	4.71
	논산시	6.25	5.67	5.86	5.35
	계룡시	4.74	4.24	4.66	3.87
	당진시	5.77	5.27	5.49	4.85
	금산군	6.31	5.52	5.76	4.84
	부여군	7.27	6.96	7.05	6.69
	서천군	6.77	6.00	5.82	5.14
	청양군	6.76	6.08	6.32	5.91
	홍성군	5.89	5.41	5.58	5.19
	예산군	6.61	6.18	6.09	5.71
	태안군	7.20	6.65	6.53	6.12
연령별	15~19세	4.00	3.28	3.66	2.93
	20대	3.63	3.10	3.36	2.70
	30대	4.12	3.58	3.77	3.06
	40대	4.67	4.00	4.27	3.55
	50대	5.63	5.05	5.24	4.75
	60세 이상	7.01	6.52	6.49	6.05
가구 소득별	100만원 미만	6.74	6.20	6.11	5.56
	100~199만원	6.36	5.89	5.96	5.54
	200~299만원	5.51	5.00	5.13	4.73
	300~399만원	5.23	4.66	4.89	4.40
	400~499만원	5.15	4.51	4.72	4.19
	500만원 이상	5.06	4.44	4.76	4.19
지역 특성별	도시	4.58	3.99	4.14	3.51
	농촌	6.96	6.45	6.52	6.08
	어촌	7.08	6.71	6.38	5.8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 적색표기는 각 영역별 특징적인 인식결과를 반영



2)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으로 낯선 사람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에 대한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충남에서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신뢰를 기초로 하여 형성되는 자본의 형태이다. Fukuyama (1996)는 하나의 사회나 사회의 특정 부분에 신뢰가 정착되었을 때 사회적 자본이 형성됨을 강조하며 신뢰는 구성원이 의지를 갖고 누군가에게 행동할 때 발생하는 기대와 의무이며 호혜성과 네트워크 참여 등의 다른 사회적 자본의 요인은 결국 타자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의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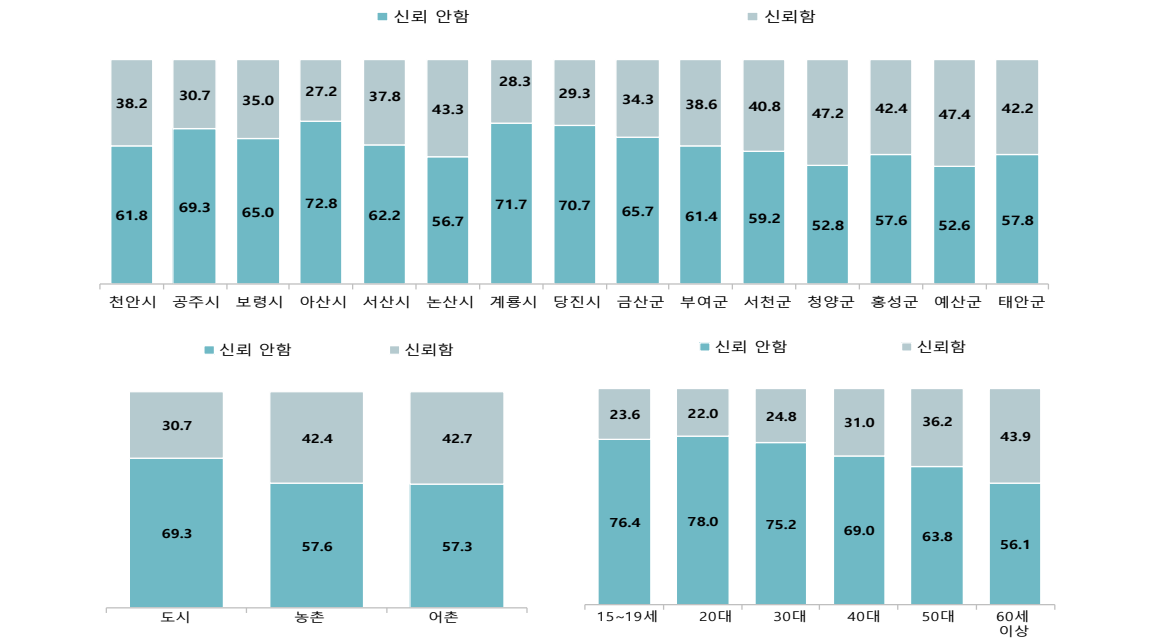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사회적 신뢰에 대한 인식은 충남에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한 사회적 자본이 얼마나 구축되어 있으며 향후에도 지역공동체 활동과 정책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 구성원에 대한 믿음과 태도를 측정하는 기반이 된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 정도는 37.0% 정도 신뢰한다고 하며 63.0%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10점 척도로는 4.27점으로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살펴보면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논산시, 태안군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 아산시, 계룡시, 공주시, 당진시는 30% 미만의 응답자만이 신뢰한다고 하여 낮은 신뢰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군보다 도시지역에서 사회적 신뢰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충남의 지역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도시지역에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사회적 신뢰의 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는데 도시는 30%, 농어촌은 42% 정도가 낯선 사람을 포함한 사회적 구성원을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결국 충남에서는 도시지역에서 도민들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 축적이 부족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나 실제 활동 또한 대체적으로 비도시 지역에 비해 낮은 현황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6> 충남도민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 정도

(단위: %)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5. 공동체 활동 유무에 따른 인식 비교

다음으로는 도민들의 활동하는 공동체 조직의 유무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인식의 차이 비교는 도민들이 가입하여 활동중인 공동체 조직의 유무에 따른 집단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실시하였다. 두 집단간에 지역공동체 및 구성원들에 대한 인식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응답자간의 행복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표 4-3> 공동체 활동 참여여부에 따른 인식의 차이 분석

구분	항목	t값	유의확률	평균차이
지역 공동체 인식	서로 잘 알고 지냄	31.891	0.000***	0.449
	동네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함	32.529	0.000***	0.480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	34.447	0.000***	0.492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 참여	38.943	0.000***	0.590
공공의 신뢰	충청남도의 신뢰	12.777	0.000***	0.110
	소속시군의 신뢰	19.139	0.000***	0.315
주관적 웰빙	삶에 대한 만족도	27.622	0.000***	0.748
	지역에 대한 만족도	27.086	0.000***	0.918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입하여 활동하는 공동체조직의 유무에 따라 지역사회 및 삶의 만족도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함에 따라 응답자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전반적 생활의 만족도에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도민들의 지역공동체 활동의 참여는 지역에서 행복 및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정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에도 크지는 않지만 0.5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장 큰 평균 차이는 공동체 활동 유무에 따라 동네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식이며 두 번째는 어려운 일을 서로 돕는다는 인식이다. 결국 지역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의 사회적 관계 인식과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의 적극적 참여 유인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충청남도 및 소속 시군에 대한 공공의 신뢰는 차이가 유의하기는 하지만 거의 인식적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으로 인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큰 영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6. 결론 및 정책 제언

충남 도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정부 활동의 한계와 시장실패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안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본 조사를 통해 충남에서 고령자 및 저소득층일수록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고 공동체 활동을 수행하려는 의향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수요 충족을 위해 관련된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사업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적 차원을 보면 충남의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비교해 볼 때, 대체적으로 도시 및 동 지역에서 지역공동체의 활동에 대한 의향과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지만 실제 지역공동체 활동 여부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비도시지역은 이와 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충남에서

지역공동체들의 발굴과 육성 관련된 정책적 지원활동은 도시지역의 주민 중심이 보다 효과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는 기존의 농어업 및 전통적 지역공동체의 활동으로 인해 의향이나 필요성이 다소 낮다고 판단되어 이와는 다른 특성과 성격을 지닌 지역공동체 활동의 수요를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의 종합을 통한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충청남도에서는 농어촌의 비도시 지역 중심의 고령자 돌봄 활동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 중심의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향이 필요하다. 공동체적 돌봄 방식은 정부 지원 방식과는 달리 돌봄 당사자의 참여와 수요에 기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함께 활동하는 공동 생산의 방식에 기반한다. 이처럼 충남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고령자의 돌봄 및 복지 관련된 충남형의 돌봄공동체의 발굴,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발과 실행이 필요한 때이다.

둘째, 충남 북부지방 중심의 도시지역에서는 주민간 친화, 만남의 기회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고 공동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의 방향으로 정책의 지원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주민들간의 만남과 대화 및 논의의 장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정책적 접근이 효과적일 것이다. 충남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공익활동의 정책영역에서 지원하는 학습동아리 및 공익활동 모임처럼 기초적인 단계의 학습모임, 동아리 등의 지원 형태를 통해 도심의 지역 곳곳에 공동체 활동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도심지역에서 공동육아 및 생활협동조합 활동 등의 구체적인 도민들의 생활세계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기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활동의 여부는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느끼는 주관적 웰빙 및 지역사회의 만족도 차이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정부와 시장 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있으며, 충남의 도민들 또한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친밀감을 통한 소속감과 도움을 주고받는 공동체 행위와 행복감의 상관성의 인식을 갖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충남 공공정책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면,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 정책지원의 적극적인 계획과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사 결과의 근거를 통해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강대기(2003). 패러다임 변화와 공동체의 통합개념 구축.「농촌사회」. 13(2).

박정윤.최현선.김재현(2013). 귀농귀촌 시대의 공동체의 역할: 괴산군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방자치학회보」. 25(3).

서재호(2012). 국내 공동체(커뮤니티) 연구에 대한 종합적 메타분석과 행정학에 대한 함의: 연구분야, 방법, 목적 및 주제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행정연구」. 22(4).

신예철(2012).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만들기공동체와 지역문화활동공동체의 역량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충청남도(2017-2020), 충남 사회조사

최인수(2014).「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진형 행.재정적 지원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한상일(2010). 사회적기업과 지역공동체 발전.「창조와 혁신」. 3(1).

Hillery, P.(1955). “Definitions of Community: Areas of Agreement.” Rural Sociology 20.

청년/노동

Life of Chungnam Residents and Policy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

05. 충남 청년층 노동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김 병 준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센터장
pencil@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지역 청년들의 노동 형태와 노동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충남 청년층 노동환경에 나타난 취약점을 확인하고 향후 충청남도 청년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함
- 충남 청년의 취업률은 2018년, 2019년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0년은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충남 청년층 20대의 직업 분포 중 사무 종사자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2018년 이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30대는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이 계속 높은 것을 확인함
- 충남 청년층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20대는 2018년에 비해 2020년 감소하였고, 30대는 2018년에 비해 2020년 상승해 30대와 달리 20대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함
- 자영업자의 비율은 20대는 2018년에 비해 2020년 상승한 반면, 30대는 반대로 감소하여 20대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충남 청년들이 근로여건 중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소득이며, 임금근로자의 경우 20대와 30대 모두 200~300만 원의 임금을 주로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함
- 충청남도 청년정책 과제 대부분 미취업자 대상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의 중복 사업들이 많음. 사회초년생, 소득이 적은 청년 취업자, 청년 여성 등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핀셋 지원 확대와 청년주거비 무상지원, 구직활동지원금(청년실업수당)과 같은 실질적 청년복지 정책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지역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 더 나은 생활 수준을 찾아 대도시로 이주하고, 반면 지역은 일할 청년이 없다고 구인난을 호소한다. 충청남도의 다양한 청년일자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청년 인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의 유출은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지방소멸의 위기를 가속화 한다.

충남의 청년 고용률은 지난 10년간 40% 전후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청년 실업률은 8~9% 수준으로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이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용 위기가 심화되며 일자리의 감소로 청년들은 더 큰 고용절벽을 체감하고 있다. 청년층의 불안정적인 노동실태 문제는 청년층에게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한 소위 'N포 세대'라 불리며 여러 가지 상황을 포기하는 생애복지 문제와 직결이 되며 자연스레 출산율 저하, 청년층을 자녀로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감 증가 등 지역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도내 청년 노동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충청남도 청년 노동정책이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기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는지 현황 분석에 근거한 진단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2020 충남 사회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충남지역 청년들의 노동 형태와 노동 만족도 등을 분석하고, 향후 충청남도 청년노동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2. 충남 청년층 노동실태 분석

1) 충청남도 청년 현황

충남 청년[8]의 인구 수는 2018년 651,355명, 2019년 633,887명, 2020년

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청년의 나이를 15~29세로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15~34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정책 사업에 39세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자치단체들이 청년의 범위 확대를 통해 다양한 청년정책 지원을 마련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는 20대, 30대 청년노동 실태에 대한 진단을 위해 39세 이하까지 청년에 포함하였다.

613,17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청년 인구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전국 청년 대비 지역 비율로 보면 충남은 2018년 3.8%, 2019년 3.9%, 2020년 3.8%로 비슷한 인구 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5-1> 충남 청년 인구 수

(단위: 명)

연령별	2018년	2019년	2020년
15-19세	113,969	108,897	101,372
20-24세	127,436	124,097	121,014
25-29세	121,007	121,640	122,186
30-34세	125,200	122,292	119,694
35-39세	163,743	156,961	148,904
총합	**651,355**	**633,887**	**613,170**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표 5-2> 전국 청년 인구 수

(단위: 명, %)

행정구역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전국	16,899,721	100.0	16,540,432	100.0	16,135,017	100
서울특별시	3,473,315	20.6	3,415,596	20.6	3,345,731	20.7
부산광역시	1,065,107	6.2	1,026,839	6.3	991,207	6.1
대구광역시	789,132	4.6	760,238	4.7	735,110	4.6
인천광역시	1,002,169	5.9	979,206	5.9	947,351	5.9
광주광역시	502,206	3.0	490,304	3.0	477,280	3.0
대전광역시	511,326	3.0	496,284	3.0	483,092	3.0
울산광역시	386,014	2.2	370,674	2.3	352,717	2.2
세종특별자치시	108,737	0.7	115,520	0.6	117,303	0.7
경기도	4,439,384	26.7	4,408,771	26.3	4,382,543	27.2
강원도	442,581	2.6	430,994	2.6	418,996	2.6
충청북도	494,122	2.9	483,186	2.9	470,341	2.9
충청남도	**651,355**	**3.8**	**633,887**	3.9	**613,170**	3.8
전라북도	531,789	3.1	511,715	3.1	492,302	3.1
전라남도	514,851	3.0	496,597	3.0	473,952	2.9
경상북도	755,890	4.4	729,156	4.5	692,100	4.3
경상남도	1,023,125	6.0	986,956	6.1	941,352	5.8
제주특별자치도	208,618	1.2	204,509	1.2	200,470	1.2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 충청남도 청년 취업률

충남 청년의 취업률은 2018년 62.18%, 2019년 63.10%, 2020년 59.20%로 최근 취업률이 감소하였으나 올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청년 취업률은 감소한 추세이다. 충남 청년의 취업률은 2018년, 2019년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2020년은 세종특별자치시, 충북,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전국 청년 취업자 수

(단위: 천명, %)

행정구역	2018년		2019년		2020년(3/4)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취업자	취업률
전국	9,486	56.13	9,474	57.28	8,955	55.50
서울특별시	2,046	58.91	2,047	59.93	1,985	59.33
부산광역시	569	53.42	571	55.61	504	50.85
대구광역시	385	48.79	388	51.04	374	50.88
인천광역시	587	58.57	592	60.46	550	58.06
광주광역시	270	53.76	267	54.46	251	52.59
대전광역시	277	54.17	282	56.82	287	59.41
울산광역시	209	54.14	196	52.88	180	51.03
세종특별자치시	63	57.94	67	58.00	73	62.23
경기도	2,562	57.71	2,569	58.27	2,452	55.95
강원도	228	51.52	227	52.67	208	49.64
충청북도	296	59.90	290	60.02	284	60.38
충청남도	405	62.18	400	63.10	363	59.20
전라북도	259	48.70	254	49.64	250	50.78
전라남도	250	48.56	245	49.34	225	47.47
경상북도	406	53.71	404	55.41	360	52.02
경상남도	552	53.95	554	56.13	494	52.48
제주특별자치도	124	59.44	118	57.70	112	55.8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충남 청년층 직업 종류

2020년 기준 충남 청년층의 직업 분포 비율은 20대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2%), 사무 종사자(22.0%),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21.1%), 서비스·판매직

종사자(18.5%), 단순노무 종사자(13.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9%), 군인(1.1%)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20대의 직업 분포와 비교했을 때 기존 사무 종사자(17.0%), 서비스·판매직 종사자(16.2%) 비율 등에서 증가를 확인하였다.

30대는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28.2%),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1.1%), 사무 종사자(20.0%), 서비스·판매직 종사자(16.6%), 단순노무 종사자(10.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2.4%), 군인(0.9%) 순으로 직업 분포 비율이 나타났으며, 2018년과 비교해 비율은 조금 달라졌지만 종사자 비율 순은 변화가 없었다.

<표 5-4> 충남 청년층 직업 종류

(단위: %)

구분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무응답
20대	22.2	22.0	18.5	1.9	21.1	13.1	1.1	0.0
30대	21.1	20.0	16.6	2.4	28.2	10.4	0.9	0.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4) 충남 청년층 고용형태

충남 청년층 근로 지위는 대부분이 임금근로자로 20대 91.0%, 30대 84.5%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늘어났다.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20대 92.8%, 30대 81.0%에서 2019년 20대 92.1%, 30대 82%로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0대에서는 약간 감소, 30대에서는 약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0년 임금근로자의 형태는 20대는 상용근로자 72.8%, 임시근로자 12.6%, 일용근로자 5.7%이고, 30대는 상용근로자 75.8%, 임시근로자 5.2%, 일용근로자 3.6%로 나타나 20대보다 30대에서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20대는 2018년 76.2%에 비해 2020년 72.8%로 감소하였고, 30대는 2018년 72.9%에 비해 2020년 75.8%로 상승해 20대의 고용 안정성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비임금근로자의 형태는 20대 자영업자 6.0%(고용원있음 1.4%, 고용원없음 4.6%), 무급가족종사자 3.0%이고, 30대 자영업자 13.0%(고용원있음 4.4%, 고용원없음 8.6%), 무급가족종사자 2.5%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자영업자 비율이 높았다. 자영업자의 비율은 2018년에 비해 20대는 4.5%에서 6.0%로 상승한 반면, 30대는 16.1%에서 13.0%로 감소하여 20대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5> 충남 청년층 종사상 지위

(단위: %)

구분	임금 근로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자사
20대	91.0	72.8	12.6	5.7	9.0	1.4	4.6	3.0
30대	84.5	75.8	5.2	3.6	15.5	4.4	8.6	2.5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5) 근로여건 만족도

충남 청년층이 근로여건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의사소통/인간관계 54.0%, 하는일 49.4%, 근무환경 49.1%, 고용안정성 45.6%, 근로시간 44.7%, 전반적 만족도 42.1%, 장래성 40.4%, 임금/소득 34.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는 의사소통/인간관계 53.3%, 하는일 49.6%, 고용안정성 47.1%, 전반적 만족도 46.0%, 근무환경 44.9%, 근로시간 43.4%, 장래성 42.8%, 임금/소득 37.7%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여건 불만족은 20대는 임금/소득 27.5%, 장래성 22.6%, 고용안정성 16.5%, 근무환경·전반적 만족도 13.1%, 근로시간 12.9%, 하는일 12.4%, 의사소통/인간관계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대는 임금/소득 25.0%, 장래성 16.5%, 근로시간 15.6%, 고용안정성 15.0%, 근무환경 13.7%, 하는일 12.3%, 전반적 만족도 10.7%, 의사소통/인간관계 10.5%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 청년이 근로여건 중 가장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임금/소득으로 20대는 2018년 27.5%, 2019년 35.7%, 2020년 27.5%로 2019년 불만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다 2020년에 감소하였다. 30대 역시 2018년 27.5%, 2019년 35.7%, 2020년 25.0%로 2019년에 불만족 응답 비율이 증가하다 2020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충남 청년층 근로여건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하는 일				임금/소득				근로시간				근무환경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 (10점)
20대	'18년	37.5	45.7	16.9	5.61	27.5	41.1	31.4	4.91	30.8	50.3	18.9	5.36	35.2	47.3	17.5	5.56
	'19년	46.8	39.4	13.8	6.03	35.7	39.2	25.1	5.33	44.9	38.6	16.5	5.90	45.9	41.8	12.2	6.12
	'20년	49.4	38.2	12.4	6.17	34.0	38.5	27.5	5.28	44.7	42.4	12.9	6.01	49.1	37.8	13.1	6.20
30대	'18년	41.8	45.1	13.1	5.82	29.7	43.5	26.8	5.07	35.7	48.2	16.2	5.57	34.7	45.8	19.5	5.49
	'19년	46.1	39.8	14.0	6.00	36.3	40.0	23.7	5.38	39.7	44.2	16.2	5.72	44.0	42.1	13.8	5.96
	'20년	49.6	38.1	12.3	6.17	37.7	37.3	25.0	5.40	43.4	41.0	15.6	5.92	44.9	41.4	13.7	6.01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2020)

<표 5-7> 충남 청년층 근로여건 만족도(계속)

(단위: %, 점)

구분		의사소통/인간관계				고용안정성				장래성				전반적 만족도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10점)	만족	보통	불만족	평균(10점)
20대	'18년	53.7	40.7	5.6	6.42	33.9	51.5	14.6	5.59	36.4	44.6	19.0	5.48	32.9	54.1	13.0	5.57
	'19년	49.4	40.1	10.6	6.26	46.1	41.1	12.8	6.09	41.2	40.8	18.0	5.71	43.2	44.2	12.6	5.97
	'20년	54.0	35.9	10.2	6.38	45.6	37.9	16.5	5.98	40.4	37.1	22.6	5.57	42.1	44.8	13.1	5.89
30대	'18년	53.8	40.1	6.1	6.41	38.2	48.3	13.5	5.74	36.7	44.9	18.4	5.54	36.7	52.2	11.0	5.74
	'19년	50.1	41.5	8.4	6.26	45.8	40.4	13.9	6.03	41.0	41.7	17.3	5.74	42.4	46.9	10.7	5.96
	'20년	53.3	36.2	10.5	6.32	47.1	38.0	15.0	6.05	42.8	40.7	16.5	5.79	46.0	43.3	10.7	6.04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2020)

<표 5-8> 충남 청년층 임금/소득 만족도

(단위: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대	27.5	35.7	34.0
30대	29.7	36.3	37.7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18~2020)

6) 월평균 임금/소득

충남 청년의 월평균 임금/소득 기준, 임금근로자의 20대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 53.6%, 100~200만원 미만 24.1%, 300~400만원 미만 14.1%이었으며, 30대는 200~300만원 미만 35.3%, 300~400만원 미만 30.4%, 100~200만원 미만 14.2%, 400~500만원 미만 12.6%로 나타나 20대와 30대 모두 200~3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20대 월평균 임금은 200~300만원 미만 33.6%, 100~200만원 미만 27.3%, 300~400만원 미만 14.7%인 반면, 30대는 300~400만원 미만 30.2%, 200~300만원 미만 21.4%, 400~500만원 미만 12.5%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20·30대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200~300만원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임금근로자의 경우보다 고소득(500만원 이상)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9> 충남 청년층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단위: %)

구분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20대	1.3	4.9	24.1	53.6	14.1	1.5	0.6	0.0
30대	0.6	1.6	14.2	35.3	30.4	12.6	5.0	0.3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표 5-10> 충남 청년층 비임금근로자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소득이 없거나 적자(0)	1~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600만원 미만	600~700만원 미만	700~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20대	0.0	0.0	4.2	27.3	33.6	14.7	5.9	2.3	4.6	5.4	1.9
30대	2.1	2.1	2.8	11.6	21.4	30.2	12.5	7.6	0.7	5.1	3.8

자료: 충청남도, 「충남 사회조사」, (2020)

3. 분석 및 정책현황

1) 2020년 사회조사 청년 노동실태 분석

충남 청년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국 청년 인구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전국 청년 인구수 대비 충남 청년 인구수의 비율은 2018년 3.8%, 2019년 3.9%, 2020년 3.8%로 비슷한 인구수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취업률은 2019년까진 증가하고 있었으나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위기 심화 속에서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충남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청년의 직업 형태는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대는 30대와 달리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22.2%), 사무 종사자(22.0%)의 비율이 더 높았다. 2018년 20대의 직업 분포 비율과 비교했을 때 2020년 20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직 종사자의 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사회초년생이 많은 20대가 사무직과 서비스직을 선호하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충남 청년의 근로 지위는 대부분 임금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으나 연령이 올라갈수록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여건 만족도에 대해서는 충남

청년은 의사소통/인간관계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으며, 임금/소득에 대해서 가장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낮은 임금/소득은 2018년 이후 만족도 비율 자체는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근로여건 중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대의 장래성에 대한 만족도 비율이 30대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났는데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전망에 대한 불안감을 20대가 더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충남 청년의 인구수와 취업률은 크게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남 청년층의 직업은 기능 기계조작·조립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다[9]. 다만, 20대와 30대의 직업 분포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대상별 청년정책의 구분이 필요함을 진단할 수 있었다.

2) 충청남도 청년정책 현황

충남은 2019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의 4대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4대 정책의 세부분야로 일자리(①경제일자리, ②노동인권), 설자리(③생활지원, ④금융부채), 살자리(⑤주거지원, ⑥결혼출산육아), 놀자리(⑦문화산업, ⑧참여소통)로 선정하여 총 104개의 청년사업이 추진되었다.

이후 청년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2020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에 맞추어 참여·문화, 주거, 생활, 일자리의 총 4가지 분야의 청년정책을 수행하였다.

<표 5-11> 충남 청년정책 과제 분류 (낙지생근)

슬로건	청년이여, 충남에 머물러 유(留)			
목표	청년들이 찾고 머무는 충남 실현 (충남에 뿌리내리는 청년들의 정착 지원)			
정책	樂(락) : 즐겁다	地(지) : 자리잡다	生(생) : 생활하다	根(근) : 정착하다
	참여·문화	주거	생활	일자리
분야	참여소통 문화육성 능력개발	주거지원	금융지원 복지증진	일자리 창업지원

자료: 2020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실행계획

9) 최근 코로나19 여파 장기화로 제조업 기반의 충남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 고용에서 큰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 등에서의 일자리 감소는 청년 고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미래형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래 표의 4개 정책, 8개 분야, 32개의 사업이 시행되었고 일자리/창업 지원 15개, 역량강화 7개, 주거지원 3개, 복지지원 2개, 기타 4개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표 5-12> 2020년 충남 청년정책 실행과제

정책	분야	사업명	성과지표	목표값
樂 (11)	참여소통 (4)	충남청년네트워크	청년정책위원회 정례화	2회
		청년활력공간 청년LAB	청년LAB 조성	1개소
		충남청년의 날	충남청년의 날 행사 개최	1회 개최
		청년 자원봉사 콘텐츠 기획단	대학생 자원봉사 콘테스트 참여	15팀
	문화육성 (4)	청년문화예술가 육성	청년 문화예술가 발굴 및 육성	40명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아카데미	청년 문화예술기획자 양성	30명
		청년 음악창작소	음반제작 지원을 통한 뮤지션 발굴	5팀
		청년 만화작가 웹툰창작소	인프라/교육프로그램 및 창작 작품 발굴	16건
	능력개발 (3)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시군 사업추진	12개 시군
		지역청년멘토 육성	청년멘티 모집	100명
		청년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삶기술학교)	삶기술학교 참여 인원	40명
地 (3)	주거지원 (3)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시군 쉐어하우스 운영	4개 시군
		청년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이차보전)	이차보전금 지원 확정	150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 첫사업 착공, 기타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매입형) 시범사업 20호 매입·공급	100% (이행도)
生 (3)	금융지원 (1)	청년대상 금융경제교육	청년대상 금융경제교육 실시	33회
	복지증진 (2)	충남 뿌리내림 장학금	장학생 선발	50명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지원	청년 신체·건강 서비스 이용자 수	100명
根 (15)	일자리 (8)	희망이음 프로젝트	기업탐방 및 채용행사 추진	40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 창출	1,060명
		충남 지역대학 인재 장학금 및 취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20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및 취창업카페	프로그램 참가자	300명
		충남형 지역균형발전 청년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200명
		청년공익활동가 육성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	16명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청년활동가 육성	39명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	청년 도제생 육성	68명
	창업지원 (7)	1839 청년창업프로젝트	청년 창업가 발굴	50명
		지역 마을창고 활용 청년 창업가 양성	청년창업팀 지원 육성	2팀
		청년상인 육성	청년 창업 점포 발굴 청년상인 혁신리더 발굴	10개 점포 42명 발굴
		청년상인 전시판매 지원	청년 소상공인 지원	10업체
		청년 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자보전	80백만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수	28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대상자 영농정착률	93%

자료: 2020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실행계획

3) 시사점

충청남도 청년정책 과제의 대부분이 미취업자 대상의 정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청년정책 32개 사업 중 15개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름만 다르고 비슷한 내용의 중복 사업들이 많았다. 사회초년생, 소득이 적은 청년 취업자, 취약층인 청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청년정책의 구상 및 보완이 필요하다. 더불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직활동지원금(청년실업수당)과 같은 실질적 청년복지 정책의 시행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정책 제언

1) 청년층의 충남 정착 방안

2020년 충남 사회조사에 따르면 20대의 49.6%, 30대 43.7%가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20대의 41.04%, 30대 28.4%가 충남 이외 다른 시도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었다. 직장/사업상 이유뿐만 아니라 교통 및 인근시설 편리성, 자녀의 교육문제, 경제적인 이유 등도 청년들의 주거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일자리 확보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경하여 청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경제·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맞춤형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 ▶ (경제) 사회초년생, 소득이 적은 청년 취업자, 청년 여성 등 취약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 확대
- ▶ (문화) 충남에서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 확대로 충남에서의 생활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 ▶ (사회)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주한 청년층의 정착을 위해 일자리 연계, 생활비 지원, 이주 지원 등 이주 청년의 지역사회 진입 과정 지원

2) 임금/소득에 만족도 개선 방안

근로여건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20~30대 모두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소득만족도 조사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청년이 30%가 되지 않아 임금/소득 여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개선 방안으로 가구 부채 여부에 따른 지원정책 수립으로 임금/소득 대비 지출을 줄여 생활 불안전성의 제거와 20~30대 대부분의 가구 부채인 주택 임차/구입에 대한 청년주택 정책 등의 마련이 필요하다. 20대는 추가로 교육비에 대한 부채에 따른 지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등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

▶ 충남의 주거지원 정책인 '청년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의 정책 확대

▶ '뿌리 내림 장학금' 확대 및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감소를 위한 정책의 시행으로 20대 청년의 교육비 부채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

3) 청년정책 방향성 재설정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단순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일자리 확보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경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 중심의 청년 소통·정책 창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청년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청년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다양한 청년 정책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 '충남청년네트워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4) 청년 관련 정책의 적극 홍보 및 참여 유도

충남 청년의 취업, 정착 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할 때 목표 달성 및 이에 따른 정책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정책의 대상인 청년층에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들을 수립하여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야 한다.

▶ 청년정책의 정보제공, 소통참여를 위한 포털(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서울, 경기, 충북, 경남, 전남, 부산에서 운영 중

서울	‘서울청년포털’ https://youth.seoul.go.kr/youth
경기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
충북	‘충북청년포털’ https://www.chungbuk.go.kr/young/index.do
경남	‘청년온나’ http://www.youthonna.com/web
전남	‘oh!감만족청년정책’ https://brand.jeonnam.go.kr
부산	‘부산청년플랫폼’ https://www.busan.go.kr/young/index

참고자료

충청남도(2018~2020). 충남 사회조사
행정안전부(2018~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2018~2020). 경제활동인구조사
충청남도(2018). 충남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실행계획
충청남도(2020). 2020년 충청남도 청년정책 실행계획

보고서 발간에 참가한 사람

연 구 진

이상신(충남연구원 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센터장)
박근오(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센터장)
이인배(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전지훈(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김병준(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센터장)

충 청 남 도

설기호(정보화담당관)
한경아(빅데이터통계팀장)
우희령(담당자)

(주)글로벌리서치

김태영(글로벌리서치 연구이사)
서현창(글로벌리서치 연구차장)
황소희(글로벌리서치 연구과장)
김상민(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신지혜(글로벌리서치 연구대리)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371-10)

2020 도민의 삶과 정책

발 행 일 2020. 12.

발 행 인 충청남도지사

발 행 처 충청남도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041-635-2053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충청남도
Chungcheongnam-do